



8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8호

(루계 382)



◆◆◆◆◆◆◆◆◆◆

차 례

◆◆◆◆◆◆◆◆◆◆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	4
력사의 교훈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혁명적대작	6
내가 딛고 선 땅	10
눈내리는 귀틀집창가에	11
당을 노래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12
당에 대한 생각	16
언제나 당의 기치따라	17
위대한 주체의 당	18
가고 가는 길에서	21
공장의 주인들	29
사랑의 자욱을 따라 (외 1 편)	39
쇠가 단김에!	40
그대 달려온 길을 두고... ..	41
포구의 한밤에 (외 1 편)	42
공훈어로공	43

조국애에 대한 생활적이며 사색적인 참된 시적형상	44
가꾸는 마음	49
기계화가정 (외 1 편).....	58
좋은 봄밤이여라	58
풍년물을 이끌고	59
요 람.....	60
그 마음이 아름다와	62
이 땅우에 사는 오늘에도.....	63
정 성.....	64
웃는 얼굴.....	72
어려운 때일수록	74
순천의 세멘트생산자들을 찾아	76
청천강이여 길이 전하라	78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

리 맥

이른새벽
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속에 젖어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라

바라보면
푸르른 봄하늘처럼
희망은 끝없이 나래치고
우러르면
삶의 열정 용암처럼 솟구치는
승엄한 빛발
영광스러운 우리 당

당의 새 진군로우에
한생을 빛내여가는 로투사도
우러러 눈이슬에 젖고
그 길우에
투쟁의 첫걸음마를 땀 젖은 당원도
높은 긍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신념의 나래 가다듬어라

아,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이여
그대 있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얼굴에
그윽한 미소 어리고
그대 있어
태어나고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도
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나는것 아닌가
하늘처럼 맑고

바다처럼 마를줄 모르는
깨끗한 마음과 마음들이
높이 받들어올린 당
민족의 수천년 력사우에 받들어올리고
주체의 우리 시대가 떠받든 당

당이여
세기의 영광을 지닌 우리 당이여
그대의 전사로
노을이 피어나는 혁명의 언덕길을
우리 걸어가는
행복의 그끝은 어디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을
태양의 빛발로 뿌리기에
이 땅은 그리도 찬란하고
그 변할줄 모르는 신념
그 꺾일줄 모르는 의지를 지녔기에
그대의 힘은 불패이여라

민족의 슬기
인민의 예지를 지닌
당중앙
광휘로운 그 빛발로
조선의 장엄한 새벽은 밝아오고
날마다 그 빛발로
우리는 잠을 깨여라

그대 한번 나래펼치면
겹겹이 막아서던 준령도
천길 발밑에 숙어들고

그대 한번 부르면

수천만인민의 심장

해불이 되어 불타올라라

누리에 추켜든

그대의 기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그 기발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하나로 심장 고동치며

하나로 움직이는 조선로동당

그대 패기에 넘치고

열정에 끓는 속도전에

바다는 자리 옮기고

방금 우등불이 타오르던 천막가에

아름다운 노래인양

락원의 거리들이 솟아올라라

이 땅우의 모든것

그대 있어 태어나고

그대 더불어

양양한 미래를 지녔어라

수천년 세월로도

그대 이룩한 창조와 변혁

그 위대한 업적의 높이를

다 가늠할수 없나니

찬란히 밝아온 우리의 새 세기여

너는 지구가 흘러보낸

억만년의 세월을 뛰어넘으리

새기는 자욱

옮기는 걸음마다

그대 부름법으로 받들고

물불을 헤쳐 우리는 가리라

세기를 주름잡아 나아가는

이 궁지

이 영예를 안고

날마다 안겨주는

그 작은 하나의 분공도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받드는

빛나는 삶으로 꽃피거니

무조건성은 우리의 심장의 노래

저 높은 철탑우에서

날마다 말없이

나사못을 조이는 당원도

이 궁지로 가슴부풀고

한밤중 천리길을 헤쳐가는 전사도

당의 결정 받들고 가기에

힘한 산악을 웃으며 넘어라

날에날마다

새벽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깨끗해지고 승엄해지는 마음

아, 영원한 향도의 그 빛발

영광스러운 당이여

삶도 운명도 미래도

인민은 그대에게 바쳤어라

력사의 교훈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혁명적대작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보고-

장형준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 영화로 각색된것은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이 영화가 관중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상적내용의 심오한 철학성에 있다.

이 혁명영화의 심오한 철학성은 원작의 종자를 똑똑히 쥐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심오한 사상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의 군중공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었다.

여러분은 이제 연극에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조국을 빼앗긴 사람들이 조국을 강탈한 죄 많은 침략자를 복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강도들의 마수에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일제침략자들은 강도의 법을 가지고 우리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참을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데 뭉칩시다! 안중근은 혼자였기에 그것으로 그쳤지만 모두 단결한다면 우리의 힘은 강대합니다.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무리들을 기어코 조국강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의 사상적핵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원종자에 기초하여 외세의존이나 의병투쟁,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자주권을 찾을수 없고 어떠한 투쟁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서는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 밑에 올바른 혁명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총결기하여 싸울 때라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준다.

이것은 영화의 기본사상이 심오한 철학성을 띠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원리가 철저히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혁명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혁명은 승리할수 없으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력량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저절로 혁명승리의 결정적력량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민대중은 오직 탁월한 령도자, 정치적수령의 올바른 령도밑에서만 혁명승리의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혁명은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할수 있다.

이것은 주체의 형면리론이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이다.

혁명의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는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영화는 조선의 망국사와 열혈청년 안중근의 투쟁과 운명을 보여주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원인과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피의 교훈이 바로 탁월한 령도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단합된 힘으로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지 못한데 있다고 밝혀준다.

이처럼 혁명영화는 망국의 원인과 력사의 교훈을 주체적견지에서 심오하게 분석하면서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이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승리하게 될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열망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인 수령의 결정적역할과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과 인류앞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바로 여기에 이 혁명영화의 거대한 문제성과 심오한 철학성이 있다.

혁명영화의 심오한 사상은 단순한 론리나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당시의 력사적사건에 대한 진실한 묘사와 주인공 안중근의 투쟁과 운명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밝혀져있다.

바로 이때문에 관객들은 영화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되며 작품의 심오한 철학적사상을 심장에 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혁명투쟁에서 승리 하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영화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가 망하던 당시의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한것은 작품의 기본사상을 심오하게 밝힐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망국사를 보여주며 망국의 근본원인과 력사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한 시대를 반영하고 특징짓는 전형적인 력사적사건들을 통해서만 옳바로 해명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혁명영화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이등박문을 피수로 하는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이 조선을 어떻게 강도적으로 예속시켰는가,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리완용, 송병준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의 매국매족행위로 말미암아 조선이 어떻게 왜놈들에게 먹히웠는가, 안중근을 비롯한 당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이 어떻게 실제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혁명영화는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의 망국사를 보여주면서 일제침략자와 친일매국노들을 때려부시지 못하고 인민들이 투쟁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데 있다는것을 심각한 력사적교훈으로 도출해내고있다.

여기에 바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력사발전의 흐름과 시대를 폭넓게 보여준 이 영화의 사건선과 이야기줄거리 조직의 사상미학적타당성이 있다.

만일 영화에서 혁명의 전진을 방향짓고 추동하는 힘이 수령의 령도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는데 형상을 집중하지 못하였다더라면 력사적사건은 그것자체를 보여주는데 그치게 되었을것이며 력사적사건들에 대한 묘사로부터 력사발전의 진리,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를 밝혀낼수도 없었을 것이다.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엮는것은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발전과정과 운명을 통하여 혁명의 근본문제를 밝혀내야 할 이 혁명적대작의 형상적요구와도 관련되어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에서 력사적사건을 기본으로 하는 줄거리는 그 사건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운명발전의 줄거리로 될때라야 예술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밝혀주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면서도 력사적사건자체의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줄거리를 력사적사건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운명발전의 줄거리로 전환시

켰다.

그리하여 혁명영화의 심오한 사상은 열혈청년 안중근의 투쟁과 운명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작품의 사상이 밝혀지는 과정도 안중근의 투쟁행로, 그의 사상의식의 발전과정과 밀접히 결부되게 되었다.

혁명영화에서 안중근은 일제침략자와 맞서 싸우는 열렬한 애국자로, 투쟁의 첨단에 서서 걸어 나가는 시대의 선각자로 잘 형상되고있다.

참으로 안중근의 온 일생은 나라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열렬한 투쟁과 모대김으로 일관되어있다.

열혈청년 안중근은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고 나라의 자주권이 위태롭게 되자 가슴을 치며 통탄만 하고있지 않았다.

그는 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구미렬강에 대한 환상을 품고 《만국평화회의》에 간 리준의 활동에도 기대를 걸어보았다.

이러한 운동과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고향에 남겨두고 해외에 가서 의병투쟁에도 직접 참가하여보았다.

그러나 의병투쟁으로써도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실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래 생각하고 모대기던끝에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의 두목들과 리완용, 송병준파위의 매국역적들을 처단하는 개인테러의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하자고 결심하였다.

안중근은 일제의 피수 이등박문만 죽이면 일제의 침략이 반드시 저지되고 국권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확신하여 마지않았다. 이것은 브로닝권총에 8발의 탄알을 채우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탄알들에 달려있다. 오,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그의 독백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대담하게 쏘눅혔으며 그놈을 쏘눅힌 다음에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놈을 짓밟고 호탕하게 웃었으며 이처럼 소리높이 《조선만세!》를 불렀던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가 생각한것처럼 되지 않았다.

일제의 두목 이등박문은 죽여어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저지되지 않았을뿐아니라 더욱 강화되어 드디어는 《한일합병》설까지 나오게 되었다.

일제의 손에 넘겨진 안중근은 자신의 투쟁과 조선인민의 운명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달빛이 스며드는 려순감방에서 그가 자기의 생애를 총화해보는 장면은 참으로 인상깊게 형상되어있다.

혁명영화는 자기의 생애를 총화해보는 안중근의 회상내용을 망국의 슬픔을 안고 자결하려는 사진, 리준이를 만나는 사진, 왜놈들의 몸부림치는 사진,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쏘는 사진 등 여러 화면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진화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울려나오는 그의 내면독백은 일생을 총화해보는 안중근의 심각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결코 자기 한 몸이 죽는데 대하여 통탄해하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슴아파한것은 죽는 사실 그자체보다도 자기가 걸은 길로써는 조국을 구원할수 없었다는 뼈아픈 사실과 나라를 구원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다.

나라를 위해 자신으로서서는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이등박문놈까지 싸죽였는데 일제의 침략이 저지되지 않고 머지 않아 《한일합병》까지 되리라고 하니 이것이 과연 어찌된 일인가?

힘껏 투쟁하느라고 하였는데도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근본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안중근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엄숙한 문제였다.

력사가 제기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혁명영화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이전의 모든 민족주의운동의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주체의 혁명관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애국사상이 높고 목숨바쳐 투쟁한다 하더라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옳은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투쟁하지 못할 때에는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이다.

사형직전에 자기의 생애를 총화해보며 그가 가장 통절하게 느낀것은 바로 자기를 옳바로 이끌어준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이 순간에 헤그에서 분사한 리준이를 생각해보기도 하였을것이며 의병대장을 생각해보기도 하였을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민족을 구원해줄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열망하였다.

《...나를 옳게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었구나, 5천년 역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봤으면... 아, 그런 영웅은 언제나 나타나겠는지...》

교수대에 오르는 그 준엄한 시각에 안중근은 이처럼 민족을 령도할 탁월한 수령을 피타게 갈망하였다.

자기 한몸이 죽는 그자체보다도 나라를 구원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는것을 가슴아파한 그가, 교수대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옳바른 투쟁의 길로 이끌어줄 혁명의 령도자,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열렬하게 갈망한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것이다.

이처럼 혁명영화는 주인공의 한생애에 대한 총화와 그에 기초한 의식발전의 자연스러운 론리,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린 시대와 인민의 요구, 망국의 피어린 력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혁명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에 대한 안중근의 갈망, 이것은 안중근의 한생애에 대한 총화에 기초하여 우려나온 간절한 념원이였을뿐아니라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민족적소원이기도 하였다.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 이전시기의 모든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인민들의 투쟁을 옳바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를 면하지 못하였다. 어느 나라 인민의 혁명운동이나 그 투쟁을 옳바로 조직하며 령도하는 현명한 령도자, 탁월한 수령을 내세우지 못하였을때에는 승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인류해방투쟁력사가 뚜렷이 증명하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력사적교훈에 기초하여 혁명영화는 위대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작품의 마지막에 여운있게 심어줌으로써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승리하게 될 혁명의 새시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애국렬사 안중근이 그렇게도 열렬하게 념원하고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 소원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우리려 모심으로써 비로서 빛나게 이루어졌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주시기에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숙원이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고 이 땅우에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거연히 일떠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여기에 바로 이 혁명영화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또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력사적교훈으로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혁명을 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안중근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싸우면서도 인민대중이 혁명의 결정적력량이라는것을 몰랐기때문에 뜻을 이룩할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혼자서 싸웠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는 안중근의 세계관과 활동의 제한성을 통해 집중적으로 밝혀지고있다.

그는 근로하는 인민을 무척 사랑하고 동정하였다. 이것은 명국이와 한세에 대한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볼수 있다.

안중근은 이렇게 근로하는 인민을 사랑하고 동정하면서도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 혁명의 결정적력량으로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상적제한성은 의병투쟁과 개인테로의 방법에서 드러나고있다.

반일의병투쟁은 옳은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조직령도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실패하였다.

영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의병운동의 상층부에 앉은 사람들은 자리다툼과 명예욕, 봉건적관념과 관습으로 하여 의병운동에 대한 옳은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일제의 공격앞에 전멸되고말았다.

안중근은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세였으나 조직력과 지도력에 있어서는 당시 의병지도자들의 일반적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의병투쟁이 안중근에게 안겨준것은 처참한 죽음뿐이었다.

황혼이 비긴 명국의 주검앞에 홀로 서있는 그 쓸쓸한 장면은 의병투쟁의 종말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중근의 활동의 제한성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보지 못하는 안중근의 세계관적제한성은 의병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그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찾지 않고 농사나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구국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이러한 그릇된 사상관점으로 하여 그는 의병들을 잘 묶어세울수도 없었고 그들의 투쟁을 옳게 이끌수도 없었던것이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이러한 그릇된 사상관점으로부터 그는 개인테로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개인테로의 투쟁으로써는 결코 나라의 자주권을 찾을수 없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나라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당시 애국적인민들의 앞장에서서 나아간 안중근의 투쟁과 제한성을 통하여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에 끌기시켜야 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힘으로써 영원한 예술적생명력과 높은 감화력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영화에 형상된 19세기말 20세기초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지 못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력사적시대와 현실을 취급하면서 준엄한 력사의 교훈을 바로 수령의 령도문제와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투쟁문제에서 찾은것은 하나의 발견이며 바로 여기에 작품의 심오한 철학성이 보장되게 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나라가 망한 근본원인과 안중근이 피의 교훈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히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혁명영화는 위대한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혁명적문학예술의 앞길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통하여 우리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혁명적대작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생활에서 철학적인 종자를 푹뚫히 골라집아야 한다는것을 깊이 배우게 된다.

동시에 이 혁명영화에서 우리는 작품의 심오한 사상은 구호나 생경한 론리로써가 아니라 력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한 묘사와 주인공의 성격과 운명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는것을 배우게 된다.

작품의 마감에 주어진 사상이 것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심장에 깊이 파고드는것은 충분한 형상적전제가 주어졌기때문이다.

력사물은 이 혁명영화에서와 같이 그렇게 력사적사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력사적인물들을 안중근의 성격형상과 같이 긍정적측면과 함께 제한성까지도 잘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창조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영광스러운 당의 문예방침이야말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예술적으로 완벽한 혁명적대작을 창작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깊이 느끼게 된다.

내가 딛고 선 땅

-삼지연 대기념비 군상앞에서-

박희구

내 어떤 땅우에 섰는가
딛고 서있기조차 황송하구나
나어린 투사여, 그때 환희에 넘쳐
오늘도 가슴에 안고 서있는
한줌흙!

난생처음 밟아보는 조국땅
차마 한발자국도 그랴는 디딜수 없어
그때 안고 일어선
오, 그 한줌흙을
뜨거운 마음으로 쓸어본다

여기엔 다 젖어흐르고있구나
나라잃은 설움에 울던
압록강의 물소리
조국진군의 그 기슭에
불붙던 진달래향기

여기엔 다 어려있구나
숙영의 우등불가에서
장군님 우리르던 그대 눈빛히
밀림속에 찬눈을 깔고
못견디게 그려보던 조국의 미래가...

아, 혈전의 언덕에 쓰러져도

못찾고선 눈감을수 없는 조국이어서
탄우를 맞받아 내닫던 그때의 가슴에서
한줌의 흙은 이 땅의 숨결이 되어
언제나 불처럼 뜨거웠구나

쏟아지는 눈부신 해살아래
설레이는 황금의 대지로
가없이 펼쳐진 그 한줌의 흙
오늘도 못놓고 가슴에 안은채
나어린 투사
삼지연기슭에 서있다

절로 머리숙어지는
내 딛고선 땅-
머리희도록 한생을 밟았어도
아, 이 한줌의 흙에
조국을 영원히 꽃피워갈
내 생의 첫걸음이 놓여있구나

나의 한걸음 한걸음
수령님에 대한 충성으로
변함없이 활짝 피라고
투사여, 그대는 오늘도 지켜보며
받들어주고있구나
오, 그 한줌흙으로!

눈내리는 귀틀집창가에

김재윤

답사숙영소 귀틀집창가에

함박눈 소리없이 내리네

이 밤 나어린 답사대원쳐너

책상우에 모자 벗어놓고

생각에 잠겨 편지를 쓰네

답사의 나날에

가슴깊이 새겨둔 이야기

어찌 하나둘이라만

이 밤 이디에 보내는 편지인가

쓰고 또 쓰는 그 사연

어머니 계시는 락원동

불밝은 다층주택일가

아니면 떠나온 초소

그리운 동무들일가

가뜩히 적위대원복을 입은

단발머리 네 모습

백두밀영 귀틀집창가에 어리니

오, 문득 가슴에 안겨오는

어제날의 유격대녀전사의 모습...

정녕 이러한 밤이면

얼마나 그리움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았으랴

밀림속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눈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하지만 그 어디

소식 날리고 받아볼곳 하나 있었으랴

알길 없고

전할길조차 없는

떠나온 조국땅

추녀낮은 고향집

시련의 날에 빼앗기고 눈물속에 두고온

그 모든 그리움

눈물만으로는 다시

되찾을수 없었던 그 모든것

한마음 장군님 따라

혁명의 길에 펼쳐나섰던 녀전사

싸움에선 용감했어도

눈내리는 이러한 밤이면

가슴속 차고넘치는 그리움

참을길도 적어갈길도 없이

노래에 담아보지 않았더냐

아, 조국의 오늘 위해

이 기쁜 눈오는 날의 반가움과

실례이는 창가마다에 가닿을

오늘의 행복한 소식 위해

다시 총을 메고 떠나간

어제날 녀전사의 그 마음

이 창가에 어리었어

내 이리도 뜨거움에 넘쳐

너를 바라본다 처녀야

오, 피로써 찾아준 조국!

더없이 귀중한 그 이름-조국

온통 그 이름을

너의 모든 사랑의 주소로 안겨주었기에

네 가슴 이리도 기쁨에 차넘치고

네 하고싶은 이야기 그리도 많아

이 밤 네 쓰고 쓰는게 아니더냐

은혜로운 삶, 오늘의 이 행복에 다지는

뜨거운 맹세에 더하여

네 잊지 말고 또 쓰라

어제날 녀전사의 그 마음 따라

그처럼 귀중한 조국 받들어갈

너의 굳은 그 한마음도

너의 굳은 그 한마음도

당을 노래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변영과 룡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사람마다 나라의 주인된 영예를 안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이 땅의 가는곳마다 기계의 군단이 지심을 흔들고 오곡백과 물결쳐 만풍년의 노래 드높다. 무상치료의 고마운 혜택으로 무병장수의 웃음 넘치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으로 행복한 아이들의 물결 흘러흐른다.

진정 우리 나라는 인류가 그토록 꿈속에서 그려오던 공산주의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인민의 낙원이다.

오랜 세월 사대망국의 짙은 그늘아래 민족의 지혜와 슬기가 짓밟히고 일제의 압제밑에 가난과 폐허만이 남았던 이 나라 쓰라린 력사의 터전위에 창공높이 솟아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주체의 조선, 사회주의공업강국의 위력은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그것은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전백승하는 주체형의 우리당을 창건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주신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이 력사적운동의 주인이 되어 혁명투쟁에 더 광범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에게 정치사상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로동계급의 독재체계를 발동하여 근로대중을 혁명위업수행으로

웁게 조직동원한다.

만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인민대중은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력량으로 혁명투쟁을 성과있게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이것은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고있는 엄연한 진리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새로운 혁명단계에 이르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전면에 나서고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그 내부적련계가 전례없이 복잡하여진 오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건설전반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확고히 보장되어야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데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웁게 형상하는것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웁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이 당의 유일적령도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당조직과 그의 지도를 받는 근로단체조직이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혁명조직의 한 성원으로 생활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혁명조직을 통하여 임무를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간다.

온 나라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실현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구체적으로 보장되고있는것,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양양이 일어나고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의 령도적역할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는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옹계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을 노래하는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오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지난날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조약돌처럼 버림을 받던 우리 인민에게 참된 삶을 되찾아주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었으며 우리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주고 혁명의 한길로 드팀없이 걸어나가도록 보살펴주는 어머니품이다.

당의 품에 안겨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되찾고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빛내여가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당을 노래할 때 그를 우리모두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라 부른다.

그러나 당에 대한 노래는 그것이 다만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는 자애로운 품으로만 불리워져서는 부족하다.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키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령도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다.

우리 인민이 혁명의 길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의 그 어느 하나도 당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또한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

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면서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모든 일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해나가고있다.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인민을 혁명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

우리는 혁명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며 고무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불패의 위력을 더욱 훌륭하게 노래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정당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의 유일적령도를 옹계 받드는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학작품이 인민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옹계 형상할뿐아니라 매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보의 사실처럼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해야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옹계 할수 있다.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하는것은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회적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중요한 사회적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주어져있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집중적으로 대변하고있으며 현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해야 사회주의현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포착하고 깊이있게 형상해낼수 있다.

우리 문학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옹계 형상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창조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물론 개별적인 당일군이 결코 당위원회를 대표할수 없으며 당조직은 오직 집체적지도원칙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당비서는 당위원회를 집행하는 의장과 같으며 해당단위에서 당의 결정지시를 집행할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일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당 당조직안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확립하는것은 그 당조직을 책임진 당비서의 역할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당비서가 당위원회의 집체적협기능을 옹계 발양시킬 때 그 당조직에서는 집체적지혜가 원만히 발휘될수 있고 당의 결정지시가 정확히 집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의 성격을 옹계 묘사하는것은 당조직의 활동을 보여주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주체적문제리론은 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말아나서는 정치일군은 주제를 푸는 주요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명백한 형상과제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정치일군은 사람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며 긍정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인물로 형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가 작품에 제시된 사건의 중심위치에 서서 그것을 당정책적건지에서 풀어나가는 인물로 묘사되어야 한다. 작품에 그려진 사건을 옹계 틀어쥐고나가지 못하고 새로 임명되었다거나 그 어떤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와 실패를 모르고있다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뛰어나는것과 같은 인물로 그려서는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창조할수 없다.

문학작품에 정책적인 대를 바로세우고 당일군이 등장인물들의 운명과 사건발전을 능숙하게 향도하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은 그의 전형적성격을 통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잘 형상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건발전의 중심위치에 서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징과 풍모를 옹계 전형화하는것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일군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격적특징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다.

당일군의 모든 사고와 활동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는가 하는 그 하나의 문제에 귀착되고있다. 그들이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는것도 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출발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일군의 성격형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정신세계를 잘 그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신 대중령도에 관한 주체의 사업방법을 그대로 체현한 당일군의 성격적풍모를 잘 그리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구체화한 완성된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체현한 당일군은 우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우며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하여 애쓴다.

당일군들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실정을 료해한 다음 옹바른 대책을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그를 풀기 위한 섬멸전을 벌리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의 체현자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가지고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인신작작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무슨 일이나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또한 원칙성과 로숙성, 조직성과 규률성이 겸비되어있을뿐아니라 혁명적동지애와 동지적의리가 강하며 군중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대하며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한 인간들이다.

물론 당일군의 성격도 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그린다고 하면서 사업에서 정력과 기백이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며 진취성이 약하고 돌아다니면서 혼신나하는 인간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당일군의 생동한 전형으로 될수 없다.

당일군은 일련의 개성적특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언제나 높은 정치적안목과 예리성을 가지고 일을 땀짜게 밀고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며 혁명

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을 소유한 전형적인 성격으로 그려져야 한다.

당일군의 이러한 전형이 옳게 창조되어야만 그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정도적역할이 정당하게 그려질수 있으며 긍정적 주인공들의 높은 조직성과 혁명성이 조직선을 통하여 옳게 묘사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도적역할과 전투력을 옳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일군들의 성격형상과 함께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들인 당적인간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옳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주인공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당의 전투력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그들의 성격에서 높은 혁명적조직관념을 옳게 형상하는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과 운명은 모두 당조직과 련계되어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진실로 보람있게 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당의 정도를 받아야 자기의 목적과 리상을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조직을 떠나서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의 지도와 통제밑에 생활하려는 혁명적조직관념, 이것은 자신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가의 끝없는 보람과 영예를 안겨준 어머니당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영원히 당을 따라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주체형의 새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이다.

우리 문학이 혁명적조직관념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새 인간전형을 진실하게 형상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자기의 모든 사업과 생활, 일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에 보고하고 당의 지도를 받는것을 생활의 1차적요구로 여기고있는 그들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옳게 묘사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주체형의 새 인간들에게서 발현되고있는 이러한 성격적품모를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이 혁명조직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의탁하여 생활하는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정당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적조직관념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아무리 바쁜 일이 제기되어도 학습과 회의를 비롯한 모든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데서도 나타난다.

조직관념이 바로 선 사람들은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조직생활의 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데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혁명적조직관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순간의 지체와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확고한 혁명적원칙을 지닌데서 표현된다.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는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지침이다. 따라서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응당한 혁명적본분이며 혁명적조직관념의 확립여하를 평가하는 의도로 되고있다.

우리는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성격특징인 그들의 높은 혁명적조직관념을 옳게 보여줌으로써 바로 그러한 성원들로 뭉쳐져있는 우리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위력과 당의 전투력의 불패성을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정도적역할을 문학작품에 옳게 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작가들이 우선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적인 창작지도체제와 창작지도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이 구현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창작지도체제와 창작지도원칙은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조직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하고 창작가들을 당의 믿음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켜 우리 문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으며 당의 정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우리 현실의 새로운 특징을 제때에 정확히 반영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과 당의 력사를 언제나 깊이 있게 학습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작가들이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영광스러운 당의 가수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불패의 위력과 불멸의 업적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정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옳게 형상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에 대한 생각

박원식

하루에도 그 몇번
날마다 누려가는
은혜에 젖어 고마움에 젖어
내 생각하여라
당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가슴은
말못할 승엄함에 차오르고
심장은 높이 고동치고

그러면
벽차오르는 걱정애 싸여
마음의 나래를 가다듬고
소리없이 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

아, 부르기만 해도
내 삶의 소중한
가슴깊이 간직케 하는
영광스러운 당이여!

생각할수 있으랴
어머니품을 떠나 살순 있어도
당의 품을 떠나 순간의 삶이나마
내 바랄수 있으랴

날아준 어머니조차
줄수 없는
소중한 꿈과 념원
먼 미래까지를
안겨주고 꽃피워주는 품

당의 그 품에 안겨살기에
내 날마다 푸른 하늘을 이고
락원의 거리우에
빛나는 삶의 자욱을 찍으며

궁지높이 걸어가는것 아닌가
당-그것이
우리모두의 영생하는 품이기에
열여덟 꽃나이 전사는
그렇게도 귀중한 청춘을 바치여
비발치는 불비속을 헤쳐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갔고

한생을 땅을 가꾸며 땅처럼 말없이
충성을 다한 로관리위원장도
생을 마치는 그 순간
당을 위해 못다한 일을 두고
그처럼 뜨겁게
마지막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당-그것은
그리도 크나큰 어머니품이기에
머리에 흰서리 내린 학자도
그앞에 서면
어머니품에서 걸음마 떼는
아기의 마음이 되고

아직은 나이 어려 수집은 처녀들도
어머니앞에서조차 말 못한
가슴속에 묻어온 사연을 안고
먼저 당을 찾아가더라

당은 정녕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삶의 요람,
당은 우리모두
희망에 넘쳐 신념에 넘쳐
바라보는 저 푸른 하늘같이 넓은 품

아,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당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눈동자!

당이 있어

우리의 심장 이리도 높이 뛰고

우리의 눈빛 그리도 빛나는게 아닌가

언제나 그 언제나 당의 부름에

우리 걸음 맞추며

어디서나 당의 손길아래서

우리의 리상 꽃피워가노라

우리 가는 앞길에

엄혹한 시련이 막아설 때에도

먼저 당을 생각하노라

그러면 청춘의 힘은 용솟고

지혜는 나래쳐오르노라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당에 모두 맡겼기에

영광스러운 당이여!

주체의 위업 펼쳐가는

그 길우에

두려울것 그 무엇이라!

날마다 시각마다

한가슴에 받아안은

자랑찬 믿음을 안고

내 생각하여라

당이여! 그대 위해

이 한목숨 기꺼이 바쳐감은

그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가!

그 얼마나 크나큰 행복인가!

언제나 당의 기치따라

서진명

우리 가는

혁명의 언덕에

승엄히 펄럭이며

노을을 펼치는 기발

어려움앞에 우리 서면

그 어려움 잊게 하고

급힐줄 모르는 힘

나래치는 용맹으로

가슴 높뛰게 하는 기발

우러르면

공지와 영예로 이 가슴 부풀고

따라서면

천만의 대오속에 나를 세워주는

오, 광휘로운 당의 기치여!

온 사회를 주체의 한빛으로 물들이며

우리앞에 휘날리는 당의 기치

이 기치 나뭇기는곳에

장거리벨트콘베아는 바다로 뻗어나가고

솟아나는 철기둥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우에

금나락이 물결쳐 설레인다

이 기치아래

우리 홀린 땀

락원거리 창문가에

행복의 웃음으로 피어나고

고마운 당의 품

바다가 야영지에서 꿈을 키우며

미래가 자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대를 이어 빛내가는 우리 당

그 기발 우러러

우리의 눈빛은 그리도 밝고

그 기발밀에

우리의 심장 강철로 버려져라

산악도 격랑도
우리 앞길 막을수 없어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하나의 걸음으로
혁명하며 투쟁하는
조선로동당!

날마다 우리 걷는
그 작은 발자국도
위훈의 자국으로 새겨주며
세월을 넘어 빛내주는
백전백승의 기치여!

그 기치 언제나 앞에 있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셔온
전위투사들의 가슴에 품던

충성의 피방울로 이 가슴은 뛰고
만민의 지향과 념원을
이 땅에 선참으로 꽃피워가는
전사의 영광 끝이 없거니

앞길에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당의 기치아래 살리라
심장을 바쳐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따르며
우리는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로
당중앙의 향도의 손길을 따라
힘차게 펴력이는 당의 지치여
영광스러운 이 기치아래
공산주의 찬란한 노을로
온 누리를 덮으며...

정론

위대한 주체의 당

리상복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우 조선로동당!

우리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긍지높이 부른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주체형의 영
광스러운 당, 이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
시고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의 전투적기치이며 우
리 인민을 이끌어 풍랑사나운 폭풍우를 헤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씨앗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
체의 자양분을 섭취하여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이 걸어온 역사는 주체의
해불높이 전인미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온 위
훈의 역사이며 보통이면 세기를 두고 걸어야 할
길을 단숨에 기적적으로 달려온 창조의 역사이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착취와 압박
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
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
다.》

우리 인민이 그 언제 오늘과 같이 가장 선진적
인 사회제도와 나라의 면모를 일신한 위력한 경
제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져본적이 있었던가.

락원의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지난날 힘겹게 풀무질을 하여 고작해서 호미나
두들겨만들던 야장간박에 없던 이 땅우에 오늘은
하늘을 떠받들고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섰고 사
흘만 비가 오지 않아도 거부기잔등처럼 터갈라지
던 논밭들에 생명수 흘러넘치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해나간다.

우리가 쓰는 자그마한 생활필수품으로부터 어

마어마한 대형기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것으로 들어차있는 나라, 만사람이 무병장수하고 마음껏 배우며 혁명하는 궁지를 안고 하늘땅을 찡찡 울리며 속도전의 나래돋친 천리마로 내달려가는 나라-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로동당시대, 오늘의 조선이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이 위대한 세기적변혁, 바로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만이 이룩할수 있었다.

그 누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것과 같은 위대한 전변에 대하여 꿈에선들 생각이나 해본적이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틀박힌 공식이나 이미 만들어진 경험만으로는 갈수 없는 길을 우리 인민은 것처럼 짧은 기간에 편향없이 달려올수 있었다.

당은 우리 인민의 념원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높이로 이끌어올려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그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했고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연합세력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다.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악의에 차 짓어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전후 불과 3년도 못걸려 폐허우에서 도시와 공장들을 일떠세울수 있는것도,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도, 인간개조, 자연개조의 거창한 사업을 빛나게 이룩한것도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세기적빈궁과 무권리, 몽매속에서 헤매이던 인민들을 행복한 락원우에 세워주어 이 세상 온갖 권리와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었다.

하기에 인민은 우리 당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기쁨의 상징으로 노래한다.

곤난할 때일수록 당을 믿어 승리의 신심과 힘을 얻었고 투쟁에서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끝없는 영광을 지닌 인민, 어머니당의 품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마음놓고 의탁한 인민이었다.

당은 인민의 의지였고 념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평탄한것이

아니었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든 강선이 로동계급은 공칭능력 6만톤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 세인을 놀래웠고 천리마진군의 첫 자욱을 내디뎠다.

종파분자들이 당정책을 시비하며 이러쿵저러쿵 해도 우리는 수령님만을 믿고 지지한다고 한 태성의 수수한 농촌할머니...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는 걸음걸음 간고한 투쟁의 력사였고 새 창조와 위훈의 력사였다. 이 위대한 투쟁속에서 당과 인민은 혼연일체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을 돌이켜보는것은 한갓 감회깊은 회상으로 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칠 오늘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깊이 느끼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꽃피우고 대를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우리의 가슴마다에 깊이 아로새기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부르고있다.

어머니당! 이 뜻깊은 말속에는 천만 어머니의 사랑을 합친것보다도 더 크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모두를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1963년이 저물던 어느날 평안남도 대동군에서도 산골인 덕촌리를 현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좋은 내복은 입었으나 외투를 입지 못하고있는 어린이들이 몇명 있는것을 보시고 몹시도 가슴아파하시였다.

현지도도를 끝내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곧 당중앙위원회 부장회의를 여시고 농촌을 더욱 추켜세울 일련의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해 겨울안으로 전국의 농촌어린이들에게 겨울옷과 털외투, 털모자, 목도리, 지어 폭신한 장갑까지 일제히 공급하도록 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아직도 우리는 모든것이 넉넉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어머니당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이처럼 애쓴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속명론으로 인민

들의 반향을 무마해버리던 시대는 말할것도 없고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신발과 양말에서부터 외투와 목도리에 이르기까지 공급해준 그러한 기록이 있었던가.

해마다 철따라 아이들에게 색색 고운 옷을 공급해주는 나라,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행복과 기쁨만을 알고사는 인민...

이 땅에서는 하나의 나무와 한줄기의 내물도 어머니당의 품속에 있음으로 하여 생명을 가지고 빛을 내고 인민을 위하여 이바지한다.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도 한이랑의 발고랑이라도 더 찾아내어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험한 길, 굶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의 비탈밭과 오솔길까지도 밟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행복과 사랑이란 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랑들이 써온 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의 그속에 담고있는것과 같은 그러한 큰뜻을 담고 이 말들이 써여진적은 없었다.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자신의 고귀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이 하라는대로 하면 틀림이 없으며 당이 이끄는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깨달은 그러한 인민이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 자신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언제나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가르침이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고야마는것이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 바로 이것이 일시적후퇴의 간고한 시기에도 찢기고 처진 신발로 수천리 사선을 헤치고 당을 따라 북으로 걸음을 재촉하게 하였고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대진군의 장엄한 발구름을 높이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최고뇌수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는 우리 당의 지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은 우리 당의 품,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에 영원한 생을 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모든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당, 인민대중과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하는 당, 전당에 정연한 당생활지도체계가 확립되고 당생활이 정규화, 규범화되고있는 당, 이것이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감당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투쟁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풍모이다.

실로 우리 당은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잠재력을 가진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우리 당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혁명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그 어떤 힘도 멈춰세울수 없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우리 인민은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파감하게 점령해나간다.

당의 기치따라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이 한길에서 조국통일의 려명은 밝아올것이며 남북겨레가 얼싸안고 통일의 광장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올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것처럼 우러러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이 만리에 닿아 끝없는 오늘에 우리 인민이 부르는 이 만세의 환호성은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모두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충성의 노래이다.

영광과 행복, 긍지로 노래한다, 위대한 주체의 당이여!

가고 가는 길에서

최종현

스강발전소언제준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가 있는 그 다음날 해질무렵이었다.

나는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곧 떠나게 되는 친구와 함께 웅장하게 일떠선 언제우를 거닐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대학을 졸업한후 7 년만에 만나보는 우리들이다.

친구의 모습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한창 피는 처녀의 얼굴처럼 오동통하기만 하던 친구의 얼굴은 흑한에 트고 장마에 씻기고 폭양에 타번져 마치 청동으로 부어놓은 조각상같았다. 키도 그때보다 켜중해보이고... 학생시절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고도 축포같다고 경탄하던 친구는 하늘을 썰듯 들쭉날쭉한 산발사이에 소리치며 흐르던 강을 쭉 가르고 뿌리박은 언체의 위용을 두고도 한마디 말도 없다. 7 년동안에 언체를 두개씩이나 쌓은 그에게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은 궁지와 자랑이 어찌 한두가지지만이라!

그러나 친구는 자기에게는 아직 그럴만한 궁지와 자랑이 없다는것이다.

어찌다 비자루를 들고 대학합숙 뒤풓락을 쓸고도 으시대던 친구가 이렇게 겸손해질줄이야!...

아, 생활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모시키는것인가. 문득 나의 눈앞에는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자진하여 서두수로 내려가던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건설연구소에 갈것을 희망하던 그가 갑자기 서두수로 내려간것은 소식도 없이 대학에 나타난 어머니의 설교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은 그때 친구에 대해,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 말이 많았다. 주대가 없는 친구라느니, 아들의 전도를 망쳐놓은 어머니라느니 하면서... 그런데 친구는 어엿한 언제건설자로, 《언제공크리트 타입시 수화열방지법》을 연구하여 학계에 일대파문을 던진 과학자로 자라났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들큰한 산열매냄새를 풍기며 불어왔다.

《어머님은 이젠 펍 늙으셨겠군?》

나는 친구에게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아직 정정하셔. 고압뿔프운전공으로 일하고있는데 래일아침 <척후대>로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난다네.》

친구는 저오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아니, 어머니가?!》

나는 저도모르게 문득 걸음을 멈췄다. 팔팔한

청장년들도 힘겨워하는 척후대에 어머니도 망라되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인가?》

《정말이네, 어머니가 자진했네... 자네도 우리 어머니 성격을 잘 알지 않나, 한번 먹은 마음은 굽히지 않는다는걸, 여기 좀 앉자구.》하고 친구는 쪼크베잉주행로침목우에 자리를 잡았다.

《내 오늘 자네앞에서 어머니때문에 속썩이던 일을 좀 이야기하겠네.》

친구는 아슬하게 내려다보이는 언체에 차오르며 남실거리는 물결을 굽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서두수건설을 끝내고 여기로 올 때였네, 서두수건설이 거의 끝나갈무렵에 시공과장으로 임명된 나는 그때에도 <척후대>를 책임지고 여기로 떠나오게 됐네.

나는 <척후대>를 조직하는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렸네.

<척후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는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런데다 처음맡은 임무이니 척후대조직에 신경을 쓰게 되더군. 나는 모든 고난과 위험을 이겨낼수 있는 팔팔한 청장년들로 척후대를 조직해서 참모회의에 제기했지, 명단은 제기된대로 비준되었네.

그날 저녁에 나는 어머니에게 <척후대>를 책임지고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게 됐는데 배낭을 꾸려달라고 말씀드렸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런 놀라운 기색도 없더군, 며칠 출장 갔다오겠다고 말씀드릴 때 짓군하던 평범한 표정이더군.

<배낭은 다 꾸려났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챙기며 말씀하더군.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벌써 배낭이 준비된 일이 반갑기도 했지만 참모회의에서 방금 토의된 문제를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가 하는 의심이 들어 물었네.

<건설자들이란 어느때쯤이면 <척후대>가 조직되어 떠나고 <부대>가 이동하리라는것을 말없이도 건설장의 형편을 보구 다 안단다.》

하며 어머니는 따뜻한 눈길로 나를 넋지시 바라보더군, 아들이 서두수에 내려온지 엇그제같은데 벌써 <척후대>를 책임지게끔 자라났는가 하는 대견한 눈길이었네.

나는 방구석에 놓인 배낭을 바라보았네, 배낭

은 두개씩이나 꾸러져있더군. 하나는 신임병사의 배낭같이 새 배낭이고 하나는 불비를 맞으며 먼 길을 달려온 로병사의 배낭같이 색이 바랜 배낭이였네.

<어머니, 웬 배낭을 두개씩이나 꾸러놨어요?>

<하나는 내 배낭이다.>

나는 의아한 눈길로 어머니를 뻔히 바라보았네.

<왜 그렇게 놀라니? 우리가 여기 서두수로 이동했을 때에도 난 <척후대>에 망라되었었다.>

어머니는 자랑하듯 말하더군.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나.

나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가려면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보지 못한 심심산골로 길을 뚫으며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다.>

어머니는 기어이 따라갈 잡도리였네.

참 딱했네.

박동무,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힘든 일에 내세우고 싶어할 자식이 어데 있겠나. 나 역시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독로강에서 발전설비를 이설하다가 미제공중비적들의 흉탄에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건설자대렬에 뛰어들어 귀밀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오도록 험한 산밭을 수없이 넘어온 어머니를 더는 그런 길에 내세우고 싶지 않았네. 그런데 어머니는 <척후대>에 망라되지도 않았는데 기어이 떠나야 한다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데 있겠나.

그러나 어머니는 떠나지 못했네. <척후대>명단이 그날밤으로 철도에 넘어가서 단체로 기차표를 물려줬지...》

《다행이었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숨이 훑 나왔다.

《정말 다행이었네. 하루만 더 늦게 기차표를 물려놔어도 어머니는 그날 우리와 함께 떠났을거네.》

친구는 담배를 붙여물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척후대>가 여기 근발전소건설장으로 들어오는 저기 저 길을 뚫기 시작한지 열흘도 못된 어느날이었네.》

하고 친구는 손을 들어 호수로 변해가는 강상류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칼로 쪼개서 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놓은듯 산밭은 명마루까지 절벽인데 그 밑으로 길이 활등처럼 휘우듬히 뻗어나갔다. 길은 벌써 물에 잠겨 토막토막 끊어져 보였다.

《그날, 물에 잠길 산림의 채벌문제를 토의하려

도에 올라갔다내려오던 나는 운전사에게 길뚫이 현장부터 나가보라고 했네. 그새 길이 얼마나 뚫아졌는지 궁금해서 견딜수가 있어야지.

마가울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울씨년스러운 날이였네.

길뚫이하던 동무들은 바위밑에 들어서서 비를 굶고있는데 한 녀인만이 허리를 굽히고 삽을 머리로 들었다놓으며 길바닥을 다지고있더군. 운전사가 경적을 울려서야 그 녀인은 고개를 돌리며 길옆에 물러서더군. 어머니였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렸네.

<어머니!>

반가와서가 아니였네. 기어이 <척후대>를 따라온 어머니는 원망하는 웨침이였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래동안 헤여졌다가 만나는데처럼 반가와하더군.

<태수냐!... 산세가 험해서 길뚫이가 조련치 않겠다...>

나는 기가 딱 막혔네. 그렇다구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어머니를 나무람할수도 없구...나는 안타까운 눈길로 어머니를 뻔히 바라보기만했네.

우리는 한달반동안에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고 여기로 들어왔네.

지금은 여기가 변화한 도시처럼 아파트들이 일어서고 밤이면 불빛이 대낮같지만 그때는 들리는 것은 여울물소리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였네.

우리들은 강가에 돌가마를 걸었네.

밥맛을 알려거든 돌가마밥을 먹어보라는 말을 들은적 있나? ... 돌가마밥 한두끼 먹어보고나서 생각해낸 허풍선이들의 명구지, 돌가마밥이 흰밥인들 아늑한 방에서 두리반에 반쳐먹는 강낭밥보다 맛이 있을리 없지. 그때는 <척후대>가 부대의 살림터를 꾸리는 일을 하였네.

우리 <척후대>는 새 건설장에 도착하자 강가에 돌가마부터 걸었네.

전기란 현대문명의 원천이 아닌가. 그런데 그 원천을 마련해가는 우리 건설자들의 개발지에서의 첫 생활은 현대문명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생활이네. 새초를 베여다 마다라스를 만들어 깔고 배낭에 띠고다니던 모포를 덮고 새우잠을 자네. 여름철이면 천막생활도 해볼만하지. 그러나 <척후대>는 여름철과는 생리별을 한듯 마가울철에만 다니게 되네.

자고나면 강기슭에는 살얼음이 앉네.

새우잠을 자고나서 살얼음을 까고 세수하기는 정말 뼈근하더군.

어머니도 <척후대>를 따라온 이상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지. 처녀들과 같이 천막에서 자고

깨고, 식사시간이면 돌가마앞에 젊은이들 틈에 끼여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했네.

좀 생각해보라구. 좋은 집을 뒤두고 <척후대>를 따라와서 천막생활을 하고있는 어머니 정상을 끼마다 목격하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겠나?!

나는 어머니의 그 정상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네. 어머니는 <부대>로 되돌아보내든가 내가 가든가 해야지 손에 일이 걸리지 않더군.

어느날 점심참에 나는 날이 더 추워지기전에 어머니를 <부대>로 되돌려보내려고 어머니가 계시는 천막을 찾아갔네.

어머니는 계시지 않더군. 처녀들에게 어머니 행처를 물으니 점심식사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더군. 식사후 곧장 작업장으로 나가신것 같았네.

천막을 나선 나는 어머니가 일하는 주력건설장으로 걸음을 옮겼네.

그런데 강가 취사장쪽에서 누군가 <공연한짓입니다!>하고 역정을 부리는 웬침소리가 들려오더군.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네. 무슨 일때문인지 취사당번들이 돌가마두리에 빙 둘러서서 몸돌바를 몰라하더군.

나는 웬일인가 하여 취사장쪽으로 걸음을 돌렸네. 주력건설장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어머니가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 맨발바람으로 진흙을 이기고있더군.

<무슨 일이요?>

나는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네.

취사당번들은 뜻밖에 취사장에 나타난 나를 바라만볼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네. 어머니도 못마땅한 눈길로 나를 힐끗 쳐다볼뿐 묵묵히 진흙을 이기었네.

<어머니! 인차 새로 지은 식당으로 이사가겠는데 가마는 다시 걸어 뒀하겠어요?!>

하고 키가 성큼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사정하듯 말하더군.

그러자 어머니는 그 청년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하더군.

<하루 살다 떠날곳이라도 백년을 살곳처럼 꾸리구 사는게 우리 건설자들이야!>

어머니의 가벼운 힐책에 말문이 막혀버린 키가 성큼한 청년은 말 좀 해달라는듯 나를 바라보더군.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씀도 드릴수 없었네. 여기로 들어와서 강가에 돌가마를 걸 때 어머니가 하던 말이 되새겨지면서 얼굴을 들수 없었네.

<태수야, 우리가 강가에 천렵나온 사람도 아닌

데 돌가마를 걸어서야 일이 되겠니?!>

나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네. 식당을 지을 때까지 몇끼 끓여먹으면 되겠는데 품을 들여 가마를 걸 필요가 있겠는가고 생각했지.

후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는 내게 말해서 안되니 후방생활을 책임진 동무를 찾아가서 돌가마를 거는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었더군. 그래서도 안되니까 어머니는 그날 자신이 직접 가마를 걸려고 나선거네.

나는 어머니의 일을 막지 못했네. 취사당번들은 울며 겨자먹듯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나섰네.

나는 어머니에게 <부대>로 되돌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네. 어쩐지 그러는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

나는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 어머니가 이기고 있는 진흙무지에 뛰어들었네.

나는 묵묵히 진흙을 이겼네. 웃음이 떠날줄 모르던 돌가마식당은 조용해졌네.

려객선이 봉- 고동을 울리며 지나가더군. 거기에는 어디 견학갔다오는지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가득 탔더군. 갑판에 펼쳐나선 소년단원들은 우리들을 향해 손을 저으며 환성을 올리더군.

돌가마를 다시 걸던 우리들은 소년단원들에게 진흙이 묻은 손을 들어 답례를 보냈네.

어머니도 진흙을 이기다 말고 손을 들어보이며 웃음을 짓더군.

<너의 아버지는 저 애들 나이때부터 수풍수전 공사장에서 자갈을 실은 배를 끌고다녔다. 자갈을 부려놓고 올라오다가 여울목에서는 포승으로 결박당한 죄인처럼 뜻을 올렸던 바줄을 가슴에 칭칭 감고 끌고다녔단다...>

모멸과 천대속에 흘러간 어린시절을 더듬으며 멀어져가는 려객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에는 서글픈 빛이 어리더군...

...우리들은 어머니가 건 가마에서 열댓끼 끓여먹고 새로 지은 식당에 옮겨앉았네. 어머니가 걸었던 가마자리에는 연기에 그슬린 거뭇거뭇한 돌맹이들만 남았네.

그러나 어머니가 뿌리를 박았던 그 생활터전은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좀체로 지워지지 않더군.

우리 <척후대>는 합숙과 살림집, 상점과 편의시설... 건설자들이 도착하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는 생활터전을 두달 남짓한 기간에 마련해놓았네.

그러자 기본<부대>가 이동해오기 시작하더군.

오는 차례로 집들이하고... 물론 우리도 집을 잡았지. 단칸집이였네. 그러나 어머니는 몇해 살

다가 떠날 집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주며 살아갈 집처럼 널로 울바자를 두르고 살구나, 돌배나무도 떠다 옮겨버려. 바람벽과 울바자는 방금 회칠을 한 것처럼 늘 하얗네.

건설자들은 오자바람으로 가물막이공사에 달라붙었네. 다음해 5.1 절에 언제 첫 콘크리트타입을 해야 했으니 서둘러야 했지.

발전소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어번졌네. 언제건설의 모든 시공을 책임진 나는 정말 분주했네. 가물막이공사가 한창 고조에 오를 때 나는 시공부기장으로 임명되었네.

언제의 운명이 내 한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지더군. 눈앞에 보이는것은 언제뿐이였네. 공사장에서 벗어나면 교당을만한 거리에 있는 집에도 들릴 째미 없었네. 현장에서 먹고는 불이군했지. 어머니와 나는 한밥상에 마주앉아보기가 힘들었네.

그렇다고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없었네. 뿔프운전공인 어머니도 배수지공사에 여념이 없었지.

나는 이따금 현장에서 어머니를 만나곤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쁘게로구나 하는 말은 한마디 없이 <태수야, 선별장 채경사가 너무 급한것 같더라.>

<태수야, 혼합장 뼀을 알박한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견터널것 같지 않구나.>

이렇게 공사와 관련한 말만 하는것이였네.

나는 어머니가 일깨워주던테를 가보았지. 사실이었네. 사소한 문제인것 같았지만 공사에 큰 지장을 줄수 있는 문제였네.

나는 그때마다 자신을 질책했네. 작업장이 다른 어머니는 지나가는 걸음에도 그런 미미한 구석을 발견해내는데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는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

뿔프장위치를 선정할 때 일이였네.

근발전소건설을 위한 총설계도에는 뿔프장을 언제상류에 놓기로 되어있었네.

그런데 뿔프장위치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네. 언제가 높아지면 강물이 차오르기때문에 수위에 따라 뿔프장을 점사 높여놓아야 하겠는데 보다싶이 언제 좌우안은 깎아지른듯한 절벽이 아닌가! 산새들도 무서워서 내리지 않는 저런 절벽에 뿔프장을 어떻게 옮겨놓겠나? 그래서 뿔프장을 언제하류 혼합공장밑에 놓기로 했지.

뿔프장위치를 변경시켜놓고보니 밤낮이 따로 없이 배수지건설장에 나가있는 어머니일이 안됐더군. 뿔프장을 언제하류로 옮겨놓으면 배수지도 옮겨야 할게 아닌가!

나는 아들의 불찰로 또다시 배수지를 건설해야

할 어머니는 찾아가서 일잡도리를 잘못된 자신을 사죄하고 뿔프장을 언제하류로 옮겨야겠다고 말씀드렸지.

<그럼 뿔프장이 혼합공장밑에 앉게 되겠구나?>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고있던 어머니는 생각깊은 눈길로 강물을 바라보면서 혼자말처럼 묻더군.

<네.>

<혼합공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처리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나는 얼른 대답을 못했네. 뿔프장위치문제를 토의할 때 그러 의견들이 없었던것은 아니었지만 대책은 세우지 못했지.

나는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아도 될 일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들어

<차차 대책이 서겠지요.>

하고 나무람조로 대답했네.

<그런 대책도 없이 뿔프장을 옮겨놓기로 했던 말이나?>

어머니 어성은 높더군.

<그럼 어찌했어요. 뿔프장을 물속에 처박아두겠어요?! ...아무래도 옮겨야 할텐데...>

<왜 뿔프장을 물속에 처박아둘것만 생각하느냐? ...물위에 띄워놓을수도 있지 않느냐?!>

<네?! ... 어떻게요? ... 어머니, 이자 하신 말씀 다시 해보세요!>

나는 어머니앞으로 성큼 다가섰네.

<어머니! ...어서요!>

이윽도록 아들을 지켜보고있던 어머니는

<배를 큼직하게 무어서 배위에 뿔프장을 앉히고 물위에 띄워놓으면 될게 아니냐!>

하고 그러면 언제가 높아지고 물이 차올라도 뿔프장은 배에 실려 물위에 둥둥 떠있을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더군.

나는 환성을 올렸네.》

친구는 그때의 기쁨이 다시 가슴에 안겨오는지 문득 이야기를 끊고 히죽히 웃었다.

《참 기발한 착상이군! 어머니 머리가 비상하군!》

나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자 친구는 웃음을 거두면서 던지시 나를 바라보았네.

《해방후에야 문맹을 퇴치하구 성인학교에서 구구를 배운 어머니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머니가 그런 안을 내놓았을 때 나도 자네처럼 어머니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배운것이 있어야 비상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닌가... 자네 생각해 보라구.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대학에서 수재라

고 불리우던 사람도 어머니처럼 그런 생각을 못하고 뿔프장위치를 변경시키기로 하지 않았는가! ...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비상한 생각을 하실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았네...

우리는 배를 큼직하게 못고 그 우에 뿔프장을 앉히고 물위에 띄웠네. 난데없이 물속에서 집 한 채가 우뚝 솟아 오른것 같은게 불만하더군. 어머니가 그 뿔프장을 책임졌네.

그런데 낚시군들이 자꾸만 배에 올라 어머니는 큰 골치거리였네.

<아니, 입자네들은 쏘가리 몇마리와 언제를 바꿀셈인가?!

<어머니, 배삐를 푼푼히 드립지요.>

낚시군들의 익살이네.

<내가 머 <선주>라구 배삐를 받겠나?! 썩 물러가게!>

그러나 배우에는 드문히 낚시군들이 앉아있곤 했네.》

친구는 이야기에 지친듯 잠간 말을 끊었다.

우리들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이윽고 친구는 이야기를 계속했네.

《아들은 한갑나이가 돼도 어머니앞에서는 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군... 뿔프장을 물위에 띄워놓은후에도 나는 어머니에게서 일개움을 받는 일이 드문 했네.

첫 콩크리트타입일이었네. 그날은 어린이명절인 6.1 절이었지. 5.1 절에 하기로 되었던 언제 첫 콩크리트타입이 예견하지도 않았던 봄장마때문에 한달씩이나 늦어졌네. 피할수 없는 자연의 횡포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나는 시공을 책임진 자신의 불찰로 공사가 늦어진것만 같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심정이었네.

나는 봄장마로 하여 빼앗긴 날자를 콩크리트타입에서 보충하려고 타입속도를 기존보다 두배로 높일수 있는 <언제콩크리트타입시 수화열방지법>에 대한 연구를 다그쳤네.

6.1 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건설장은 더욱 들끓어번졌네. 치열한 격전장을 방불케 했네. 6.1 절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암반 굴착은 시작에 불과하지... 정말 야단났더군. 꼬마들은 자기네 명절에 첫 타입을 한다고 좋아서 짹자꿍이지, 너뎡에서는 꽃다발을 만들지, 중앙과

도에서 촬영기와 록음기를 둘러맨 기자들이 쓸 어내려오지... 급해나더군, 제일 마음급하게 만드는데는 꼬마들이었네. 꼬마들은 만나면 자기네 명절에 첫 타입을 꼭 하는가고 따지는데 어쩐지 그들의 따짐이 건설장에 내려와있는 간부들의 따짐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더군.

드디어 마음을 조이던 언제 첫타입날, 6.1 절이 왔네. 밤중에 난데없이 삼대같은 소낙비가 쏟아졌지만 우리들은 잠시도 일손을 멈추지 않고 암반청소를 말끔히 끝냈네.

날이 밝자 하늘은 언제 소나기가 쏟아졌던가싶게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였더군, 이파리에 대롱대롱 맺힌 이슬은 아침해살에 보석처럼 빛을 뿌렸고 밤사이 더욱 활짝 핀 진달래는 바위언저리를 붉게 물들여놓았더군. 하늘도 산도 언제 첫타입을 축하하여주는상싶었네.

아침부터 건설장은 언제 첫타입을 보려고 달려온 사람들로 흥성거렸네. 손에 꽃다발을 든 꼬마들이 환성을 울리고 밀려오고 방송차가 노래를 울리고... 건설장은 삽시에 꽃바다로 변했네.

나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지령실로 올라갔네. 지령실은 온 건설장이 한눈에 안겨오는 저 산중턱에 있었네.

사면벽에 판유리창문을 단 지령실에는 임의의 시각에 건설장 그 어디나 전화를 할수 있게 지령교환대가 있었네.

내가 지령실에 들어서자 지령교환대앞에 앉아있던 지령장은 말없이 옆자리에 물러앉더군. 첫타입이니 시공부기사장이 공사를 지휘하라는 뜻이였네.

관례로 첫타입은 시공을 책임진 시공부기사장이 지휘하게 되어있는지라 나는 별소리없이 지령교환대앞에 앉았네. 시간이 되면 전화로 <타입시작!>하고 구령만 주면 될 일인데 가슴속에서는 계속 방망이질하더군.

나는 송수화기를 들었네. 다시한번 타입준비에 빈구석들이 없는가를 알압기 위해서였네.

<혼합공장!>

나는 흥분을 억제하려고 일부러 조용한 목소리로 찾았네.

<혼합물이 다 계량돼있소?>

어서 타입구령만 달라는거네.

<짚크레잉! ...<해병>...동해바다가 보이는가 하구 헛눈을 팔고있는게 아니요?>

해병출신 짚크레잉은전공은 헛눈을 팔다니, 몰타를 실은 가소린카만 기다리구있다는거네.

건설장은 모든곳에서 타입구령을 기다리고있더군, 전장을 살피며 돌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 병사들처럼.

나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담배를 붙여물었네.

타입시간까지 아직 반시간은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지령대가 따르릉 울리더군.

그 순간 나는 숨이 꺾 막히는것 같았네. 뜻밖에 사고가 발생되거나 타입준비에 미진한것들이 있으면 지령실에 즉시 보고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첫타임을 몇분 앞두고 설마 그런 전화가 있으라 하고 마음을 꼭 놓고있던 나였네.

나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떨려 얼른 송수화기를 들지 못했네.

지령교환대는 큰일났다고 급하게 굴더군.

나는 눈을 꼭 감고 송수화기를 들었네. 혼합공장에서 걸어온 전화였네.

<뭐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구?!>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

나는 뿔프장을 불렀네. 전화를 받지 않더군. 가슴속에서 불이 일었네.

나는 찢크레잉운전공에게 물우에 띄워놓은 뿔프장이 보이는가고 물어보았네.

찢크레잉운전공은 살펴봐야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는거네.

<물에 잠긴게로구나...>

앞이 캄캄해지더군. 지령실을 뛰쳐나오긴 했으나 걸음이 되지 않더군.

<뿔프장! ...뿔프장!>

허둥지둥 강기슭을 따라올라가며 웨쳐보았으나 들리는것은 출렁이는 강물소리뿐이었네.

(빠졌구나!)

나는 집채같은 뿔프장을 한입에 삼키고서도 짐짓 시침을 떼며 유유히 흐르는 강을 향해 목메인 소리로 웨쳤네.

<뿔프장은 어디 갔소?!>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것 같았네.

그런데 여울목 개버들숲속에서 <왜 그래요?> 하는 처녀의 목소리가 울려오더군.

어머니와 함께 한교대에서 일하는 뿔프운전공 처녀의 목소리였네.

개버들숲을 마주 헤치며 강역 모래불에 나선 나는 그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네. 물에 빠진줄로만 알았던 뿔프장은 여전히 배우에 실려 강기슭에 나와있었는데 빨간 머리수건을 쓴 뿔프운전공처녀는 모래불에 판 우물같은 구멍이 옆에서 바줄을 당기고있더군.

나는 처녀결로 다가갔네. 집수구를 파고있더군. 언제부터 파기 시작했는지 살림집 방만한 넓이에 깊이는 내 키 두배는 잘 되겠더군. 벽이 무너져내리지 않게 휘틀을 대면서 내려간 집수구밑에서는 어머니가 드레박처럼 바줄에 달아내려보낸 물초롱에 모래를 퍼담고있었네.

<뭣들 하오?>

집수구가 무너져내릴듯한 나의 웨침소리에 처녀는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집수구밑에서는 독축이 불갈더군.

<어서 당겨라!>

<어머니, 시공부기사장동지가 오셨어요.>하는

처녀의 말에 어머니는 삼을 놓고 사닥다리를 짊으며 올라왔네.

<태수야.>

어머니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훔치며 불안과 수심이 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군. 바지가랭이는 걷어올리긴 했지만 적삼까지 물에 폭젖어있어 보기 민망스러웠네.

자네는 그런 어머니에게 수고하신다는 인사 한다디 없이 화부터 냈다면 아들로서 어떻게 그런 불순한 행동을 할수 있겠느냐고 할테지... 그러나 나는 버럭 성부터 냈네. 전국이 관심사로 되어있는 언제 첫타임행사를 망쳐놓았는데 자네면 안그러겠나?!

<혼합공장에서는 물을 기다리고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요?!>

뿔프장을 책임진, 언제공사의 <생명수>를 책임진 어머니에게 하는 추궁이었지만 나는 처녀에게는 총을 놓았네.

<흐린 강물을 보낼수 없어서 시작한 일이다.>

어머니 대답이네.

나는 강물을 바라보았네. 간밤에 내린 소낙비에 강물은 뿌옇게 흐렸더군.

<하루만 먼저 시작했어도 첫타입에 지장에 없었겠는데... 건설자라는게 하루 앞도 내다 못보고 일을 하다니...>

어머니는 자신을 질책하며 원망스럽게 강물을 바라보시더군.

<어머니, 저 강물이 어떻다구 공연히 집수구를 파면서 첫 타입에 지장을 주나요?!>

<너는 저 흐린 강물이 안보이느냐?>

나는 강물에 침병 뛰어들어 두손에 물을 떠보았다. 물은 뿌옇게 흐렸더군. 콩크리트혼합에서 점토성분이 들어있는 물은 상극이지. 그러나 콩크리트혼합시 물의 순도에는 허용프로라는게 있지 않는가. 물은 뿌옇게 흐리긴 했지만 허용프로를 따지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는 물이었네.

나는 두손에 다시 물을 한웅큼 떠가지고 나와 어머니에게 보였네.

<자, 보세요!>

<썩레질을 방금 한 논물도 손에 떠보면 맑아보인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담긴 물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바라보시더군. 짙어보시는 그 눈빛에 손바닥에 담긴 물이 펄펄 끓어번질것 같더군.

나는 손을 털며 처녀에게 지시했네.

<빨리 뿔프를 돌리시오!>

그러나 처녀는 어머니 안색만 살피더군. 어머니지시 없이는 뿔프를 돌릴수 없다는 태도였네.

나는 배에 뛰어올랐네. 뿔프실문을 열려는 손

간 뒤따라 배에 뛰어오른 어머니가 <안된다!>하며 문을 막아나서서더군.

<안된다! 저 흐린 강물로는 타임을 못한다!>

어머니 숨결은 거칠었네. 어머니는 뽕프장이 아니라 그 어떤 침습으로부터 웅장한 언제를 한 몸으로 막아나선 사람같은 그런 기상이었네.

<어머니, 이쯤 흐린 물은 콘크리트혼합에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하고 나는 콘크리트혼합시 물의 순도에는 허용프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네.

<난 허용프로를 모른다. 우리는 샘물같은 맑은 물로 언제를 쌓아왔다!>

불이 철철 흐르는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과연 이런 아들도 아들로 믿어왔던가 하는 서글픈 마음이 어렸더군.

나는 이때처럼 어머니의 무식을 원망해본적이 없었네. 어머니가 중학교졸업종도의 수준만 가졌어도 물의 순도쯤은 분간할수 있을게 아닌가!

<너의 아버지는 순도란 말은 몰랐지만 해방직후 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수풍언제를 훌륭하게 복구개건해놓고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높은 치하의 말씀을 받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연필 한자루 축내보지 못한 아버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이번에는 독로강에 우리 손으로 언제를 쌓아보라고 크나큰 믿음까지 안겨주셨다!>

하고 어머니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설비를 이설하다가 미제공중비적들의 맹폭격에 희생된 아버지를 두고 아까운 건설자를 잃었다는 못내 가슴 아파하시던 일도 덧붙여 말하더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네. 어머니는 늘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지 못했네.

그래서 나는 첫타임이 몇시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흐린 강물은 퍼올릴수 없다고 완강히 나오는 어머니에게 타협하듯 말했네.

《어머니! 오늘은 6.1절입니다. 저 타임장을 좀 보시라요. 애들은 자기네들의 명절에 언제 첫타임을 한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렇다구 너는 언제건설자들의 량심을 더럽힐 작정이냐?!》

나는 말문이 막혔네. 더는 어머니를 마주 쳐다볼수 없었네.

마침 뒤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돌아다보니 어느새 달려왔는지 지배인, 기사장 그리고 지령장이 심각한 얼굴로 서있더군.

그들은 묵묵히 접수구로 다가가더니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더군.

나도 그들을 따라 접수구안으로 들어갔네. 물이 허리를 치더군.

나는 물을 한응금 떠보았네. 모래층을 뚫고 접수구로 새여든 강물은 샘물같았네.

(언제건설자들의 량심을 더럽힐 작정이냐?...)

어머니의 힐책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더군. 언제에 깨끗한 량심을 묻으시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그때까지 풀지 못하고있던 문제가, 해방후에야 문맹을 퇴치하고 구구를 배운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뽕프장을 물우에 띄울 그런 비상한 생각을 할수 있었을가 하는 문제가 스스로 풀리더군.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배를 끝던 아버지의 눈물결던 지난날이 마음에 반영되어서 보다 언제를 샘물과 같은 맑은 량심으로 쌓아야 한다는 깨끗한 량심을 지녔기에 어머니는 그런 비상한 생각을 할수 있는거네.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비단 당사자에게는 평범한 생각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생활의 고임돌로 되는것이지.

사람들이 깨끗한 량심을 가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조국을 위한 성스런 길을 가고 가는 길에서만 생기는거네...》 하여 친구는 눈을 습벅이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왔다.

친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언제 첫타입날에 있었던 일을 계기로 나는 티 하나 없는 깨끗한 량심을 가진 건설자들처럼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했네. 여기에 또 하나 기념비적대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놓고 보니 나도 이제 건설자가 다 된듯이 생각되더군.

연구하던 <언제콘크리트타입시수화열방지법>을 언제건설에 도입하여 4년동안에 하기로 된것을 1년씩이나 앞당겨놓았다는 공지도 생기더군.

아! 그러나 아니네!

난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난 아직 건설자가 되지 못했네.》

하고 친구는 그런 자신을 질책하듯 목청을 높여 웅쳤다.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피로움에 잠긴 눈길로 언제 하류 좌안 산기슭을 감돌아나간 길을 바라보았다.

《량심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량심은 로동계급의 량심이지. 우리 어떤 사람들은 찍하면 로동계급의 량심에 대해 부르짖곤했었지. 나처럼 말이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부르짖을것이 아니네. 오랜 세월 쉽없이 흐르는 강물에 씻겨 다듬어진 저 강바닥의 조약돌처럼 간고한 길을 가고가는 길에서 다듬어지고 얻어지는 마음이지.

나는 방금 어제저녁에야 그 진리를 심장깊이

느꼈네...》

《...?!》

나는 의아했다.

(어제 저녁에야 수훈식과 국가연회가 있지 않았는가?!...)

어제저녁에 나는 수훈식에 방청으로 참가하여 높은 수훈의 영예를 지닌 친구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고 언제준공을 축하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연회에 초대되어 친구와 나란히 앉아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있었던말인가?!

친구는 말했다.

《연회가 끝난 다음 자네를 숙소까지 내려다주고 돌아선 나는 저도모르게 언제쪽으로 걸음이 돌려지더군. 가소리카의 경적소리, 진동기소리, 혼합기소리, 호각소리, 거친 웨침소리로 밤낮이 따로 없이 들끓어번지던 건설장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휘영청 밝은 달빛에 잠겨 죽은듯이 고요하더군. 이따금 애무하는듯한 달빛의 유혹에 잠들지 못하고있는 산짐승들의 흥분된 울부짖음소리, 그 소리에 놀라 잠깐 끊졌다간 다시 이어지는 밤새들의 지저귀이 밤의 고요를 가볍게 흔들어놓을뿐이였네. <척후대>가 길을 닦으며 들어올 때 울리던 첫 발파소리에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던 이 심산유곡의 <주인>들도 자기 고향을 찾아왔다가 변모된 산천을 보고 잠들지 못하고있더군.

나는 웅장한 언제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네. 가슴이 설레이면서 별생각이 다 들더군. 저렇게 웅장한 언제를 어떻게 쌓았을가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도 들고 언제를 쌓으면서 어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었던 가지가지 일들이, 그때는 용서 못할 일처럼 느껴지던 그 모든 일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되새겨지더군.

그러면서 래일이면 또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언제가 두고가는 혈육처럼 느껴지면서 품에 안아보고싶은 충동이 일더군.

나는 합숙을 지나 언제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들어섰네. 바로 저 길이네. 새로운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간 우리 <진진로>네. 기본공사가 바빠서 닦으며 말며 하다가 <척후대>가 들어오면서 닦은 길이 물에 잠기게 되자 급급해 닦은 길이네.

언덕길에 올라서서 언제쪽으로 걸음을 돌리는 데 어디선가 곡괭이질소리가 들려오더군.

나는 곡괭이질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네. 굽이를 돌아서니 웬 너인이 길복판에서 곡괭이질을 하고있더군. 수상쩍은 생각이 들어 몇걸음 더 다가갔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져내린듯 멈춰섰네.

곡괭이로 길바닥을 뿌지고있는 너인은 나의 어머니였네.

<어머니!>

<태수냐?>

어머니는 곡괭이를 지팡이처럼 짚으며 허리를 펴시더군. 땀이 흥건히 내뻗듯 얼굴은 달빛에 번들거리더군.

<저런! ... 가슴에 하나 달았구나!>

하며 어머니는 내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을 대견스럽게 만져보시더군. 달빛에 유난히 빛을 뿌리는 훈장을 쓰다듬어보시는 어머니의 얼굴도 빛을 뿌리더군.

<어머니, 밤이 깊었는데 주무시지 않구 무슨 일을 하세요?>

<래일 이 건설장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구나. 그래서 언제를 돌아보려고 나왔는데 길바닥에 박힌 돌부리에 걸쳐 넘어질뻔하지 않았겠니. 밤이어서 그런지 길바닥이 들쭉날쭉한게 고르롭지 못하더구나, 돌부리도 많고... 언제에 물이 차고 호수가 생기면 경치좋은 여기에 휴양소, 정양소들이 생기고 학생애들의 야영소도 생길게 아니냐. 그때 혹시 애들이 언제를 보겠다고 달음박질쳐오다가 돌부리에 걸쳐 넘어지거나 하면 이 길을 닦은 우리 건설자들을 얼마나 원망하겠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품에 확 안겨들었네.》

친구는 더는 뒤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커다란 감동에 휩싸여있었다. 단 한번밖에 보지 못했던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싶었다. 7년전에, 배치지로 떠나기 전날에 수수한 숨저고리에 양털실로 성글싱글 뜬 머리수건을 쓰고 평양에 나타나던 친구의 어머니! 이 나라 어디가나 볼수있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어쩐지 지금 나의 눈앞에 안겨오는 어머니의 그 평범한 모습은 세계에 위용을 자랑하는 언제의 높이보다 더 높아 보이고 마음은 숙연해진다.

어느덧 언제에는 어슬어슬 어둠이 기여들고 소슬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공장의 주인들

강복례

드넓은 작업장은 기계의 바다였다. 산더미같은 숨을 빨아들여서 통구리를 만들어내는 혼타기로부터 소면기와 련조방기 그리고 공장의 심장부인 정방기에 이르기까지 수백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넓고넓은 작업장은 물동적인 소음으로 가득차고 운기나는 광택으로 번쩍이는 기계의 바다였다. 게다가 이 기계바다의 주인인양 가벼운 꽃무늬원피스에 흰 앞치마를 단정히 입고 갖가지 색깔고운 머리수건을 쓴 처녀들이 기계사이를 경쾌하게 누벼다니고있었다.

작업장 여기저기에 울해 새 전투에로 부르는 힘찬 구호들이 나불었다. 그 구호에 대답하듯 속보판에는 계획을 넘쳐한 정방공들과 련조방공들, 설비를 만가동시킨 수리공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소개되었다.

그 어떤 뜨거운 열정과 약동하는 숨결이 온 작업장에 차고넘치는듯했다.

금옥이는 작업장에 들어서자 눈앞의 모든것이 황홀해보였고 마음이 확 넓어지는듯했다. 며칠전까지 그는 10년간 배우며 자란 학교에 있었다. 거기서 선생님들은 그의 걸음걸이를 어린애처럼 돌봐주었고 발을 헛디딜세라 보살펴주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사회라는 넓은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호기심도 들었고 웬일인지 좀 두렵기도 했다.

금옥이는 이 기계 저 기계를 둘러보며 드넓은 작업장을 지나 공장 한구석에 자리잡고있는 작은 방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우에 《로라교환작업반》이라는 작은 문패가 붙어있었다. 처녀는 손에 들고있는 파견장을 다시 보았다. 분명 로라교환작업반이었다. 무슨 일을 하는텔가. 전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직종이다. 방직공장이라면 의례히 정방공이나 직포공에 대해서 생각했던 금옥이었다.

금옥이는 이 작은 방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라교환작업반?》 이름도 들어본 일 없지만 그가 들어선 작업장은 또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

그 드넓은 기계바다를 지나 공장 한옆에 자리잡고있는 이 자그마한 방에는 10평방도 되나마나한 작업대가 하나 있고 진조장치가 되어있는 당반들과 더운물 찬물이 흐르는 세척대가 있을뿐이다.

문에는 방음장치가 되어있어서 문을 닫은후에는 공장의 그 세찬 기계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작업반장은 곧 금옥이앞에 나타났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대에 마주앉아 일을 하다가 일어서서 금옥이를 맞았다. 썩 애뻔보이는 얼굴이 오동통한 처녀였다. 동그란 눈에는 웃음이 찰랑거렸다.

《금옥이?》

금옥이의 이름을 되묻고난 작업반장은 생글생글 웃으며 쨍쨍한 목소리로 그러나 무척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한테 금옥이가 또 있단다. 그러니 이제 넌 작은금옥이구 그 앤 큰금옥이라구 해야겠구나.》

맞아주는 첫인사가 다정하고 소탈한 까닭인지 금옥이는 곧 친근감을 느끼며 수집은 미소를 지었다. 작업대에 마주앉아 일을 하던 작업반원들도 다정한 시선으로 금옥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그런 시선을 느끼자 금옥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았다.

로동자들은 아이들 장난감굴레바퀴같은것을 손에 들고 거기에 붙어있는 솜면지를 뜯어내고있었다.

작업반장은 금옥이의 호기심을 헤아려서인지 그 장난감굴레바퀴같은것을 들고 금옥이에게 설명했다.

《금옥아, 이게 로라라는건데 정방기에선 이것이 없으면 실이 나오지 않는단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이 로라를 깨끗이 닦아서 체때에 교환해주어야해. 그건 이 로라가 깨끗해야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곱게 나오기때문이다. 실이 잘 나오는가 그러지 못한가 하는것이 다 이 로라에 달려있어. 알겠니?》

작업반장은 마치 공장에서 이 일이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한것처럼 마지막 말을 강조했다. 금옥이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금옥이가 안것은 다만 로라를 교환하는 일이며서 로라교환작업반이라고 하누나 하는것뿐이었다. 그러고보니 작업장 구석구석에 그 로라들이 가득가득 쌓여있었다. 벽에 다가붙인 여러개의 통안에는 물론 당반우에도 세척대우에도 어디에나 그 로라가 쌓여있었다. 큰것, 작은것, 붉은것, 노란것, 쇠

로 된것, 최우에 고무를 씌운것-이것이 오늘부터 금옥이의 작업대상이다.

직포공이나 정방공이 될것을 꿈꾸었던 금옥이는 좀 아연해졌다.

마침 작업장 문이 열리고 세찬 기계소리와 함께 누구인가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문을 등지고 섰던 금옥이는 들어온 사람을 보지 못했다. 로라를 들고 금옥이와 마주섰던 작업반장이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온 사람을 쳐다보았다.

《금옥아, 여기 또 금옥이라구 새로 왔어. 이제부터 넌 큰금옥이구 이 앤 작은금옥이야.》

작은금옥이는 엉겁결에 고개를 돌려 뒤에 선 사람을 보았다. 키가 날씬하고 얼굴은 가름한데 쌍가풀진 고운 눈이며 날이 선 코마루며 곱게 생긴 입술로 해서 단번에 눈을 끄는 아름다운 처녀가 거기에 서있었다. 그 처녀는 시선과 마주치자 금옥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웬일인지 그 처녀의 아름다움에는 어대인가 도교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풍기고있었다.

큰금옥이는 새로 온 금옥이를 흘깃 바라보고 작업반장에게 푸점없이 대답했다.

《너한테야 성실한 로라교환공이 중요하지 이름이 금옥이건 순옥이건 상관할게 있니.》

그리고는 물이 흐르는 세척대앞에 들어서서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로라들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나는 이 일밖에 다른 일은 모르며 또 상관하지도 않는다는듯이 그렇게 열심히 닦았다.

작업반장은 큰금옥이의 그 푸점없는 말투에는 개의치 않는듯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그야 물론 일이 굹지 사람이 굹겠니? 이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을 잘못하면 그 이름이 무슨 빛을 내겠니.》

열심히 로라를 닦던 큰금옥이 고개를 들었다.

《일이라구 다 빛이 나나. 우리처럼 일을 아무리 해도 빛이 안나는 그런 일도 있어.》

《그건 일을 진심으로 하지 않을 때만 그런거야.》

작업반장은 깔끔하게 대답하고 작은금옥이의 팔을 잡았다.

《금옥아, 저 방이 휴계실이란다.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라.》

저쪽 간막이에 문이 달려있는 그 방을 작업반장은 가리켰다.

작은금옥이 휴계실에서 나왔을 때 작업반장이 물었다.

《너한테 고운 머리수건이 없니?》

《있어요.》

작은금옥이는 얼른 작업복주머니에서 머리수건을 꺼냈다. 중학교 3학년때 아버지원수님께서 교복과 함께 선물로 보내주신 금박이 박힌 하늘색 머리수건이었다.

《곱구나. 써보라.》

작업반장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권고했다. 작업반원들도 웃으며 작은금옥이를 바라보았다. 작은금옥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운 머리수건을 머리에 썼다. 거울을 보고싶었으나 부끄러워서 주머니에 있는 손거울을 꺼내지 못했다.

《수건을 쓰니 더 곱구나.》

작업반장은 머리수건을 쓴 작은금옥이를 쳐다보고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옆에 앉히고 일을 가르쳐주었다.

《금옥아, 여기 작업대에서는 이 로라의 구석구석에 배긴 솜면지를 말끔히 긁어내야 한단다. 그다음은 저쪽 세척대에서 기름때 없이 닦아내구 건조시켜서 산처리를 하면 돼. 일은 어렵지 않지만 책임은 중요하단다. 우리가 로라를 깨끗이 닦아야 실이 잘 나오니까.》

작업반장은 말을 끊었다가 곧 다시 이었다.

《금옥아, 방적에서 기본은 청소야. 정방공들도 기대청소를 얼마나 잘하구 기대를 얼마나 깨끗이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생산을 더 낼수도 있고 못낼수도 있어.》

그 말에 세척대에서 열심히 로라를 닦던 큰금옥이 고개를 들고 웃으며 빈정대듯 말했다.

《옥희야, 넌 지배인이냐 되는것 같구나. 온 공장의 일에 다 관심을 돌리구.》

옥희반장은 고개를 돌려 큰금옥이를 바라보았다.

《로동자가 지배인처럼 말한다고 해서 잘못될거야 있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배인처럼 생각하면 좋은거야.》

말은 야무지게 했지만 옥희반장의 눈엔 아무런 노여움도 없는 웃음이 어려있었다.

작은금옥이는 작업반장이 가르쳐준대로 로라의 구석구석에 배긴 솜면지를 긁어내며 나무들에 차곡차곡 담았다. 일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쉬웠다. 사로청원답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며 그속에서 사로청원의 영예를 빛내이리라 꿈꾸었던 작은금옥이는 너무도 쉬운 일, 하찮은 일이나 하는것 같은 서운한 생각을 버릴수가 없었다.

× ×

작업반은 언제나 명랑하고 떠들썩했다. 작업대

를 사이에 두고 빙 둘러앉아 일하는 까닭인지 일할 때에는 친밀하고 다정했고 일이 끝난후 휴게실에 모이면 또한 룡담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간혹 벌어지는 가벼운 언쟁도 웃음으로 끝났고 웃음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는 작업반장 김옥희가 서있었다. 작업반장 김옥희에게서 제일 인상적인것은 언제나 웃는듯한 그의 눈이었다. 맑고 오동통한 얼굴에서 동그란 눈은 언제나 생글생글 웃고있었다. 작업반원들에게 지시를 주거나 일을 조직할 때에도 그의 눈은 웃고있었으며 지어 성을 낼 때에도 얼굴은 빨개졌으나 눈은 웃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또한 특징적인것은 그 쩡쨍한 목소리였다. 작업지시를 하거나 일을 조직할 때도 그 목소리는 쩡쨍했으며 웃고 룡담할 때도 그 목소리는 작업반원들속에서 표가 났다. 그런데 그 쩡쨍한 목소리가 다정하고 소탈해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었고 사귀자마자 곧 허물없이 대하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있었다.

작업반장의 이런 특징들이 작업반의 분위기에 도 작용하고있는듯싶었다. 나이든 아주머니들과 동년배들은 작업반장이라고 부를대신 그저 《옥희야.》하고 이름만 불렀고 나이 어린 처녀들은 《옥희언니.》로 통했다. 작업반장자신도 손우사람들에게 언니라고 불렀고 동갑 또래들과 나 어린 동무들에게 《금옥아.》 혹은 《춘희야.》하고 이름만 불렀다. 그러면서 같이 룡담을 하고 깔깔거리고 웃었으며 퇴근길에 나서서는 같이 강안유보도를 걸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밝고 명랑하고 조금도 류다르데가 없는 작업반장이었다.

너무도 쉽고 하찮은 일이나 하는것 같은 서운한 생각을 안고 작업반에 들어온 작은금옥이도 이렇듯 명랑하고 떠들썩한 작업반의 분위기에 곧 휩쓸려들었다.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옥희반장이나 작업반원들과 같이 다니는것이 좋았고 룡담할 때 웃을 때는 그도 같이 따라웃었다.

이런 어느날 아침, 작은금옥이는 옥희반장과 같이 공장정문안으로 들어오고있었다. 정문앞에 세운 속보판앞에서 옥희반장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준식기사동무가 속보에 났네... 밤새워 환기장치의 기술혁신을 완성... 참 큰일을 했구나.》

옥희반장은 속보판의 글을 읽으며 기뻐했다.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며 금옥이를 돌아보았다.

《금옥아, 준식기사동무가 누군지 아니?》

《몰라요.》

《에게, 저게 준식기사동무가 오누나. 기사동무,

축하해요.》

옥희반장은 마침 정문앞으로 다가오는 보위색 양복차림의 웬 사람을 보고 반기며 인사했다.

옥희반장의 인사에 그 사람은 웬일인지 좀 껌면쩍어하며 깍듯이 답례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반장동무.》

그리고는 황급히 옥희반장의 옆을 지나 정문밖으로 나갔다. 옥희반장은 그의 뒤모습을 흘깃 돌아보고 재미있게 웃으며 작은금옥이에게 속삭였다.

《큰금옥이의 애인이야. 그래서 나만 보면 저렇게 바빠서 달아난단다. 저런 마음 용한 동무가 어떻게 그 말팔량이 큰금옥이를 따라다녔을가.》

작은금옥이는 아직 언니들의 그런 편정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때문에 옥희반장의 말을 듣기만했다.

옥희반장은 곧 웃음을 거두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 같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이 공장에 와서 일한단다.》

《누구말이에요?》 작은금옥이는 영문을 몰라 물었다.

《큰금옥이말이야. 그 애하구 나하군 언제나 한 책상에 앉곤했어.》

작은금옥이는 처음 듣는 소리여서 놀랐다가 보다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럼 학교에도 같이 다녔구 공장에 와서도 내내 같이 일하나요?》

《공장에 와선 갈라졌됐어. 그 앤 처음부터 로라교환작업반에 있었구 난 내내 정방에 있다가 얼마전에 우리 작업반으로 왔어.》

《그래요? 그럼 언닌 정방공이었나요?》

작은금옥이는 옥희반장이 얼마전까지 정방공이었는데 로라교환작업반으로 왔다는 말에 더욱 의아해졌다. 어째서 공장의 심장부인 정방에서 하찮은 로라교환작업반으로 옮겨왔을가? 이해할수 없는 수수께끼같이 느껴졌다. 한편 옥희반장과 큰금옥이가 그런 남다른 사이이기때문에 그들의 관계도 어데인가 류다르데가 있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큰금옥이는 옥희반장앞에서 거리낌없이 말했고 옥희반장 역시 깔끔하게 대답했으나 살뜰했다.

옥희반장과 작은금옥이가 작업장을 지나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큰금옥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옥희반장이 생글생글 웃으며 그 쩡쨍한 목소리로 큰금옥이에게 말했다.

《금옥아, 큰금옥이말이야. 너 정문안에 속보판 봤니? 준식기사동무가 환기장치의 기술혁신을 완

성했다구 속보에 났두나.》

큰금옥이는 고운 눈으로 옥희반장을 흘겨보며 새침해서 대답했다.

《난 속보판은 보지 않아.》

《왜 네 이름이 속보에 나지 않아서? 준식기사 동무가 난것만도 난 기쁘더라. 거기엔 너의 정신적고무의 힘도 안반침되어있을게 아니니.》

《그 동무는 그 동무구 난 나지, 왜 얼버무려놓니. 난 자존심도 없다던?》 큰금옥이 성을 내든 말든 옥희반장은 그냥 새물새물 웃었다.

《걱정 말아. 이제 저녁밥을 싸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술혁신을 했다구 속보에 날수도 있으니까.》

그바람에 하나 둘 들어오던 작업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큰금옥이 그만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난 그런 바보같은짓은 안해. 난 아직 그 동무의 안해가 아니야. 나도 당당하게 그 동무와 어깨 겨루는 혁신자가 되고싶지 벌써부터 휘저해서 뒤받침이나 해주구싶진 않아. 내게도 자존심이 있어.》

큰금옥이가 성을 냈기때문인지 옥희반장은 작업복단추를 천천히 채우며 어찌선지 숨을 크게 내쉬었다.

작은금옥이는 큰금옥이가 성을 내어 말했지만 큰금옥이의 말이 옳은것처럼 생각되었다. 누구나 당당하게 혁신자가 되고싶지 남의 뒤받침이나 하는 일을 무엇때문에 하겠는가. 옥희반장도 그 일을 생각하는것이라고 작은금옥이는 믿었다.

그런데 옥희반장은 작업복단추를 다 채우며 머리수건까지 쓰고나서 다시 웃으며 큰금옥이에게 말했다.

《나도 자존심 없는 사람은 싫어. 그러나 그 자존심이 공장을 위하져 생산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그런 자존심이라면 그건 리기주의야.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일을 잘할수 있어도 그렇지 않을 땐 일을 잘 안해.》

옥희반장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말은 신랄했다. 큰금옥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빈정대듯이 시뚏해서 대답했다.

《리기주의? 네가 말한 그런 리기주의자는 우리 작업반에 한사람도 없어.》

《없으면 좋구.》

옥희반장은 여전히 웃으며 큰금옥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과 마주치자 큰금옥이도 어이가 없는지 웃음을 터쳤다. 지금까지 두사람의 말다툼

에 끼여들지 않았던 작업반원들도 같이 따라 웃었다. 이윽고 작업장에서는 언제 그런 말다툼이 있었던가싶게 깔깔거리고 웃으며 하루일이 시작되었다.

× ×

도고하고 푸점없어보이는 아름다운 처녀 큰금옥이에게도 살뜰한데가 있었다.

작은금옥이가 처음으로 정방기의 로라교환작업에 참가하는 날이었다. 아침에 옥희반장은 작업반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했다.

《오늘은 제7선의 189호대로부터 199호대까지 로라교환작업을 합니다. 정방공들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지키자요.》

낮교대 12명의 작업반원들이 로라를 밀차들에 담아시고 제7선으로 향했다.

큰금옥이와 작은금옥이가 한밀차를 밀고갔다.

《금옥아.》

큰금옥이는 기계소리때문에 작은금옥이의 귀가 까이 입을 대고 살뜰하게 말했다.

《옥희가 날보구 너를 가르쳐주라고 했는데 뭐 크게 가르쳐줄것도 없어. 나가보면 할수 있어. 내 옆에서 잘 봐.》

작은금옥이는 큰금옥이의 살뜰한 말에 마음이 후더워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일인지 빨리 해 보고싶었다.

다른 선들과 마찬가지로 제7선에서도 수십대의 정방기가 세찬 기계소리를 울리며 돌아가고있었다. 밝은 태양등아래에서 윤기나는 정방기들사이를 누벼가는 정방공들의 걸음은 경쾌했으며 실을 잇는 손놀림은 신기하리만큼 빨랐다.

거기 벽이며 통로에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옷감을 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신의 앞장에서 내닫고있는 정방공들, 련조방공들, 수리공들의 성과들을 써붙인 속보들이 나 붙었다. 그러나 어느 속보에도 로라교환공들에 대해서 쓴것은 없었다. 그러고보니 공장의 어느 속보판에도 로라교환공들에 대해서 쓴 속보는 없는것 같았다. (왜 우리 일에 대해서는 속보에 내지 않을까? 우리 일은 속보에 널만한 일이 못돼서 그럴가? 정말 우리 일이 정방공들의 뒤받침이나 하는 일인지도 몰라. 그래서 큰금옥언니가 뒤받침이나 하는 일을 하고싶지 않다고 그렇게 성을 냈을까?)

작은금옥이는 서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속보판에 붙인 속보들을 일별했다.

기대가 멎고 로라교환작업이 시작되었다. 로라

가 담긴 나무들을 안고 기대사이를 지나가며 로라를 바꿔끼우는 로라교환공들의 동작이 거의 기계처럼 빨랐다. 그중에서도 옥희반장과 큰금옥이의 숨씨는 특이했다. 작은금옥이는 큰금옥이를 따라가며 로라를 바꿔끼웠다. 일이 어려운것은 아니었으나 손에 익지 않은 일이어서 여간 굼뜨지 않았다. 다른 동무들이 세개 네개의 로라를 바꿔끼울 때 작은금옥이는 겨우 한개의 로라를 바꿔끼웠다.

로라교환이 끝나고 직계를 돌리며 실을 잇는 동작은 더 굼뻤다. 큰금옥이 가르쳐준대로 실을 이었으나 손은 몹시 굼뻤다. 옥희반장과 큰금옥이는 정방공들 못지않게 손놀림이 빨랐다. 이 일 역시 숙련을 요하는 일이구나싶었다. 몇추구간에서 머물거리는 작은금옥이옆으로 큰금옥이가 급히 다가왔다. 그는 작은금옥이 귀에 대고 말했다.

《금옥아, 그렇게 꾸물거리면 정방공들이 성을 낸단다.》

그리고는 자신이 작은금옥이 하던 나머지 추들의 실을 이어주었다. 그러면서 다시금 실 잇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지내고보니 큰금옥이도 무척 살뜰했다. 마지막 정방기 199호대로 갔을 때였다. 밀차에서 꺼내는 로라들을 살펴보면 옥희반장이 교환작업을 중지시켰다.

《이 로라는 교환할수 없어. 세척이 잘 안됐어.》
옥희반장이 딱 잘라 말했다.

로라교환공들이 모두 밀차옆으로 모여왔다. 작은금옥이는 성을 내는 반장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어제 로라세척을 누가 했어요?》

옥희반장이 작업반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목소리가 전에없이 날카로웠다.

《내가 했어. 이 로라가 어쨌다구 그러니?》

큰금옥이는 태연히 대답했다. 그 어조에는 옥희반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옥희반장의 얼굴이 새빨개 졌다.

《이 로라는 다시 세척해야겠어. 이런 로라를 바꿔주면 얼마 안있어서 실이 끊어져 정방공들이 얼마나 애타하는지 아니.》

옥희반장은 큰금옥이를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무들을 둘러보며 재촉했다.

《빨리 산처리실에 가서 어제밤교대가 세척한 로라를 가져오세요.》

모두 산처리실로 달려가서 다른 로라들을 날라왔다.

로라교환작업을 끝내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뽀로통해서 들어온 큰금옥이가 먼저 옥희반장에게 대들었다.

《이 로라가 어쨌다구 다시 세척해야 된단말이니? 전엔 이런것도 다 교환했어.》

옥희반장은 침착해지려고 애쓰는듯이 한참이나 눈을 내려깔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물론 이런것도 교환해줄순 있어. 그러나 실이 자주 끊어져서 정방공들이 애타할 생각을 하면 교환해줄수 없어. 정방공들의 심정을 생각하는 량심있는 로라교환공이라면 교환해줄수 없어.》

옥희반장의 말은 여느때와 달리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큰금옥이는 어이가 없는지 빈정거렸다.

《흥, 넌 끔찍이도 정방공들을 생각하누나. 그랬다구 우리 일이 무슨...》

《뭘?》

옥희반장의 얼굴이 단박에 새빨개졌다. 그는 한참이나 큰금옥이를 바라보았다. 바라보았다기보다 쏘아보았다. 그러다가 작업반원들모두가 놀라서 돌아보리만큼 예리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큰금옥이에게 말했다.

《넌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가 정방공들을 위하는것이 실 한오리라도 더 뽑아서 더 많은 천을 짜기 위해서라는걸 넌 모른단말이나?》

옥희반장의 말이 너무도 예리하고 단호했기때문인지 큰금옥이도 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옥희반장은 큰금옥이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정색해서 작업반원들에게 말했다.

《좀더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해야겠어요. 우리가 로라를 깨끗이 닦지 못한걸 교환해주면 정방공들도 애를 먹을게고 또 그 로라는 며칠 못가서 다시 교환하지 않으면 안될거예요. 중요한건 그렇게 되어 실을 많이 뽑지 못하면 인민들의 옷감이 적어지고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는거예요. 우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요.》

작업반원들모두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있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옥희반장도 잠시 말을 끊었다가 좀 가벼워진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자, 이젠 모두 일을 하자요. 전에 하던 일이 잘못됐다면 고치자요.》

큰금옥이도 말없이 다시 세척대앞에 섰다. 그는 가지고 나갔다가 교환하지 못하고 들어온 로

라들을 와락와락 세척대에 옮겨놓았다. 작은금옥이는 그러는 큰금옥이를 보며 그가 어째서 그렇게 일을 했을가싶어 놀라기만 했다. (그가 얼마나 당당한 혁신자의 대렬에 서기를 바랐는가. 그런데 우리 일이 뒤받침이나 해주고 속보판에도 나지 않는 일이 돼서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건 옳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뭐.)

작은금옥이는 이렇게 작업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했다.

× ×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다. 작은금옥이는 로라교 환작업같은 보장작업이나 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자연히 작업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고 같이 그 일에 참여도 하게 되었다.

작업반은 여전히 떠들썩했다. 룡담과 웃음이 그치지 않았으며 같이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하찮은 말다툼도 했다.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생글생글 웃기 잘하고 목소리가 짹짹한 옥희반장이 서있었다. 그러나 작은금옥이는 차츰 옥희반장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울린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음성이 류달리 짹짹해서만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옥희반장에게서는 다른 동무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생각하며 관심하는것으로서 다른 동무들과 구별되는 그런것이 있었다. 작은금옥이는 옥희반장의 그런 점을 감촉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깊게 들었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찬찬히 보았다.

상반년계획을 두달반 앞당겨끝낼데 대한 전투 목표를 마감고비에서 다그치던 어느날이었다. 공장은 들끓고있었다. 빈틈없는 전투조직과 긴장한 전투의 흐름속에서 공장은 하루하루 자기의 목표에로 도달하고있었다. 앞섰던 작업반이 뒤떨어지고 뒤떨어졌던 작업반이 더 높이 뛰어오르면서 목표를 향해 내닫고있었다.

아침에 옥희반장과 작은금옥이가 작업장에 들어서자 큰금옥이가 뒤따라들어왔다. 큰금옥이를 돌아본 옥희반장이 환성을 올렸다.

《아니 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차려입었니.》

정말 큰금옥이는 누구나 다시 쳐다보리만큼 색깔 연한 봄철회색양복을 입고나왔다. 큰금옥이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봄바람이 불었지. 넌 아직 겨울바람이 부는줄

알았니?》

그러는 큰금옥이는 정말 맵시있고 아름다웠다. 방금 4월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날이 쌀쌀해서 누구도 무겁고 따뜻한 옷을 벗지 못했는데 큰금옥이가 처음으로 가볍고 시원한 봄옷차림을 하고 나와서 동무들의 눈을 끌었다. 처녀들은 큰금옥이를 둘러싸고 요즘 유행되는 옷모양에 대해서 왁자하게 떠들었다.

그날 일이 시작되어 얼마쯤 지났을 때였다. 작업장문이 열리고 세찬 기계소리와 함께 한 처녀가 들어왔다. 작은금옥이는 처음 보는 낯선 처녀였다. 파란 바탕에 흰 꽃무늬가 있는 작업복원피스에 흰 앞치마를 단정히 두른 처녀였다. 얼굴이 온화하고 침착해보이는 좋은 인상때문인지 작은금옥이는 그를 어데선가 본것 같이 생각되었으나 어데서 보았던지는 딱히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옥희야.》

낯선 처녀는 들어오자 옥희반장을 찾았다. 로라의 숨먼지를 닦아내던 옥희반장이 생글생글 웃으며 되물었다.

《왜 왔니?》

《5선의 로라교환을 언제부터 해주겠나해서...》

그의 얼굴에 미안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3일후에 하겠어. 그런데 넌 왜 몰라서 묻니?》

옥희반장은 웃으면서도 깔끔하게 대답했다. 들어온 처녀는 겸손하게 사정을 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어찌겠니. 149호대하구 150호, 151호대가 숨이 많이 감겨서 야단났구나. 그래서 좀 앞당겨 교환해줄수 없겠나 해서 왔어.》

옥희반장은 딱 자르듯이 대답했다.

《우린 교환주기표에 의해서 교환하지 직장에서 요구한다고 아무때나 교환하지는 않아.》

《옥희야, 어찌겠니. 우린 그 석대만 생산을 제대로 내주면 2~3일내로 상반년계획을 끝내겠어. 응 좀 도와주어.》

낯선 처녀는 도와달라고 간곡히 말했다. 옥희반장은 한동안 대답을 안하고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춘실아, 그럼 나가보자.》

세척대에 마주섰던 큰금옥이 옥희반장과 같이 나가는 낯선 처녀를 불렀다.

《오춘실동무.》

작은금옥이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오춘실이?)

오춘실이라는 처녀는 큰금옥이의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큰금옥이 소리쳤다.

《춘실아.》

오춘실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큰금옥이 야단을 했다.

《너의 정방공들은 무얼 하기에 로라에 숨이 그렇게 감기게 하니. 이름난 오춘실작업반원들이 그래서야 되나. 너희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기나 하니.》

큰금옥이 그렇게 야단을 했으나 오춘실이는 웃으며 사죄를 했다.

《금옥아, 미안하다. 우리 정방공들이 너희들의 수고를 왜 모르겠니. 그만큼 우린 실을 더 많이 뽑겠어.》

오춘실이는 나가고 문이 닫졌다. 오춘실이? 그 이름을 듣고 놀란 그 순간부터 작은금옥이는 오춘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금시 그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얼마전에 있던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시군 중대회에서 주석단에 섰던 그를 본 생각이 났다. 온 공장이 알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아는 이름이다. 오춘실작업반에서는 지난 1년동안에 제2차7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완수했으며 오춘실이자신은 지난 한해에 7년분과제를 완수한 정방공이다.

그런 오춘실이를 작업장에서 보았는데 작은금옥이가 놀란것은 그가 조금도 판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라를 빨리 교환해달라고 옥희반장에게 와서 사정을 했으며 로라교환작업반원들의 눈총을 받았다. 조금도 이름있는 사람같지 않는 겸손하고 평범한 태도가 오히려 작은금옥이를 놀라게 했다.

오춘실이라고 같이 나갔던 옥희반장이 한참 후에 돌아왔다. 그는 정색해서 작업반원들에게 말했다.

《매일아침 5선의 녀대를 주기외에 더 교환해주어야겠어요. 로라에 숨이 많이 감겨서 말이 아니예요.》

《봉숙언니하구 혜옥언니는 빨리 가자요.》

아주머니들이 한시간쯤 더 일할수 있다고 하자 옥희반장은 성을 내며 소리쳤다.

《봉숙언니하구 혜옥언니는 가자요. 더 말시키지 말구 빨리요-》

아주머니들은 작업반장의 불같은 독촉에 더 앉았지 못하고 일어섰다.

아주머니들이 나가자 옥희반장은 처녀들에게

말했다.

《특별히 불일이 있는 동무는 말하지요.》

모두들 말이 없는데 큰금옥이가 일어섰다.

《난 좀 불일이 있어 가봐야겠어.》

일어선 큰금옥이를 본 옥희반장의 얼굴이 한순간 해쓱해졌다가 빨개졌다. 그는 큰금옥이의 시선을 피해 눈길을 떨쳤다. 그 눈에 형용할수 없는 피로운 빛이 비졌다.

《불일이 있으면 가보라.》

옥희반장의 말은 쌀쌀했다. 큰금옥이는 그 맵시있는 연회색양복을 갈아입고 거울앞에서 머리까지 매만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는 옥희반장의 어깨가 가볍게 오르내렸다. 큰금옥이가 나가자 옥희반장은 한숨을 내쉬고 동무들에게 물었다.

《또 불일이 있는 동무는 없어요?》

《없어요.》

한옆에서 누구인가 대답했다.

《그럼 일을 시작하자요.》

옥희반장의 뒤를 따라 모두 작업장으로 나왔다. 옥희반장의 얼굴은 일을 시작한후에도 흐려있었다. 작은금옥이는 큰금옥이가 간데 대해서 옥희반장이 왜 저렇게 언짢아할까 하고 의아해했다. 옥희반장자신이 불일이 있는 동무들은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큰금옥이도 불일이 있어 갔을게 아닌가...

작업장은 들끓었다. 두 교대가 한데 어울려 일을 다그치니 일은 푹푹 자리가 났다. 옥희반장은 팔을 걷고 로라세척을 했다. 낮에 큰금옥이가 하던 일이었다.

큰금옥이가 가고 일을 시작하여 20분도 되나마 나했을 때 문이 열리고 갔던 큰금옥이가 돌아왔다. 누구인가를 놀려주고 웃던 옥희반장이 들어서는 큰금옥이를 보자 웃음을 푹 그치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무들도 웃음을 그쳤다. 큰금옥이는 휴계실로 들어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척대앞으로 나왔다.

《왜 왔니?》

옥희반장이 쌀쌀하게 물었다.

《왔는데 어쨌니?》

큰금옥이는 태연히 대답했다. 옥희반장은 더 묻지 않았으나 큰금옥이 팔을 걷고 세척대에 들어서자 쌀쌀한 태도로 큰금옥이옆을 지나 휴계실로 나갔다. 돌아온 자기를 그렇게 맞아주는데 화가 났던지 큰금옥이도 참아내지 못하고 휴계실로 뒤따라 나갔다. 작업반원들은 잠자코 일을 했는데 어찌나 조용했던지 휴계실에서 나는 목소리가

다 들렸다.

《옥희야.》

휴게실에서는 큰금옥이가 먼저 옥희반장을 불렀다.

《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어. 그런데 난...》

큰 금옥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노여움이 가지지 않은 옥희반장의 목소리가 공기마저 누르는듯한 무게를 가지고 울렸다.

《난 네가 그럴줄은 정말 몰랐어. 작은금옥이나 다른 동무들이 그랬다면 열번도 더 리해했을거야. 그런데 네가... 어쩌면... 네가 그럴줄은 정말 몰랐어... 지금 온 공장이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분초를 다투며 일하고있어... 난 네가 왜 먼저 갔는지 알고있기때문에 더 가슴아픈거야.》

큰금옥이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큰금옥이답지 않게 풀이 죽은 소리로 처음의 말을 되풀이했다.

《난 자기 잘못을 뉘우쳤기때문에 돌아왔어...》

그 목소리에는 자기자책이 울리고있었다.

옥희반장은 대답을 안했다. 한동안이 지났다. 옥희반장이 먼저 말했다.

《난 언제부터 너한테 하고싶었던 말이 있어. 너의 사상의 병집은 집단이나 공장보다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거야.》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조금도 주저없이 신랄하게 말했다.

《뭘?》

큰금옥이의 놀라는 소리가 금시 소리라도 할것 같았다. 그러나 옥희반장은 계속했다.

《넌 아무리 일해도 빛이 안나고 뒤반침이나 해주는 로라교환공이기때문에 일을 주인답게 안해도 되고 빛이 나는 정방공이 된다면 일을 잘해서 혁신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고 뭐니.》

전갈으면 참지 못하고 대들었을 큰금옥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잠시후에야 어이없어하듯 허거픈 소리로 대답했다.

《넌 내가 형편없는 락후분자가 된것 같이 말하누나.》

《난 네가 모든 면에서 작업반원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때문에 하는 소리야.》

옥희반장의 음성에서는 아까와는 다른 친근감이 울리고있었다.

큰금옥이는 대답이 없었다.

《이젠 나가 일하자.》

옥희반장의 목소리였다. 그때에야 큰금옥이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마. 난 오늘 준식기사동무하구 할말이 있었던거야. 그러나 공무직장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량심히 허락지 않았어.》

옥희반장이 먼저 작업장으로 나왔다. 큰금옥이 뒤따라나왔다.

작업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옥희반장은 아까와는 달리 깔깔거리고 웃었으며 그 쾅쾅한 목소리로 누구인가를 놀려주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일손에 흥을 돋구어주었다. 일이 두시간이나 계속되었으나 어찌나 흥겹고 재미있었던지 처녀들은 시간 가는줄을 몰랐다. 일이 거의 끝나갈무렵 작은금옥이와 옥희반장은 같이 세척한 로라들을 밀차에 싣고 산처리실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옥희반장은 잠깐 들렀다 가겠다면 서 기술준비실로 들어갔다. 이어 전화 거는 옥희반장의 쾅쾅한 목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준식기사동무 바뀌주세요. 준식기사동무예요?》

저 로라교환작업반 옥희예요. 언제 퇴근하겠어요? 제가 할말이 있는데 퇴근할 때 우리 작업반에 좀 와주세요. 기다리겠어요.》

작은금옥이는 먼저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큰금옥이는 마지막 로라들을 닦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뿜었다. 옥희반장 동무가 왜 준식기사동무를 만나자고 했을가. 작은금옥이로서는 의아하기도 했고 호기심도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로라를 닦고있는 큰금옥이를 보았으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마지막 로라까지 산처리를 하고나서 낮교대동무들은 작업총화를 했다.

일을 많이 한 유쾌한 기분때문인지 처녀들은 웃고 떠들며 작업장을 나섰다.

《금옥아, 큰금옥이말이야. 나 좀 보자.》

옥희반장이 작업장을 나서려는 큰금옥이를 다시 불러들었다. 작업장을 나와서 혼자 걸어가던 작은 금옥이는 하마트면 뒤에 대고 《옥희언니》하고 소리칠번했다. 준식기사동무가 이쪽으로 오고있었던것이다. 작은금옥이는 다시 작업장으로 뛰어들어가 옥희반장의 귀에 대고 준식기사동무가 온다고 말했다. 옥희반장은 얼굴에 확 기쁨이 피어오르더니 큰금옥이의 팔을 잡았다.

《금옥아, 이젠 가자.》

밖으로 나와 준식기사와 마주쳤을 때 큰금옥이는 영문을 몰라 옥희반장을 돌아보았다. 옥희반장은 생글생글 웃으며 준식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동무, 금옥이가 범이 나을가봐 혼자서 무

서워서 못가겠대요. 같이 가세요.》

그리고는 작은금옥이의 손을 잡았다.

《애, 우린 빨리 가자. 저기 동무들이 기다려.》

옥희반장과 작은금옥이는 손을 잡고 뛰어서 공장정문을 나섰다. 옥희반장이 얼마나 명랑하고 즐겁게 웃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작은금옥이도 덩달아 마음이 유쾌했다.

× ×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작업장에 나온것은 큰금옥이었다. 옥희반장과 작은금옥이, 봉숙아주머니는 같이 작업장에 들어서며 큰금옥이가 벌써 4선과 5선에서 로라를 교환할 작업준비를 다 갖추어놓고있는것을 보았다. 옥희반장은 큰금옥이를 보자 눈에 명랑한 웃음이 찰랑거렸다.

《금옥아, 어제밤에 범이 나오지 않았던?》

큰금옥이는 고운눈을 흘기더니 깔끔하게 내쫓았다.

《범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나왔더라.》

영문을 모르는 봉숙아주머니는 눈이 커지면서 물었다.

《아니 너희들은 무슨 똥판지같은 범, 호랑이소리냐? 전기불이 대낮같이 밝은 거리에서...》

《호호.》

《호호.》

두 처녀는 허리를 그러쥐고 웃었다. 작은금옥이도 따라 웃었다. 일이 시작되어 작업반원들은 산처리한 로라들을 밀차에 가득가득 싣고 4선과 5선으로 나갔다.

계획한 4선의 교환작업을 끝내고 5선으로 갔을 때 오춘실작업반장이 반기며 다가왔다.

《옥희야, 수고해.》

오춘실작업반장은 밀차에서 로라통을 꺼내는 로라교환공들을 도와주었다. 옥희반장이 그를 만류했다.

《너희들은 실이나 많이 뽑으라. 우리 일은 걱정말구.》

오춘실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일손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작은금옥이는 아직도 일손이 서툴렀다. 로라를 바꿔끼울 때보다도 기계를 돌리면서 실을 잇는 작업은 더 급했다. 분초를 다투는 정방공들에게는 로라를 교환하는 그 짧은 시간마저 아쉬운 것이다. 그래서 로라교환공들은 모두 일을 빨리 해야 한다. 작은금옥이 굼뜨게 실을 이어나가는 데 오춘실작업반장이 옆에 와섰다. 작은금옥이는 자기의 굼튼 동작때문에 오춘실작업반장이 성을

낼것만 같아 속이 조마조마했다. 오춘실작업반장은 작은금옥이옆에 와서 무슨 말인가 했다. 작은금옥이는 기계소리때문에 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오춘실작업반장은 작은금옥이 귀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다정하게 말했다.

《새로 온 동무가 일을 빨리 배웠구나.》

그리고는 작은금옥이의 일손을 도와 옆에서 실을 이어나갔다. 실을 잇는 그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작은금옥이는 홀린듯이 그를 따라가며 보았다. 그러나 작은금옥이의 마음을 더 감동시킨것은 자기를 대하는 오춘실작업반장의 살뜰하고 다정한 태도였다. 온 공장이 자랑으로 여기는 로력혁신자인 그가 자기의 굼튼 일숨씨를 나무랄 대신 오히려 일을 빨리 배웠다고 다정하게 말하고 일손을 도와주는 그 소박한 품성이 작은금옥이로 하여금 오춘실을 다시 한번 더 쳐다보게 했다.

작은금옥이는 자기 작업반동무들이 5선에서 떠나간후에도 머뭇머뭇거리며 오춘실작업반장이며 그의 작업반 정방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나 하나같이 긴장해서 정방기사이를 누벼다니며 번개같은 날랜 숨씨로 실을 이어나왔다.

온 공장에 자랑높은 정방공들! 작은금옥이는 부지중 자기도 정방공이 되어 이들처럼 자랑을 떨치며 일하고싶었다.

그도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실을 더 잘 뽑아서 인민들의 옷감을 짜기 위한 정방공들의 일이나 다름없이 중요한 일이라는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아글타글 애쓰는 옥희반장의 모습도 보았으나 정방공들에게 이끌리는 마음은 버릴수가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3일후 공장에서는 오춘실작업반이 상반년계획을 제일 먼저 끝냈다는 소식을 알렸다. 공장정문안의 속보판에도 대문짝같은 글씨로 상반년계획을 거의 석달이나 앞당겨 끝낸 오춘실작업반을 크게 소개했다. 온 공장이 오춘실작업반의 소식으로 들끓었다. 그날저녁 공장에서는 오춘실작업반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축하모임을 끝내고 나오다가 옥희반장이 작은금옥이에게 말했다.

《금옥아, 넌 먼저 가라. 난 좀 들어가서 밤교대 동무들의 일을 보아주어야겠어.》

그리고는 작업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작은금옥이는 잠시 회관앞에 서있었다. 물론 낮교대에서 일한 다른 동무들은 떠들썩하면서 공장정문을 나

가고있었으나 작은금옥이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작업반장은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들만 먼저 돌아가는것이 안된 일 같았고 미안했다. 그래서 다시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오춘실작업반장이 뒤따라오며 불렀다.

《금옥아, 넌 왜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들어오니?》

작은금옥이는 살뜰한 오춘실작업반장을 보자 기뻐서 대답했다.

《옥희언니가 다시 들어가서...》

작은금옥이는 말꼬리를 흐렸다가 문득 생각나서 물었다.

《춘실언니? 우리 옥희언니도 정방공이였다지요?

그런데 왜 로라교환작업반으로 왔어요?》

《왜, 로라교환작업반이 나쁘니?》

오춘실작업반장은 웃으면서 물었다.

《그래도 정방공이 더 좋지 않아요?》

오춘실작업반장은 여전히 웃으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옥희는 우수한 정방공이구 작업반장이였단다.

그 애를 로라교환작업반으로 보낸건 그 애가 누구보다 책임성이 강하구 성실하기때문이였어. 로라교환공은 누구보다 책임성이 강하구 주인답게 일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니까. 정방에서는 옥희를 내놓기 아쉬웠지만 보냈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의 몇대의 정방기를 담당하고있지만 로라교환공들은 온 공장 수십만추의 로라를 담당하고 있는셈인데 책임성이 없고 주인답게 일을 안해서야 되니. 그렇기때문에 공장에서는 우수한 동무들을 로라교환공으로 보낸단다. ...생산을 뒤받침해주고 얼핏 보면 빛이 안나는 그런 일일수록 책임성이 높고 량심적으로 일하는 동무들이 해야 되니까. 내 말이 리해디니?... 우리 정방공들이 아무리 실을 많이 뽑고싶어도 뒤받침해주는 수리공들이나 주유공들, 로라교환공들이 일을 잘 안해주면 어떻게 실을 많이 뽑겠니. 그러니까 정방공들의 성과는 온 공장의 힘이 합쳐졌기때문에 이루어지는거란다.》

작은금옥이는 오춘실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오춘실작업반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신은 생각하려고도 안했고 또 깊이 생각해 보

지도 못한 그런 말이였다. 뒤받침이나 해주는 하찮은 일로 여겼던 로라교환공의 일이 누구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며 그래서 로라교환공은 가장 책임성이 높고 성실한 사람이 하게 된다는 말도 뜻밖이였고 뒤받침해주고 빛이 안나는 일일수록 책임성이 강하고 량심적인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말도 처음 듣는 말이였다.

그래서 김옥희작업반장이 정방에서 로라교환작업반으로 왔단말인가? 작은금옥이는 아직 그 모든것이 석연히 리해되는것은 아니였으나 오춘실작업반장과 헤어져 로라교환작업반에 들어서니 옥희반장이 세척대에서 로라세척을 하고있었다. 옥희반장은 작은금옥이를 보자 놀라면서 물었다.

《아니 넌 왜 가지 않고 왔니?》

《언니가 들어왔기에 저도 왔어요.》

《아이 참 너두... 나야 작업반장이 아니니. 넌 먼저 가라.》

옥희반장은 생글생글 웃으며 그 쟁쟁한 목소리로 룡담하듯 이렇게 말하더니 밤교대동무들의 일손을 독촉했다.

《태일 6선에서 10대를 교환해야 하는데 오늘밤에 일을 좀더 다그치자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로라를 닦았다. 작은금옥이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옥희반장은 낮에도 낮교대와 같이 일했다. 밤에도 밤교대동무들과 같이 저렇게 일하고있다. 방금전 오춘실반장이 하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정말 옥희반장은 속보에 나는 일도 없고 축하의 꽃다발을 받는 일도 없는데 정방공들이 계획을 완수하고 한오리의 실이라도 더 뽑게 하기 위해서 저렇듯 쉽없이 일하며 사람들을 독촉하고 성도 내며 욕도 하고 타이르기도 한다는 생각이 몽클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그렇다, 저 옥희반장이나 오춘실작업반장은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장이라는 이 큰 집단속에서 인민의 옷감을 짠다는 크나큰 자각을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일하고있는것이다. 그것으로 해서 그들이 더 빛나고 훌륭한것처럼 느껴졌다.

작은금옥이는 휴게실로 들어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왔다.

사랑의 자욱을 따라 외 1 편

석광희

굽이굽이 산굽이
안개 흐르는 령길을 따라
툭아서 오르는 황초령
오를수록 봉이마다 생각은 깊어져
어느 한 산굽이도
내 무심히 지나칠수 없으랴

한잎 두잎 떨어지는 단풍을 싣고
마주오며 주알대는 중령천물도
그냥은 흘러갈수 없어서인가
굽이굽이 감돌아흐르다가도
여울목을 넘어넘어 소용돌이치는
가을빛 아름다운 이 산골길

이 길우에 꽃이 피고 눈이 내리고
다시 단풍지는 스물다섯해
세월은 멀리도 흘러갔건만
마음속에 뻗은 길이 여기 있어라
전쟁의 상처입은 강산을 안으시고
수령님 헤치신 사랑의 길이

가렬한 전쟁이 방금 끝난 그날에
찬서리 내린 령길우에 옷자락 날리시며
수령님 먼저 찾아주신 발전소복구건설장
아 그날의 그 자욱 따라
목메이는 생각속에 오르고오르는 황초령.

들을 지나 강을 건너
시원시원 달려오던 기관차마저
제힘만으론 더 오를수 없어
인클라인에 끌려서야 올라간다는
황초령도 중턱 험하디험한
발전소로 오르는 비탈길이어

인적드문 굽이굽이
수령님 오르신 이 길
이 령고개를 넘어
송전선은 줄줄이
온 나라에 뻗어가지 않았던가

아직은 너무도 어수선했던 그날
수령님 잡아주신 그 손으로
마사진 송전탑 무어올리고
수차도 맞추어놓은 마음들
그 마음 오늘도
굽이마다 어리여 붉게 타는가
단풍나무 설레는 이 길에 서니
그날이 어제런듯 감격도 새롭구나

산을 넘어 또 넘어
끝없이 이어진 온빛 고압선 따라
온 나라에 굽이치는 전류를 안고
두메의 외딴집 창문가에도
하나 둘 피어나는 등불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속에 우러러 다함없는
그날의 그 모습
웃으시며 걸으시던 수령님의 영상이여

황초령마루에 해 넘어가고
굽이굽이 산굽이 어둠이 깃든
령길을 따라
한굽이 또 한굽이 오를수록
더 가까이 더 찬란히 안겨오는
불빛의 바다-
전기로 수놓아진 락원을 바라보나니
저 불빛
기쁨어린 수천만 눈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빛나는것 같아라!

쇠가 단김에!

언제 보아도
흘린듯 보게 되는 소재감이다
빛깔도 알맞춤히
잘 익었구나
어서 처라
쇠가 단김에!

눈짓엔
눈짓으로 대답을 하고
몸짓엔
몸짓으로 대답을 하며
번개같이 내려치는 단조장이여

단김을 뿜는 불기운보다
가슴에서 뿜는 숨결이
더 세차게 굽이치는곳-
티없이 맑은 마음 아니고서는
함부로 모루앞에 설수 없으라
한점의 티도 없이 깨끗이 불탄
그대로의 불덩이가 놓여있거니

어려있어라 그 속에
쇠를 달구는 로앞에서
삼복의 찌는듯한 한더위쯤
더위로 느끼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친다
열번을 치고 백번을 쳐도
한번도 설때리지 않는다
성실성엔 성실성으로 대할줄 아는
그런 심장들앞에서만
불도 철도 길들여지거니

사람들이여
기대밑에 쌓이는 쇠밥이 적어질 때
그대는 읽게 되리라
단조공이 기울인 남모를 정성
소재속에 뜨겁게 깃들어있음을

그 어느 후날
우연한 만남이 있어
기계의 작은 부족 하나라도 매만질 때면
우리 가슴 궁지로 부풀어오르리
그 속에 단조공의 숨결 어려있기에

아 언제나
우리의 가슴 높뛰게 하는
공기마치의 담찬 울림이여
더 높이 울려라
조국의 더 큰 발구름이 되게

자, 단매에 처라
때리면때릴수록 굳어지는게
철이 아닌가!
쇠도 익고
우리의 심장도 한껏 달았다

티없는 그 쇠속에
영원히 녹을줄 모르는
단조공 우리의 의지가 있고
변함을 모르는 충성의 마음이 있나니
어서 처라
쇠가 단김에!
어서 처라
단조공의 마음 성차지 않구나!

그대 달려온 길을 두고...

리금녀

수수한 기관사 옷차림에
손장갑 벗으며
그는 차에서 내렸다
방금 넘은 양덕고개 찬바람
옷섶에 담은채

열여덟에 차에 올라
마흔여덟,
기관차와 더불어 서른해건만
자서전엔
철길우의 레사로운 나날이 몇 줄
적혀있다는 사람

물으면
한일 없이 나이만 든다며
버릇처럼 귀기울여라
차에 내려서도 기적소리 들어야
사는 보람 있다는 사람

피는 봄꽃 드는 단풍
반겨주던 길,
침묵을 뚫으며 운전법 익힌 령길
곶으로 늘어난 짐을 싣고
그대 앞서간 그 길로
얼마나 많은 기관사들이
무사고중송의 기적 높이 올렸던가

알고싶은 사연
철길에 다 물어둔듯
함께 달린 승무조동무들의 자랑만 하는
아, 어디서나 만나는
그는 평범한 사람

포연이 앞을 막는

준엄한 전선길로
싸우는 고지와 후방을 하나로 이으며
군수렬차를 맡아 혼연히 달린
그날의 20대 기관사여

5개년과 6개년에 이어
오늘에도...
나라의 설계도가 요구하는곳에
쉬임없이 물동을 실어나른 그대
온 나라에 준공식의 꽃보라 날리던 날에도
자기 한일 잊은듯
궤도우에 기적소리 울려가던 사람

철길우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쳐도
바라는곳, 바라는 사람들을 찾아
무사고 정시로 달린 사람이여
서른해를 하루와 같이
말없이 조국을 받들어올리며
양덕고개 구름길 넘나든 기관사여

한일을 두고 말수는 적어도
나는 지금 듣고있다
이 땅의 전진속도를 떠밀어주며
강산에 메아리쳐온 자랑찬 기적소리
새 7개년의 화폭을 펼치는 이 나라에
또다시 그대 울려갈 위훈의 기적소리를...

어디서나 만나보는
그는 보통사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대 달려온 길을 두고
친히 가슴에 빛내주신
금별의 수훈자
아, 그 이름 영웅기관사여!

포구의 한밤에 외 1 편

김영근

술발너머 부두가엔 밤과도 철썩
창문가엔 새벽달 기웃이 웃는데
날이 새면 철선타고 바다로 떠날
손자는 이밤 단잠에 들고

다정한 할머니는 배낭끈 다시 풀어
내이며 실바늘 하나라도 빼놓세라
정성들여 손자의 차비새 갖춰주며
늦도록 누울줄 모르네

가마솥엔 기름진 새벽밥 끓고
할머니 가슴엔 사랑이 끓고
뜨거워라, 이 밤
끝없이 깊어가는 할머니의 생각이어

사자밥 기다리는 《임당수》 거친 물을
쪽배로 헤치며 떠나가는
남편과 어린아들 눈물속에 바래우던
지난날이 자꾸만 어려와선가

사철 령감이 지켜사는 저 바다
선단을 거느리고 떠나간 아들
길들이며 넓혀간 충성의 배길로
오늘은 끝끝한 말손자를 바래우는
할머니의 그 마음

온 가정이 펼쳐나 바다를 지켜가도
바치는 충성이 적은것만 같더니
수령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남편과 아들손자 한 배길에 서는
아, 이 날에사
바다도 기쁨으로 설레어...

포구의 한밤은 깊어 깊어만 가도
손자의 단꿈을 지켜왔은 할머니
바다를 통채로
한가정의 살림처럼 떠맡겨주신
수령님의 큰 믿음에 가슴이 젖어오는가

술발너머 부부가엔 밤과도 철-썩
창문가엔 새벽달 기웃이 웃는데
한그물 추어내는 꿈을 꾸는듯
손자의 얼굴엔 웃음이 흐르고
할머니는 마음속에
온 바다를 뜨겁게 더듬어안아보고

아, 포구의 이 한밤
3대가 한 배길로 들어서는
어로공일가의 크나큰 기쁨
조국의 바다도 안고 함께 설레여라

공훈어로공

벌써 그 몇번

방송야회 불밝은 무대우에선

뜨거운 박수속에 그 이름을 불렀다

년간계획 넘쳐한 나이 많은 선장

꽃다발이 안겨질 영예의 제자리엔

젊은 어로공들을 높이 내세우고

그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름은 불러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아들딸 불러내어 한배길에 세우고도

평생을 넘나든 저 바다우에

너무도 빈구석이 많은것만 같다고

바다를 못떠나는 선장아바이

쪽배로 난바다를 떠돌던 그에게

기계배선단을 무어주시고

풍어의 배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그 믿음

대를 두고 지켜가는 공훈어로공!

아, 축하의 무대우엔 자리를 비웠어도

후더운 이 가슴엔 그가 서있구나

한배에서 키워낸 저 어로공들 모습에서

승엄하게 어려오는

아바이 그 얼굴-

그 누가 다 알랴

보람찬 삼백일출어의 나날

한가정의 다섯번째 당원이 되었다는

양식공 막내딸의 뜨거운 그 기별에

겹쳐오는 말손자의 생남소식도

만선의 배길에서

전파로 받았다는 아바이

쫓는 해 지는 달을 바다에서 맞고 바래우며

오늘도 풍어의 북소리 높이

고기떼를 후려내는

그의 거세한 숨결이런가

저 부두를 때려오는 흰파도 흰파도...

인민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 새길 때마다

뜨거움에 목메이는 그 마음

언제나 바다를 떠나지 않거니

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바다에서 지켜가는 공훈어로공

그는 사철 바다에서 살고있기에

사람들은 물에서 그를 알게 되는구나

조국은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는구나

조국애에 대한 생활적이며 사색적인 참된 시적형상

-서정시 《나의 조국》에 대하여-

현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삶과 인간의 존엄을 안겨주는 조국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조국을 불러 어머니품이라 부르며 무심히 외울수 없는 그 말속에서 자기의 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오늘과 미래를 그려본다.

최근에 나온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 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며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우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진실한 정서적체험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생동하게 안겨준 감동적인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자기의 생활적이며 사색적인 서정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어찌하여 그토록 어머니같이 정답고 귀중한것이며 살아도 그 품속에서 살고싶고 죽어도 그 품에 묻히고 싶은 그런 소중한것인가를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그토록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노래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 그 사상감정을 구체적인 생활적정서를 통하여 진실하게 일반화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에 표현된 애국심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인은 조국이란 과연 어떠한것인가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때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서정적주인공이 조국이라 표상하고 그린 이 시적형상은 실로 구체적이고 생활적이다.

여기에는 조국이라는 그 숭엄한 존재에 대한 어떤 추상화된 주석이 가해진것도 아니며 개념적인 일반화가 주어진것도 아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가장 소박하고 생활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정서를 통하여 그렇게도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사상감정을 훌륭히 일반화해줄수 있는것은 그의 감동적인 시적형상이 바로 자기의 시적형상의 특성에 맞게 개성화와 일반화의 형상작업을 독창적으로 하였기때문이다.

조국! 그것은 어머니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그런것이다. 그만큼 조국이란 가장 일반성을 가진 대상이면서도 매우 절절한 인간의 생활감정과 잇닿아있다.

시에서는 바로 이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조국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가만히 불러도 누구나 다 눈굽이 젖어들고 솟구치는 그리움을 참을수 없게 하는 소중한것인가를 훌륭히 시화할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라

이 일반적인듯하면서도 생동하고 생활적인 인간정서의 표현속에는 진실성이 넘쳐흐른다. 그렇다! 조국이란 사람들에게 나서부터 안겨지는 생의 요람이며 그 어느때부터라 없이 간직된 삶의 젖줄기이다.

이렇듯 시에서는 조국을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파악하였다. 그것은 동구밖 오리나무숲과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이며 송아지때 풀을 뜯는 언덕과 그 언덕너머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이 있는 고향마을의 정든 집과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다정하고 친근한것이다.

이런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정서는 그 누구에게도 가슴 사무치게 받아안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전형적인것이기도 하다.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것이면서도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슴뜨겁게 안겨지는 조국! 그 두 글자속에 깃들어있는 생동하고도 진실한 사상감정을 가장 소박하고 구체적인 인간정서로 탐구하고 파악한 여기에 바로 서정시 《나의 조국》의 시적형상의 감동성이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조국을 노래하면서 결코 정치적표현을 많이 쓰거나 사상성만을 로출시킴이 없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빛나게 노래할수 있는것은 이렇게 그의 시적대상에 대한 사색과 탐구에 의하여 그것을 가장 생활적이면서도 전형적인것으로 시화할수 있는데 기인한다.

가장 구체적이고 생활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안겨지는 조국에 대한 정서적표현은 이 작품의 전편을 흐르고있는 기본특징이다.

그의 진실한 사상감정은 단순한 고향의 정든 집과 다심한 어머니품의 세계에 그치지 않으며 더욱 크고 소중한 사상감정으로 승화되어가면서도 의연히 자기의 다정다감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땅아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정녕 조국은 사람들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 어머니이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을 줄 때에도 자기것이고 슬픔과 고통을 줄 때에도 자기것이고 죽어서도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하는 정든 고향,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다.

실로 서정시 《나의 조국》에 노래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생활적인 인간적감정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예술에는 감정과 결합되지 않은 메마른 사상이 있을수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개념에 불과하다고 밝혀주면서 예술에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와 결합된 사상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었다.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사상이 고상한 정서와 결합되게 된 독창적인 시적세계는 그 고상한 정서를 불러일으킨 표현들이 누구의 가슴에도 가장 진실하고 소박하게 안겨울수 있는 서정으로 소박하게 노래되고있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사람들의 애국심은 자기 고향산천과 고향사람들, 자기 부모처자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자기 나라 력사와 지리에 대한 애착으로 인간들의 심장속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상감정이다.

시는 바로 조국을 고향마을의 오리나무숲과 여울물 흐르는 들길과 고향땅에 사는 웃음어린 녀인들과 처녀들의 그윽한 눈길에서 보았으며 지난날에 살아온 력사에서 보았고 오늘의 존엄있고 장엄한 기상에서 보았다.

이 구체적이고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감정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일반화할수 있었다는 여기에 바로 서정시 《나의 조국》이 서정시로서의 독창적인 탐구가 있으며 시로서의 새로운 맛이 있고 감흥이 있다.

이 시가 한번 읽고난 다음에도 다시 읽고싶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해 다니면서 외우고싶은 충동을 주는 까닭은 바로 시의 사상이 가장 소박하고 진실하고 생활적인 정서를 통하여 노래됨으로써 어머니가 있고 고향이 있고 겨레의 력사가 있고 조국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서에 다정하게 안겨지기때문이다.

소박하고 생활적인것과 진실하고 철학적인것의 유기적결합은 서정시 《나의 조국》의 여운을 낳은 결정적조건이며 읽으면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원인으로 된다.

그러기에 시에서 조국에 대하여 보다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 사상감정까지도 독자들의 심장속에 또 뜨거운 정서로 그대로 안겨진다.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잇닿아 있다. 우리는 자기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
심으로써 비로소 빼앗겼던 조국을 외래제국주의
자들의 마수에서 찾을수 있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인민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
진 인민으로 되었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의 품은 그것이 곧 아버지
이수령님의 품이며 그 품은 우리의 삶과 궁지가
담겨져있는 영원한 품이다. 바로 이것이 이 작품
의 사상적핵, 종자라 할수 있다.

작품에서 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과 다심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품, 그리운 조
국의 푸르른 하늘과 찬란한 우리의 미래와 결합
시켜 하나의 정서속에 노래됨으로써 우리들의 가
슴속에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구체적
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차넘치게 한
다.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아버지수령님과
조국은 온 겨레의 삶이고 그 무궁한 미래이며 영
원토록 안겨살 가장 신성하고 숭고하고 자애로운
품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인들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할
뿐아니라 시작품의 서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서정시가 그 짙막하고 작은 그릇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상적내용을 담을수 있는것은 현실
에 대한 뜨거운 정서적체험의 세계를 힘있게 표
현해줄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방식을 가
지고있기때문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에 노래된 조국애에 대한
사상적내용이 사람들에게 뜨겁고 다정다감하게
안겨오는 다른 중요한 까닭은 바로 시형사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풍부한 시적형상속에 노래
한데 기인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간직되고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풍만한 서정속에 노래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조국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시에서는 과연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그다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항시 잊을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가슴부풀게 하고 솟구치는 그리움
을 불러일으키는것인가를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형상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감정조직을
잘 하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며 같은 작품도 감정조직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며 형상의 질이 좌우
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시의 첫시작부터 사람
들의 사상감정을 깊은 사색의 세계으로 서정적으
로 이끌어주도록 감정조직이 잘되어있다.

시에서 《조국여, 너는 무엇이기에》, 《조국
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라는 표현은 작품의
감정조직에서 일정한 단락을 보이면서 그 서정
을 심화시켜나가는 시구들이다. 이 물음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표현해주는 시구조는
그것자체가 벌써 사람들에게 풍부한 서정을 불
러일으킨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이와 같이 수사학적물
음으로 자기 서정의 흐름을 몇단계 고조시켜감으
로써 자신의 사상감정을 점차 심화시켜나가고있
으며 그것을 일층 고조된 단락으로서 보다 더 심
화시키고있다.

그러므로 서정시 《나의 조국》은 서정시의 전
반부에서 서사적인 계기를 주고 그에 기초하여
서정을 토로하는식의 류형적인 구성을 답습하고
있지 않다.

시는 시작부터 조국에 대한 인간감정을 진실하
고 소박하게 노래함으로써 작품전체를 서정성으
로 충만되게 하였다.

그것은 수사학적물음으로 시작된 시련에서조차
결코 어떤 개념적인것을 표현한것이 아니라 조
국에 대한 사람들의 구체적감정을 예술적으로 일
반화하고있다.

시에서는 자기의 독특한 시적표현으로써 조국
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절절한 서정속에 끌어
들인다.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 젖어드는것이나

이와 같은 절절한 호소는 시의 중간에 가서 더욱 심화반복된다.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젖고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 가득 너를 그리안고 갔더나

실로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라는 수사학적물음의 시구와 그 시련은 풍부한 서정속에 깊은 사색이 깃든 빛나는 시구, 시련들이다. 서정과 사색이 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그 시련을 읽고 또 읽으며 깊은 서정속에 많은것을 생각한다.

정서적체험은 결구에도 치달아오르는 마지막 단락의 허두에서 가일층 고조되기 시작한다.

오, 조국이며 조국이며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시에서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사색적으로 해명하고 다시 더 절절하게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더 깊은 감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생활의 본질과 인간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에대한 체험이 가슴을 치도록 뜨겁고 진실하기때문에 이 시는 운문시로서의 고유한 맛도 주고 산문화의 결합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이 시에서는 서사적인 요소를 노래하는 경우에도 그거이 단순한 서사적묘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는것을 보여준다.

서정시에서 서사적요소는 어디까지나 시적으로 파악되고 서정적인 사상감정으로 시화될것을 요구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에 노래된 정은 고향마을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시경은 얼마나 서정적인가! 눈덮인 이국의 광야나 비내리는 타양의 부두도 사람들의 심리를 흔드는 서정적인것이다.

가는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끓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이와 같은 우리 영웅적현실의 웅장한 시경조차 그것은 모두가 서정성으로 총만되어 사람들의 심장속에 보다 많은 사색과 감동을 안겨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뜨거운 서정이 맥박치는것이기에 그의 시적표현에 있어서도 수사학적인 질문과 부름, 감탄을 허다히 동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시에서 수사학적인 질문, 부름, 감탄들은 시의 서정을 류달리 풍부화해주면서 서정시에 체현된 품위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자기의 서정성을 풍만하게 할수 있는것은 조국을 의인화하여 노래한 사정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시에서는 조국을 한갓 개념적으로 표상한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파악하였기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의인화하여 노래하였으며 이 의인화의 형상수법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서정을 안겨줄수 있었다.

이것으로 하여 시는 또한 조국에 대한 고상한 사상을 정서적으로 안겨주면서 결코 정치적표현을 직설적으로 쓰는 현상과 자기를 구별할수 있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시문학의 높은 예술적 형상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까닭은 또한 그의 시적언어형상의 예술성과 적지않게 관련되어있다.

《나의 조국》의 시적언어형상은 가장 세련된 정서적인 시어들과 현대자유시의 품위있는 운률에서 훌륭히 나타난다.

그것은 구체적인간감정을 감성적으로 계발시킬수 있는 시어들에서뿐만아니라 조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시어를 잘 쓴데서 여실히 나타난다.

송아지때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이것은 구체적인 생활적시어들이다.

사람들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시어는 일반화된 사상감정의 표현에서도 그대로 빛나게 쓰이고 있다.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한줄 흠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내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이런 표현은 결코 사상의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면서도 그의 비유와 상징이 포괄적성격을 가지는 언어기교로 하여 그 사상정지성을 충분히 표현해주고있다.

실로 서정시 《나의 조국》에 많이 쓰이는 비유와 상징들은 시어들을 함축시키고 탄력성있게 해 줄뿐아니라 시에 풍부한 여운을 남겨주면서 시를 시대정신의 넓은 무대로 전환시켜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에 운율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고 밝혀주었다.

시의 언어는 그것을 련결해놓아도 보통문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음악적흐름이 있어야 한다.

시의 운율은 시의 음악적흐름의 표현이며 그것은 자체의 언어음조로써 말이 전달되고 내용이상의 사상감정을 사람들에게 감득시켜준다. 그것은 언어의 운율적음조가 사람의 일정한 사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속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의 산문화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을 강화하고 작품의 서정성을 넘쳐나게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시의 언어를 운율적으로 다듬는것은 시의 사상감정을 더욱 감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그의 사상정서가 풍부 한것으로 하여 언어표현도 운율적으로 흐를수 있는 기본바탕을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그의 시적 언어표현의 세련성으로 하여 그것을 더 훌륭하게 나타낼수 있었다.

이 시의 시행 단위들은 현대자유시의 특성과 관련하여 결코 어떤 고식적격식과 틀을 가지지 않고 길고 짧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로 련결시켜놓아도 세련된 시적표현을 안겨지며 사람들의 호흡물에 순탄하게 오르면서 류창하게 흐른다.

시작품이 눈으로 읽어가는 문학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읊어야 하는 문학인 탓으로 하여 이런 호흡들에 잘 오르는 시문장은 서정시작품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이 시의 시행들이 정형시와는 달리 고르로운 격식을 밟지 않으면서도 호흡물에 잘 올라 흐르는것은 그 시구가 외토리 짝을 잃어버린 거친데가 없어 내외시구의 균형적인 대응관계로 순탄하게 쉼어졌기때문이다.

시는 반복법과 뒤바꿈법, 병렬법과 수사학적물 음법들을 씌으로써 시 전체의 음악적인 흐름에 더욱 풍부한 음악성과 련관성을 부여하여 자체의 정서를 강화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많은 독자들에게 애독 되고 그것이 암송되고있는 까닭은 이와 같이 그의 언어표현의 음악성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진정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안겨주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는 참다운 삶의 보금자리이다.

그것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우리모두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긍지높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인상에 오래 남도록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으로서 그 품에서 생을 누리는 우리들을 더욱 뜨거운 조국애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준다.

서정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가 하는것은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이 훌륭히 구현된 시 《나의 조국》과 같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에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의 다정다감한 인민들은 오늘 서정시 《나의 조국》과 같은 시작품을 더욱 많이 써줄것을 시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가꾸는 마음

김봉식

1

전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새로 배치되어가는 최경숙이 읍을 떠나 리로 가는 뺨스에 몸을 실은것은 한낮이 좀 지나서였다.

창문가에 자리를 잡고앉은 그는 그림처럼 펼쳐진 봄의 들판 전경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내가 과연 관리위원장으로서는 제구실을 해낼가?)

며칠전까지만도 이웃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자기가 너무도 큰일을 걸머진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산굽이를 돌아서니 길가에 《전곡협동농장》이라고 쓴 패말이 나졌다. 이제부터 자기가 일하게 될 농장의 포전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땅이 더욱 살뜰하고 정다와보이며 한시바삐 밟아보고싶은 생각이 가슴에서 소용돌이쳐왔다. 그래서 경숙은 운전사에게 이야기하여 도중에서 내렸다.

경숙은 흙밭이를 방금 한듯싶은 포전길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자기도모르게 하늘색 들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앉으며 흙을 한웅큼 쥐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눈에는 밝은 웃음이 어렸다. 봄의 훈향과 함께 대지의 청신한 정기를 뿜는 흙내는 언제 말아보아도 취하도록 좋았다.

다정한 눈매로 듬뿍이 쌓인 거름무지며 물이 그득찬 굴포를 둘러보던 경숙은 문득 이 밭이 지난해 군방식상학때 밟아본 박승철반장네 포전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자기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별에 그을은 승철반장의 네모진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승철은 열성이 높고 손탁이 센것으로 알려진 반장이었다. 경숙은 이런 미더운 직업반장과 손을 맞잡고 땅이 푹 꺼지게 곡식을 가꾸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다. 다만 일부 밭의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돌가담을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있는것이 다소 불만스러웠다.

둔덕아래쪽에서 《이라 찢찢!》 하고 새된 녀인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경숙은 소리난곳을 언뜻 바라보았다. 큰길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작은 길 옆도랑에 웬 녀인이 달구지를 빠뜨리고 혼자서 애를 쓰고있었다.

밤색숨저고리에 흰 목수건을 두른 녀인은 소고

뺨를 잡고 회초리로 소궁둥이를 철썩철썩 갈긴다.

누렁소는 영각을 하며 받툭끝으로 땅을 허비나 달구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경숙은 얼른 달려가 달구지뒤에 붙어서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달구지는 움쩍도 안하고 바뀌는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아주머니 안되겠어요. 짐을 부리고 달구지를 뽑아내자요.》

경숙은 복사뺨까지 감탕에 빠진 발을 뺨으며 소고뺨를 잡고 씨근거리는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쉬운줄 알면서두 시간이 바쁘구 해서...》 하며 아주머니는 경숙이를 돌아다보았다.

그러다가 경숙이 밭목까지 흙탕으로 매닥질한것을 보자

《에이구, 밭을 적셨구만, 저걸 어찌노.》 하고 허를 찼다. 경숙은 달구지에서 큼직한 솜보따리를 내리놓고 비료포대를 안았다. 그것을 본 아주머니는 《놔두우, 옷이 더럽겠소.》 하며 달려가 만류했다.

《일없어요. 그런데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지름길에 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세요?》

《읍에 나가는길에 부탁했던 이불숨을 가져오느라구 시간을 좀 지체했다우. 그래서 그것을 벌충해볼가 해서 지름길에 들어섰는데 그만... 흠 떼려던 노릇이 도리어 흠을 붙였수다. 쫓쫓쫓.》

달구지를 끌어낸후 다시 짐을 들어실던 경숙은 솜보따리우에 덧논인 함박꽃무늬 돈은 빨간 양단이불감을 보며 물었다.

《잔치가 있는가보군요.》

《딸애가 올가을에 시집간다우.》

《농장에서 일하는가요?》

《아니 선생을 하는데 외지에 나가있다우.》

경숙은 그가 자기네 농장원임을 알아보고 어느 작업반이냐고 물었다.

《1반이라우.》

《그럼 박승철반장네 작업반이구만요.》

《우리 계사니반장을 아우?》

《계사니반장이라니요?》

《입을 벌리면 소래기 지르기를 좋아해서 그렇게들 부른다우.》

아주머니는 비양조로 말하며 경숙이더러 손을 씻으라고 개울을 가리켰다. 경숙은 개울에 가 무

를을 꺾고 앉아 손을 씻으며 방금 아주머니가 한 말을 되새겨보았다. 무심히 흘러버릴수 없는 말이었다.

《게사니반장.》이라고 하는 그 어조에는 반장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 무엇이 다분히 깔려있었다.

이때 신작로 저쪽에서 한대의 트랙포르가 달려오다가 푹 멈춰섰다.

《아니, 그 길로는 짐 실은 달구지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우?》

탁 내쏘듯한 거칠은 소리가 날아왔다. 경숙은 언뜻 머리를 들고 돌아보았다.

트랙포르운전칸에서 중키에 어깨가 짙 벌어지고 다부지게 생긴 중년의 사나이가 뛰어내렸다. 승철반장이었다.

《길이야 다니라고 냈지 보라구 낸거요.》

아주머니는 그에게 등을 돌려대며 언짢게 대꾸했다. 그의 가시돋친 밑에 승철반장은 빨갛이 동안듯

《뒤편구요?》 하며 다가왔다. 달구지곁에 이른 승철반장은 비료포대우에 실린 솜보따리를 보자 대뜸 눈가를 치뜨면서

《순녀아주머닌 또 장을 보았군. 그래서 지체하고서도 대꾸질이요!》 하고 피대를 세웠다.

《모로 가든 곧추 가든 아침에 하란대루 두축 나르면 되지 않소.》

옥박지르는듯한 말투에 속이 토라진듯 아주머니는 발끈 성을 내며 엇섰다.

《얼어붙은 모판자리를 녹일 망채도 실어내야 하지 않겠소.》

《아니 트랙포르는 아꼈다가 뒷에 쓸라우?》

《자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샷대질은... 하라하면 하라는대로 하우다.》

승철반장은 역정을 냈다. 반장의 시퍼런 얼굴을 마뜩지 않은 눈초리로 힐끔 쏘아본 아주머니는 입을 비죽거리며 회초리로 새김질하는 소의 궁둥이를 철썩 갈겼다. 외팔 놀란 누렁소는 일을 막아선 반장을 뿔로 떠받을듯이 대가리를 휘 내저으며 후닥닥 네굽을 놓았다. 아주머니는 치마바람을 일구며 그뒤를 쫓아갔다.

기겁을 하며 길에 비켜선 승철반장은

《야단났군, 한마디 하면 두세마디 대꾸질이니 어디 말이 먹어들어가야지...》 하며 혀를 찬다. 그러다가 길에 나서는 경숙이를 보자 얼굴에 화색을 띠우며 달려왔다. 경숙은 반갑게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시우. 모두들 오후 빠스로 오는줄 알고있는데...》

《아까 빠스로 오다가 포전을 돌아보고싶어 도

중에서 내렸어요. 비료를 실어들이는가요?》

《네, 자동차, 트랙포르, 달구지 할것 없이 다 동원했수다.》

《달구지 끄는것을 녀자들에게 맡기질 말걸 그랬어요.》

《고양이손포도 빌리고싶은 때에 그걸 다 가리면서 비료는 어느 하가에 나릅니까.》

승철반장은 당치 않은 소리라는듯 별에 그을은 네모진 얼굴을 가로저었다. 경숙은 몇마디 더 나눈후 그를 떠나보냈다. 갈길이 바쁜 트랙포르를 길가에 세워놓고 한정없이 이야기판을 벌릴수 없었던것이다.

승철반장과 헤어진 경숙이의 두눈엔 그들이 지나갔다.

2

곰덕산우에 낮게 드리운 열레달이 깊이 잠들고 있는 마을과 들판을 희유스럼히 비쳐주고있는데 줄음이 무겁게 실린 못별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있었다.

꼬꼬! 하고 닭이 해치는 소리가 주절주절 흐르는 여울물소리를 타고 단잠에 든 마을을 가볍게 흔들어놓는다.

이런 새벽에 경숙은 질통을 지고 승철이네 포전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곰덕산밭에 남아있는 돌각담을 마저 들어내기로 했던 것이다. 종합적기계화를 하자면 우선 그 돌각담을 들어내고 토지정리를 해야 했다.

조용히 걸어가는 경숙이의 눈앞인 어제 관리위 원회에서 돌각담문제를 제기했을 때 승철반장이 난감한 빛을 띠우며 그러지 않아도 일이 겹치고 덮쳐 바빠 돌아치고있는데 그 일까지 벌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시답지 않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일이 쉬이 되지 않을것 같은 예감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했다.

경숙이가 언덕길을 넘어 1작업반마을에 들어섰을 때 전등을 바깥창문우에 내다걸어놓은 집이 나타났다.

불빛이 환한 마당에 짚단이 무독히 가려져있는데 그앞에서 밤색숨저고리를 입고 얼굴에 양털목도리를 두른 순녀아주머니가 뜸나래를 엮고있었다. 벼짚을 짬짬히 섬기면서 부리나케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순녀는 결눈 한번 팔지 않는다.

(부지런하구나!)

경숙은 속으로 되뇌이며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저런 아주머니가 어떻게 되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코있는지 알수 없었다. 승철반장이 순녀에 대하여 하던 말이 떠올랐던것이

다.

승철반장의 말에 의하면 순너는 성깔지고 입심이 사나와 반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있으며 모든 일에 리속부터 먼저 따진다는것이였다.

경숙은 생각을 더듬으며 포전으로 나갔다. 아직 나온 사람은 없었다. 돌각담에 질통을 내려놓은 경숙은 돌을 주어담아 길이 패인곳에 내다버렸다.

통통통.

프락포르 굴러오는 소리가 세벽대기를 타고 날아왔다. 이윽고 부식토를 가득 실은 프락포르가 다가오는데 운전간에는 승철반장이 앉아있었다. 승철반장은 질통으로 돌을 나르고있는 경숙이를 보자 민망한 얼굴로

《위원장동무, 내 제격 부리고 오리다.》 하고 말하며 지나갔다.

올해엔 기어이 대풍을 안아오겠다면서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많이 밭에 내가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승철반장을 바라우며 경숙은 생각이 깊어졌다.

최근 몇해동안 승철작업반의 알곡수확고는 크게 뛰여오르지 못하고있었다. 해마다 흙갈이도, 땅소독도 했고 비료를 제때에 주고 김도 제 회수대로 댔다. 그런데도 왜 자리를 크게 내디디지 못하는가.

어느덧 어둠이 밀려여가고 마을과 산과 개울이 서서히 자기의 료박을 드러냈다. 농장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숙은 그들속에서 순너의 갱뽕한 얼굴을 찾아보았으나 없었다.

승철반장이 프락포르를 몰고 돌아왔다. 돌각담결에 프락포르를 세우고 뛰어내린 승철반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미간을 모으며

《절반도 안나왔군...》 하고 중얼거리였다. 그러다가 방금 질통을 지고나와 머뭇머뭇하는 처녀에게 눈을 흘뜨며

《이왕 나을바엔 좀 일찌김지 나을게지 이제 나와!》 하고 통을 놓았다. 처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사람들의 뒤로 숨어버렸다.

승철반장은 적재함에 돌을 주어실어주면서 경숙에게 꾸념하듯 말했다.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디 나와줘야말이지요.》

《첫술에 배부르겠나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요. 아까 나오면서 보니 순너아주머니는 벌써 일어나 나래를 엮고있던데요.》

《모를리가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주머니 나오지 않을거우다.》

《아니 왜요?》

《몇해전까지만 해도 하루두 빠짐없이 아침마다 주는 개자리를 농장에 한꼬투리도 들여놓지 않고 다 자기 터밭에 친 아주머니였다는것을 알면 이번 일에 나오지 않는 까닭을 짐작할수 있을거우다.》

《전에 그랬다구 지금도 그렇겠어요.》

그 말에 대꾸없이 적재함을 힐끔 본 승철반장은

《그만들 실으라구, 물러앉겠네.》

하고 말하면서 운전대로 갔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것이 있는듯 돌아서서

《위원장동무, 이 일에 로력공수를 줍시다. 그러면 순너아주머니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그렇지 않구선 씨불임전에 죄다 들어내기 어렵수다.》 하고 말했다. 경숙은 머리를 저었다.

《물질적자극을 주는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똑바르 알면 왜들 나오지 않겠어요. 순너아주머니도 나오니다.》

《순너아주머니가요?》

승철반장은 채머리를 흔들며 운전대에 올랐다.

일을 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숙이의 생각은 무거웠다. 승철반장은 왜 순너아주머니가 나오지 않는것을 당연한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고쳐줄 생각을 안하는지 알수 없었다.

아침식사를 마친후 경숙은 관리위원회에 들렀다가 승철반장네 포전으로 나갔다. 다른 작업반에 가보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아침에 있는 일도 있어 작업반의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싶어서였다.

포전에서는 벼씨뿌리기가 한창이였다. 새끼줄로 모판자리를 긋고있는 맞은편에서 거름을 퍼고 콤배로 고르고있었다. 그너머에서는 락종기를 굴려 벼씨를 뿌리고있으며 씨뿌리기가 끝난데서는 활창대를 박고 비닐박막을 덮고있었다. 네모진 채를 든 순너는 벼씨를 뿌린 우에다 흙을 치고 있다.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흥성흥성한 일판을 돌리본 경숙은 안쪽구석에 무드기 쌓인채로 있는 강냉이속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

경숙은 저도모르게 눈귀를 치떴다. 그쪽편 땅이 얼어서 녹이려고 실어내온것인데 아직도 불을 지펴놓지 않았기때문이다. 아침에 나오자바람으로 했어야 땅이 풀어져 씨뿌리기를 할수 있을것이였다. 그러니 자칫하면 오후에 벼씨를 뿌릴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왜 일을 이렇게들 하는가.

《왜 저 강냉이속을 퍼고 불을 놓지 않았나요?》

하고 경숙은 물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앞에서 곰배를 놀리는 아주머니도 그결에서 락 종기를 굴리는 농장원도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기 꺼려하는것이 분명했다.

저쪽편에서 복토를 하던 순녀가

《아니 왜들 갑자기 입에나 자물쇠를 채웠나.》
하고 그들을 타발하고나서 말했다.

《반장이 하라는 말도 없는데 불을 놓았다가 어제처럼 생벼락을 맞을려구 하겠소.》

《무슨 일이 있었게요?》

《어제 저 옷배미의 언땅을 녹이려구 탈곡장에 가서 강냉이숙을 가져다 불을 지켰다우. 그러자 반장이 달려와 누가 시키지도 많은 일을 제멋대로 했느냐고 길길이 뛰면서 이만저만 성이 나지 않았소.》

《왜요?》

《배합사료를 하는데 쓰는거라우. 그러니 아는데 하며 중뿔나게 나서지 말고 보고도 못보는체하고 굵석굵석하면 욱 안먹고 여북 좋소. 하라는 일도 다 못하겠는데.》

경숙은 눈시울을 모았다. 그의 말이 어느 정도로 진실인지 알수는 없었다. 하나 땅을 녹여놓아야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펴놓지 않은 일은 바로잡아놓아야 했다.

《아이참,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일이야 우리모두가 주인이 아니야요. 자 이제 곧 퍼놓구 불을 놓자요.》 하며 경숙은 제 먼저 삼을 들었다. 순녀아주머니도 채를 놓고 따라갔다.

강냉이숙을 반나마 퍼자 경숙은 아래배미에 내려갔다. 때마침 이웃분조포전을 돌아보고 바람막이 바자안으로 들어서던 승철반장은 강냉이숙을 퍼놓고있는 순녀를 보자 눈귀를 치뜨며

《아니 뭘했기에 이제사 퍼우?》 하고 역정을 냈다. 그러자 순녀는 용수철 튀듯 벌떡 일어서면서
《언제 하라구 했소!》

하고 암광진 소리로 반문했다.

《뭘요?》

승철반장은 눈살에 콧웃해서 순녀를 쏘아보며

《참 코막고 답답들하구만. 무슨 철부지라고 이래라저러라 하고 일일이 대주어야 하겠소. 좀 채심해서 일들 하라요.》 하고 말했다.

《잡아먹을건 돼지라구 이건 하면 했다구 욱을 해, 아니하면 안했다구 타발해, 어느 장단에 춤추어야 하노.》

순녀는 뒤로 돌아서며 들으란듯이 빈정댔다. 뱀굴이 동하여 생당썩을 씹은것처럼 오만상을 한 승철반장은 한마디 짜붙이려다가 잉결불을 삼에 달아가지고 들어서는 경숙이를 보고 입을 다물

었다.

경숙은 승철반장의 사업작풍을 놓고 생각해볼지 않을수 없었다. 승철반장은 일욕심이 높고 열성도 많으며 부지런했다. 그런데 왜 반원들과 호감이 맞지 않는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었다. 농장원들은 집으로 갔다. 경숙은 그들의 뒤에서 승철반장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냉이숙을 지시가 없다고 해서 불을 놓지 않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단났수다. 주인답게 일들 해야말이지요. 그래서 좀 말하면 입은 살아서... 위원장동무도 보셨지요. 순녀아주머니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하지만 그것은 반원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보다는 반장동무의 사업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승철반장은 웬소리나는듯 경숙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다가 쓸쓸한 기색으로

《생각해봅시다.》

하고 석연치 않은 어조로 말했다.

3

저녁에 경숙은 승철네 작업반에서 하는 기술학습회를 보려고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선전실에 갔다.

불빛 밝은 창문너머로 토양분석, 시비방법, 살충제리용법 등 갖가지 그림들과 직관물이 걸린 방안을 들여다보니 산뜻하게 옷차림을 한 농장원들이 앉아있었다.

《아직 학습을 시작 안했구만요.》

경숙은 마중나온 승철반장에게 물었다.

《다 오지 않아 데리러 사람을 보냈수다.》

《누가 안왔어요?》

《누군 누구겠소, 순녀아주머니지. 기술학습에 빠지는것쯤은 여반사로 여기우다. 작년에도 기술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강냉이인공수정을 대충해서 말썽을 일으켰수다. 그래서 올해엔 기어이 참가시키려고 하는데... 아 저기 데리러 간 동무가 오는군.》

어떻게 됐니?》

승철반장은 때마침 어둠속에서 나타난 처녀에게 물었다.

《집에 없습시다.》

《없다구. 이 아주머니가 기술학습이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데로 싸다니고있어!》

《무슨 급한 일이라도 갑자기 생긴게 아닌가요?》

경숙은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해야 할게 아니요. 나두 위원장동무 말을 듣구 생각되는것이 있어 그 아주머니에게 되도록 모가 나지 않게 대하려고 애쓰는데 이건 그럴수록 더더욱 제노라고 하니... 이번엔 좀 단단히 말해주어야겠수다.》

《그럼 기술학습을 시작하세요. 내 좀 가보겠어요. 지금쯤 돌아왔을지도 모르니. 집에 있으면 곧 보내겠어요》

하고 말한 경숙은 그곳을 나와 순녀네 집으로 갔다.

부엌에 불이 커있기에 순녀를 찾으니 대답은 없었다. 경숙은 문을 열고 들어가보았다. 식기들로 가득찬 주자빚식장이며 그우에 보기 좋게 가려놓은 여러가지 색비닐버치, 기름기 도는 가마와 티끌하나없이 깨끗이 거둔 부뚜막이 안겨왔다.

경숙은 눈길을 돌려 열어젖힌 미닫이문사리로 굴빛장판을 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벽쪽으로 옷장과 이불장이 가지런히 놓여있으며 벽시계와 고성기가 걸려있는 바깥벽아래에 술이 달린 보를 썬 낮은 책상과 재봉기가 놓여있다. 방구석에 채 꾸미지 못한채 접어놓은 새 이불이 있었다.

남부러울게 없이 갖춘 살림을 본 경숙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가마목에 있는 밥사발이 웬일인지 눈을 끌었다. 그래서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피로에 지쳐 돌아온 순녀가 그 찬밥으로 저녁을 에우고 불을 때지 않은 구들에 그냥 누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자기자신도 교편을 잡고있는 남편이 출장을 가 집에 없을 때 포전에서 늦어돌아오면 그럴 때가 있었다. ,

그러자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다. 만약 남이 아닌 언니네 집에 와서 이런 경우를 보고 그냥 돌아설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들었다. 그때엔 불을 때서 따끈한 밥과 더운 국을 끓여놓고 언니를 기다리었을것이다.

그러면 왜 순녀아주머니 집에선 그대로 돌아서려고 하는가.

남이라고 해서?

일순 경숙은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뜨거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기에게 관리위원장의 어려운 중책을 맡겨주신것은 책상을 지키는 《장》이 아니라 농장의 참다운 주인으로 농장원들을 위해 일하라고 하신것이다. 그런데 그 신임은 저버리고... 불을 지피 구들을 덥히고 밥도 안치고 해서 기다렸다가 아주머니를 만나보고 가자!

경숙은 아궁에 불을 지피려고 나무난가리로 갔다. 나무난가리는 높지 못했다. 아궁에 불을 때고

쌀을 가마에 안치였으나 순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무료히 앉아서 기다릴수 없어 경숙은 순녀가 하다 만 이불을 마저 껴매려고 구들에 올라갔다.

빨간 양단에 함박꽃무늬 오른 이불등을 새하얀 솜우에 퍼고 한층한층 누벼가는 그의 눈앞에 외동딸의 행복을 바라며 바늘을 놀린 순녀의 기쁨에 겨운 얼굴이 사물거렸다.

바깥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불이 켜있는것을 보니 있긴 있군.》 하는 소리가

났다. 승철반장이였다. 빠른 발자국소리에 이어 《순녀아주머니 있소?》

하며 부엌문을 활짝 열고 승철반장이 들어왔다.

무심히 문턱을 넘어선 승철반장은 구들에 앉아있는 경숙이를 보자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었다.

《아니 위원장동무가 어떻게?》 ,

《순녀아주머니를 기다렸다가 만나보려고... 기술학습은 끝났는가요?》

《네-》

이불에 마주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승철반장이 몹시 쑥스러워하는것을 본 경숙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집집들에서 뭘나무를 어느 정도로 마련하고있는지 알아보았나요?》

《일이 바빠 미처 몸을 빼지 못해서...》

《씨불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에 돌아보고 미리 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서도 떨어저가고있어요. 》

《순녀아주머니야 나무할 짬이 없을라구요.》

말꼬리를 뽑으며 경숙이의 얼굴을 힐끔 본 승철반장은 《알겠수다.》 하고 마음차지 않는 얼굴로 한마디 하고 돌아갔다.

마지막땀을 놓고 실을 끊은 경숙은 이불을 차곡차곡 포개서 이불장에 올려놓았다. 순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경숙은 하는수없이 집을 나섰다.

뭇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은하수가 차갑게 비졌다. 밤이 깊어서인지 날씨는 급격히 차져 으슬으슬 추워났다.

풀안을 빠져나와 큰길로 달려가던 자동차가 멈춰섰다가 다시 달려갔다. 이어 그쪽에서 누군가 총총히 마주 걸어온다. 그를 알아본 경숙은 금시 두눈을 빛내며

《순녀아주머니가 아니세요?!》 하고 물었다.

《누구요?》

이몸을 뚝뚝 맞조으며 허곤어진 소리로 되묻는 순녀의 몸에서 찬기운이 풍겼다. 이제 그 차에

서 내린 모양이었다.

《경숙입니다. 어데 갔다 오세요?》

《관리위원장이요?! 안골에 갔다온다우.》

안골은 40리 떨어져있는데 순녀의 남편은 그곳에서 꿀벌을 치고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밤중에?》

《일이 있지 않으니문사 그 먼데로 뵈하러 가겠소.》

그의 토라진 소리에 경숙은 미간을 찡그리었다.

《아주머니, 오늘밤 한 일은 잘못된것 같아요. 왜 가면 간다고 말하지 않는가요. 그바람에 작업반에서 아주머니를 찾느라고 사람들이 뛰었어요. 그렇게 하면 반장동무인들 어떻게 일해나가겠나요. 기술학습은 참가하고싶으면 참가하고 말고싶으면 마는게 아닙니다. 이젠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시대여서 모르고는 못합니다.》

경숙이의 말은 비록 낮고 조용했으나 날카로웠다.

《알겠수.》

순녀는 한풀 꺾이여 말했다. 사리정연한 그 말에 엿설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분하고 유순한 경숙이가 기술학습에 어찌다가 빠진것을 가지고 이쯤 말하는것으로 보아 또 데 설곳은 승철반장이 복새를 피웠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들었다.

경숙이와 갈라진 순녀는 집으로 잔걸음을 놓았다. 작업총화가 끝나자 바람으로 안골로 들어가는 차를 타고 남편한테 갔다온것이다. 사돈 될 집에서 잔치날을 확정하자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것은 제 혼자소견으로 정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집에 이른 순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온기가 온몸을 포근히 싸안았다.

구수한 밥가마에서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김이 추위로 굳어진 얼굴살을 풀어주었다.

누가 이렇게 했을가?

그러자 방금 길가에서 만났던 경숙의 얼굴이 언뜻 눈앞을 스치였다. 순간 온몸이 찢릿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것도 모르고 그를 차게 대하지 않았던가. 얼굴이 뜨거웠다. 한달음으로 뒤쫓아가서 그에게 사죄하고싶었다.

더운밥으로 저녁을 치르고 따뜻한 구들에 누운 순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이 번거로워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꿈결에서 마냥 프락포르르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날이 밝았는가?)

순녀는 창문을 보았다. 맑은편 산봉우리가 희번하니 보이였다. 프락포르르소리는 어서 나오라고

부르기라도 하듯 더욱 푹푹히 들려왔다. 운전대를 잡고 돌각담으로 프락포르르를 몰아가고있는 사람은 경숙일것만 같았다. 그래서였는지 여직껏 무심히 들어온 그 프락포르르 소리를 이 아침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돌각담을 헐어내는 일에 나서지 않은것이 부끄러웠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농장의 일 자기의 일이 아니었던가.

순녀는 더는 누워있을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질통을 지고 나갔다.

순녀가 질통으로 돌을 나르는것을 먼저 본것은 승철반장이였다.

(아니, 저 아주머니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그가 자진해서 나선것은 이 근래에 없었다.

(오래 살면 해가 서쪽으로 뜨는 때가 있나보군.)

그러자 어제밤 선전실에서 관리위원장이 한 말이 생각났다.

《...반장동문 풍작을 이룩하기 위해 거름을 확보하고 모를 튼튼히 키우고 물을 넉넉히 마련해 놓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거름을 어떤것으로 마련하고 김을 어떻게 매며 비료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만풍년을 안아오려면 작업반원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농사일에 마음을 쏟아 붓도록 해야 해요. 한손의 손가락도 다 다른데 하물며 수십명 반원들이 어떻게 갈을수 있겠나요. 포기농사하듯 한사람한사람과의 사업을 해서 그들모두 똑같이 걸음을 크게 내디디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순녀네 집에서 어제밤 본것과 오늘아침의 이 일은 그 이야기와 어떤 련관이 있는가. 생각은 깊어만갔다.

좌우간 위원장이 한 말도 있으니 순녀네 집에 나무를 실어다주어야 했다...

4

감빛노을이 곱덕산우로 서서히 퍼지였다. 순녀는 모판결에 말아놓은 나래를 펴서 모판을 돌아가며 덮었다. 이슬이 비닐박막에 맺혀 돌아가는 모판안에서는 야들야들한 잎이 두잎 달린 벼모가 모록모록 귀염스럽게 자라고있었다.

오늘은 농장에서 쉬는날이었다. 그래서 순녀는 오래간만에 딸을 찾아가보려고 했다. 그런데 아침에 모판관리공인 안변택의 둘째가 갑자기 탈이나서 군병원으로 갔다. 그래서 순녀는 자진해서 모판을 돌아보았다.

마침내 모판을 다 덮은 순녀는 곱덕산기슭에

는 강냉이영양단지모판으로 갔다. 해마다 강냉이 영양단지 씨불임철이 되면 산에서 썰이나 산비둘기가 내려와 그것을 쪼아먹었다. 그러니 아침저녁으로 잘 살피지 않았다간 거덜이 나기 쉬웠다.

개천의 외나무다리를 건너 영양단지모판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때마침 산에서 장끼 대여섯마리가 모판으로 내려오고있었다. 순녀는 먼발치에서 부터 《휘여! 휘여!》 하고 소래기를 지르며 허겁지겁 달려갔다. 기급한 썰은 후두둑 깃을 치며 맞은편산 소나무수림속으로 날아갔다.

그러자 결불에 놀란듯 개울너머밭에서 한떼의 산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숨이 턱에 닿은채 모판에 달려간 순녀는 사발논으로 영양단지모들을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다. 순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숨은 돌린 순녀는 분조모판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아래로 내려갔다.

《순녀아주머니!》

별안간 등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니 어느 사이 나타났는지 개울너머밭에 승철반장이 서있었다.

《이리 오우!》

몹시 성난 소리다.

순녀는 눈시울을 모았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칠은 그 소리는 순녀의 흥겨운 마음을 잡치게 했다.

순녀는 언짢은 얼굴로 개울을 건너 강냉이영양단지모판에 서있는 승철반장한테로 갔다.

《일을 하겠으면 좀 똑똑히 하우다.》

《아니 뭘 잘못했다구 야단이우?》

《이게 안보이우?》

승철반장은 모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녀는 영양단지모판을 보았다. 날짐승들이 한평가량의 단지속씨앗을 쪼아먹었다. 일순 아까 개울너머에서 산비둘기떼 날아오르던것이 생각났다.

《개울 하나 건느기가 그리 힘드오. 제 분조밭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승철반장은 부아를 참지 못해 웨치듯 말했다. 그의 말뜻을 깨달은 순녀아주머니는 억울하기 지없었다. 남의 분조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것은 아니였다.

《찬물에 이 부러질 소릴 하지 마우!》

《그럼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했소!》

《그래 언제 날더러 이 밭까지 보라고 했소. 예?》

순녀는 삿대질하며 펄펄 뛰었다. 이젠 일을 좀 잘해보려고 가고싶은 딸에게도 안갔다. 그런데도 반장의 눈밖에 났으니 무슨 일을 하든 곱게 보일 리 없다.

승철반장은 자기가 한마디 하게 바쁘게 순녀가 세급네품 따벌처럼 내쫓는바람에 입을 꼭 다물었다. 이럴 때 말씨름을 벌리면 그것은 불는 불에 키질이였다.

승철반장이 입을 다물자 순녀도 제풀에 입도끼질을 그만두었다. 승철반장은 무엇인가 한마디 하려다가 파랗게 질려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손을 뻗 내저으며 내려갔다.

지붕밑으로 저녁어스름이 서서히 기여들었다. 순녀는 가슴에 치받쳐오르는 분을 삭일수 없어 경숙이를 찾아 관리위원회로 총총히 갔다. 마침 방안에 경숙이 혼자 있었다.

《위원장, 날 다른 작업반에 옮겨주우. 속에서 불이 일어 더는 계사니반장밑에서 일을 못하겠소!》

순녀는 가슴에 차넘친 설분을 터뜨렸다. 경숙은 의자에 순녀를 앉히었다. 그리고는 두손을 책상우에 모아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침묵이 흘렀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벽시계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간이 흘렀다. 순녀가 진정하자 경숙은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가 바라시는대로 작업반을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주머니는 새 작업반에 가서두 몇 참 못있어 또 자리를 뜨려고 하실거야요.》

《뭐라구?》

《아주머니는 승철반장이 자기를 험잡지 못해 몸살이 나한다고까지 하셨지만 더 많은 알곡소출을 내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반장동무의 사업을 도우려고 마음을 쓰신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토라져서 었서기만 하셨지요.》

아주머니 남에게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반장동무를 존경하고 그의 일을 떠맡들어주는것이 아니라 내쫓기만 하셨지요.

물론 반장동무에게도 고쳐야 할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반장동무를 도와주어야지 아주머니처럼 었서기만하면 반장동무인들 어떻게 일해나가겠나요. 그러니 아주머닌 이것을 꼭 고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때엔 아주머니가 원하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

성이 머리끝까지 치민 순녀아주머니는 처음 어깨를 잔뜩 쳐들고 씨근덕거리면서 관리위원장의 말을 들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심각하게 벌어지자 눈시울이 내려지고 어깨가 처졌다. 그는 경숙이의 말을 부인하려고 했으나 그럴수 없었다.

경숙이 말대로 승철반장에게 부족점이 있다 해도 자기가 채심해서 일하려고 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빼앗이 대답할수 없어서였

다. 그런만큼 경숙이가 한 말이 더더욱 가슴아프게 들려왔다.

고개를 숙인 순녀는 살며시 눈가를 치며 경숙이를 보았다. 속눈썹이 긴 경숙이의 눈에 이슬이 맺혀있었다. 그것을 본 순녀는 얼른 눈시울을 떨구었다. 경숙이가 자기 일로 하여 마음을 몹시 썩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자 안골로 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온 날 일이 눈앞에 밟혀왔다. 경숙이가 밤늦게까지 빈 집에서 불을 때고 밥을 안치고 이불을 꾸미면서 자기를 기다렸던 심정이 무엇이었던가 하는것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순녀는 나살이나 든 자기가 짧은 관리위원장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있음을 그제야 알았다. 부끄러웠다. 송구스러워 그앞에 앉았기가 괴로웠다.

눈앞이 뿌잇하니 흐려진 순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경숙이를 다시한번 보았다. 그의 얼굴이 안개속에 가리운것처럼 몽롱하니 보였다. 순녀는 얼른 눈시울을 떨구며 돌아섰다. 관리위원장이 따라나서는것을 꿈결에서 마냥 느끼면서 순녀는 관리위원회를 나섰다.

깊은 자책에 잠겨 돌아가는 순녀를 바래우고 자리에 돌아온 경숙이의 마음은 괴로웠다. 어찌하여 순철반장은 그에 대하여 거칠게 대하는가. 이것은 순녀에게만 한한것이 아니었다. 경숙은 생각을 계속했다.

그러는데 승철반장이 수수떡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순녀일로 성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승철반장은 영양단지모판에서 있는 일을 쏘아בות 말했다.

《...나두 인젠 그 아주머니에 대해 선 손을 들었수다. 그러니 그 아주머니를 떼대루 돌려주시우.》

책상우에 모아진 손은 덤덤히 보면 듣고있던 경숙은 그의 말이 끝나자 물었다.

《반장동문 이것이 자신이 저질러 놓은것임을 생각해보셨어요?》

《예?》

《반장동문 순녀아주머니가 그렇게 된것이 자신의 거칠은 사업에서 나온것임을 모르고있어요. 반장동문 순녀아주머니가 그 개울을 넘어서도록 마음의 길을 터워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눈에 거슬린다고 추궁하고 마음에 싸지 않는다고 목청을 돋구었지요.》

자신이 저질러놓고서도 그것을 뉘우치고 고칠 대신 남을 타발만 하고 이제 와선 떼돌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녀아주머니를 다른데로 보내고 래일은 또 다른 사람을 따돌리려고 하실것입니다.

그러면 반장동문 누구하고 손잡고 일하겠어요.》

승철반장은 그의 말을 반박하고싶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웬일인지 그 말이 가슴 아프게 들려서였다. 경숙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는것을 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곡식을 가꾸기전에 사람의 마음을 가꾸어야 해요. 그들의 마음이 자랄 때 곡식이 자라 만풍년의 로적자리를 쌓을수 있어요.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야 곡식이 자라듯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자면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반장동무에겐 그 사랑이 뜨겁지 못해요. 순녀 아주머니 집에 보낸 뿔나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반장동문 남정들도 패기 가빠하는 물푸레나무를 그 집에 실어보냈지요. 만약 반장동무가 그것을 패서 때는 사람의 심정에 서있었더라면 남편이 오래동안 나가있는 녀자의 집에 그런 나무를 실어 보내지 않았을것입니다...》

경숙은 자기의 이야기를 꾀웃해서 듣고있는 승철이를 보다가 일어섰다. 피해받은 발을 보려는 것이 었다.

승철반장도 경숙이를 따라 관리위원회를 나섰다. 휘영청 보름달이 떠있어 사위는 대낮처럼 환하였다. 외나무다리를 건넌 그들은 발머리길을 따라 강냉이영양단지모판으로 갔다.

달빛아래에서 누군가 등을 이쪽으로 돌리고 모판에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있는것이 보였다.

(누군가? 이 밤중에?)

승철반장은 두눈이 휘둥그래서 걸음을 재촉했다. 단지에 씨앗을 박고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순녀아주머니였다. 승철반장은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리었다. 순녀아주머니가 나와서 보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순녀아주머니!》

경숙관리위원장이 기쁨에 찬 소리로 부르며 달려갔다. 그러나 승철반장은 선뜻 다가갈수 없었다. 승철반장을 알아본 순녀아주머니는 갈린 소리로

《반장아주바이, 체신머리 없이 굴어서 미안하우.》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계속 보식을 해나갔다.

《?!...》

승철반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덤덤히 바라보기만 했다. 주절주절 흐르는 개울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문득 관리위원장 말대로 자기가 순녀아주머니로 하여금 저 개울을 건너서도록 마음의 《다리》를 놓아주려고 한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얼굴이 뜨거워 오르면서 관리위원장이 한 말이 더더욱 가슴아프게 맺

혀왔다.

승철반장은 순녀아주머니옆에 앉아 빈단지에 씨앗을 박고있는 경숙관리위원장을 회오에 잠긴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보식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생긴 빈틈을 메워주는것이였다. 승철반장은 끌리우듯 그의 곁에 가갔으면서 일손을 잡았다. 착잡한 생각에 잠긴 그는 말없이 바지런히 손을 놀리였다.

셋은 하나의 생각으로 융합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씨앗을 막아나갔다. 달빛은 더더욱 밝았다.

5

한밤중이였다. 승철반장은 오늘 일로 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하였다.

사르륵사르륵 창문에 무엇을 휘뿌리는듯한 소리가 났다. 눈! 그는 황급히 내의바람으로 마당에 뛰쳐나가보았다. 싸락눈이 휘뿌리고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모가 얼어죽는다!)

얼굴이 해쓱해진 그는 안해와 아이들을 흔들여 깨웠다. 그리고는 분조장네 집들에 달려가 집집에서 령상모판 덮을것은 가지고 모판에 나오도록 일렀다.

승철반장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속이 한 줌만해서 인척이 없는 논두렁길을 허겁지겁 달렸다.

강냉이밭을 한달음에 가로질러 바람막이바자안으로 뛰어든 승철반장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였다. 사람들로 웅성웅성하기때문이다.

(벌써들 와있었구나. 그러면 그렇겠지!)

반원들의 미더운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승철반장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어둑어둑한 구석에서 《이제 온 사람이 누구요? 이리 오우.》 하고 누군가 소리쳤다. 순녀였다.

(아니 저 아주머니가 어떻게 여길?)

승철반장은 놀라며 그 자리에 주춤했다. 순녀네 분조모판이 아니였다. 자기 분조 모판을 헛갈린것이 아닌가. 부영이논이라고 밤눈이 밝은 순녀가 자기 분조 모판을 헛갈려볼리 없었다.

하나 그가 어디에서 일하든 그 말은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빨리 오우. 모가 얼어죽수다!》

순녀의 채근하는 소리가 날아왔다. 빨리 가야 했다. 그러나 내쫓는 그의 도끼입질이 오늘따라 은근히 두려워 오면서 다른데로 자리를 뜨고싶었다. 승철반장은 얼굴이 간지러운대로 그에게로 갔다. 그를 알아본 순녀는

《아이구, 반장아주머니구만...》

하면서 승철반장이 내려놓은 나래를 펴고 한끝을 잡으라고 했다. 승철반장은 쑥스러운대로 나래를 맞들어 모판에 덮으면서 《왜 자기 분조에 가지 않고 남의 분조에 왔소?》 하고 물었다.

《모가 얼어죽는데 네것내것 가릴 때우.》 하며 순녀는 나래를 꼭꼭 눌렀다.

누군가 전지불을 켜들고 모판 덮은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다가왔다. 이웃작업반의 모판을 돌아보고 오는 경숙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승철반장은 이때처럼 순녀가 돋우보인적은 없었다.

《모두 다 나왔구만요!》

경숙관리위원장은 승철반장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승철반장은 그 뜻이 가슴에 절절히 안겨왔다. 반원들은 말이 없어도 제할바를 알고 스스로 달려왔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그의 눈앞으로 돌갑담을 털어내기 위하여 아침마다 트랙토르를 몰고 나서는 관리위원장, 농장원들에게 늘 무엇인가 이야기하며 웃으며 그 속에서 사는 경숙이의 모습이 흘러갔다.

그것은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에 충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뜨겁게 가꾸는것이였다.

그러자 달밤에 강냉이영양단지모판에서 관리위원장이 한 말이 후덥게 안겨왔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곡식을 가꾸기전에 사람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랄 때 곡식도 자랍니다...》

경숙관리위원장은 바로 그런 신념으로 농장원들의 마음을 가꾸어 반원들을 하나같이 묶어세운 것이다. 한랭전선의 영 향으로 힘겨운 전투는 앞으로도 벌어질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두들 하나의 념원-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쌓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한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것이다.

승철반장의 눈앞엔 벌써 확정된 대풍든 가을이 펼쳐졌다. 그러자 만풍년의 비결은 곡식을 가꾸기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어 주체농법대로 농사짓는것이라고 관리위원장이 한 말뜻이, 그리고 이 몇해농사에서 비약이 이룩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무엇이었던가가 똑똑히 안겨왔다.

승철반장은 신심에 찬 얼굴로 모판들을 살펴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날씨는 더더욱 차졌다. 그러나 농장원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포근히 싸안은 벼모를 얼굴수는 없을것이다.

기계화가정 외 1편

김희종

땅거미 지는 어스름때면
집으로 모여드는 정다운 부부차들
모이면 아홉의 자랑
모이면 아홉의 기쁨이
이 밤도 즐거운 웃음꽃을 피워라

오늘은 제 힘으로
윤활뿔프를 고쳤다는
나어린 누나의 기특한 이야기...
짐승들이 밤새 전조등을 따라다녀도
운전대 놓지 않았더라네

창안의 밤을 지새우며 달포
래일이면 드디어 래일이면
비료살포기도 시운전을 하리라는
말이의 흐뭇한 이야기에
꽃처럼 피어나는 얼굴들이여

여름이면 불길처럼 단김을 내뿜는
숨막히던 강냉이밭머리에
시원히 비료다래끼 벗어내리는
농장원들의 반가운 모습이
화면처럼 유리창문에 어려와라

아, 다섯형제 네동서의 이야기, 이야기
물건너 아득히
령너머 멀리
날마다 기계화의 꿈을
노을처럼 피워가는 이야기

이 봄 저 정포덕 비탈밭에도
기계로 강냉이모를 내고

이 가을 저 노루목 이백정보에도
수확기로 기울하리라
다지는 맹세 불길로 타고르고 솟구치고

아홉의 그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땅을 갈고
최뚝을 허물고
거름을 실어나르며
하늘높이 풍년날가리 안아올렸던가

아홉의 불같은 혁신의 이야기
허리편 농민들의 웃음을 실은
꽃수레가 되어
산에 들에 그 얼마나
홍겨운 로동의 노래소리 울려주었던가

모이면 하늘땅 가득히
기계화의 동음소리 울리며
수령님의 구상을 펼쳐가는
끝없는 기쁨에 밤가는줄 모르고

모이면 전변된 고향벌
3대혁명이 활짝 꽃핀 대지우로
뜨거운 마음들을 앞세워보는
기계화의 가정
시대의 새 가정

승엄히 바라보여라
아홉이 나란히 한가정에 아홉이
기계화의 길우에 한평생을 바쳐가는
테제의 빛밭아래 높이 솟은 집이여
충성의 아름다운 빛을 뿜는 집이여

좋은 봄밤이여라

반달이 농립모처럼
들메나무끝에 걸린 밤
감나무집 둘째가
안해에게 프락뜨로운전을 배워주네

안해의 두손에
튼튼히 운전대를 쥐여주고
그우에 제손을 덧놓으며
깨우쳐주는 살뜰한 정
수집고 압전을 피우면

오히려 차가 말을 안들어준다네

며칠밤 익혀온 리치도 상기하며
앞을 지켜보는 그의 가슴을
덜렁! 투레질하며 달리는 무쇠말
거물처럼 쳐다보이던 차가
그의 손아귀에서 몸을 뒤통거리네

좋은 봄밤이여라
또 한가정이 기계화의 진군길에 오르는
그 기쁨을 날도 둥글어 웃어주는가
쳐너지절에도 못배운 숨씨
마흔에 꽃피워주는 고마운 세월이여

배기통이 내뿜는 기름내가
어느새 그렇게도 구수히 풍기는가
기름내를 마셔야 일맛이 좋다던
운전수들의 말이 무언가 하였더니...

한번 타보니 열백번 더 파고싶은듯
싱글벙글 웃는 얼굴
넘치는 긍지 하늘에 닳았어라
넓은 저 벌을 한가슴에 그러안고
금시 보습이라도 내려보는듯

좋은 봄밤이여라
가정마다 타오르는 기계화운동의 불길
마을과 마을에 번져가며
온 강산에 부부차 파도쳐흐르는
노래의 봄
랑만의 봄

가정마다 마을마다
기술혁명의 웃음꽃이 만발하니
부부의 정
마을의 정
온 인민의 정도 천길로 깊이지는
축복받은 시대의 새봄이여라

풍년물을 이끌고

김진수

발머리에 물을 주네
하늘가득 뿌려주네
푸르싱싱 자라오른 강냉이 밭에
숫구치는 강우기의 물줄기를 터놓고
내 흐뭇한 마음을 그우에 실어보네

팔뚝같은 이삭들의 수염발이 비껴
령롱한 무지개 별가득 피는가
만풍년을 안아보는 기쁨의 물결이
가슴이 벌도록 넘쳐나네

물호스를 늘이며 자리도 옮겨가니
들판우에 어려오는 모른것
정다운 노래로 안겨오네
약뿌리는 프락또르운전수의 모습도
구름우에 높이 뜬 작을 종다리도

포기포기 곡식포기 뿌리내린곳이면
그 어데나 물줄기 이끌고 나는 가네
등성이 다락밭도 치달아오르고
비탈길도 한달음에 내리네

낮에는 온종일 해발이 춤을 추고
밤이면 별들이 정답게 웃음짓는
물줄기에 실어놓는 내 마음아

강산을 적셔주는 사랑의 이 물줄기
후더운 눈물로 더해진들 어떠라

이슬내린 두렁길을 걸으시며
발머리 우물자리 잡아주시고
숲에 묻힌 령길을 넘고 넘으시며
굴포자리 정해주신 아버지수령님
천길 땅속의 물길을 열어
강우기운전공으로 나를 세워주셨네

풍년물 길잡이
풍년물 관리공을
새 모습으로
발머리에 세워주신 그 사랑

수령님의 그 사랑 넘치는 물
하늘가득 뿌려주며
별가득 적셔주며
나는 가네
프락또르강우기를 타고
걷는듯 흐르는듯 실리는 마음

아, 천만이랑 적셔주는 풍년물길 이끌고
이 세상 끝까지 춤추며 가고싶네

요 램

김우경

요람-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며 따뜻한 품이다.

요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불우물을 지으며 귀엽게 웃는 어린아이의 포근한 잠자리를 그려보며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낀다. 하기에 나이가 들어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가 되었어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응석을 부리던 그 시절을 못잊어하며 때로 조국을 떠나 이국땅을 거닐 때도 요람을 흔들어주며 부르던 어머니의 그 다정한 자장가소리가 정답게 들려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더욱 사무쳐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만 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에겐 참다운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그러기에 요람- 그것은 어머니의 품이며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조국의 품이다.

조국의 품! -끝없이 넓고 자애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있는 우리의 생활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랑만이 있다.

며칠전 일요일 가벼운 령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나에게 온 가족이 면회를 왔을 때였다.

얼마간 떨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그리도 큰지 아이들은 나의 량팔을 붙잡고 목도 그리안으면서 저마끔 자기들의 자랑을 담아 그 기간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애녀석은 말이 잔재 누이동생 한테 선코를 때운것이 분한지 한옆에 돌아서서 씩씩거리고있다가 맨 나중에야

《아버지! 나 어제 또 붉은별 탔다. 그래 모두 열개야! 씨.》 하고 투덜거리듯 불부은 소리를 했다.

나는 애녀석의 그런 모양이 더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응, 용쿠나. 그래 무얼 잘해서 탔니?》 하고 짐짓 놀라는체하며 물었다.

그러자 애녀석은 자기의 자랑에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기뻐던지

《낮잠시간에 잠을 잘 자서 탔지요 뭐.》 하고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뭐? 잠을 잘 자서 탔다고?》

온 가족이 모두 크게 한바탕 웃었다.

나도 웃고 안해도 웃고 애들도 영문을 모르고 따라 웃었다.

그러나 둘째애녀석은 자기를 놀려대는 것 같아 울상이 되어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자기가 낮잠을 잘 잔 것이 얼마나 크고 장한 일인지 아버지는 모른다는 섭섭함이 력력하게 내동쳐있었다.

애녀석의 그런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어쩐지 코허리가 쩡-해움을 느꼈다.

(잠을 잘 잤다고 표창을 준다?!)

나의 눈앞엔 언젠가 미술박물관에 갔을 때 《어린 머슴의 쪽잠》이란 한쪽의 그림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던 그때가 생각났다.

외양간의 짙검불우에 몸을 기댄채 허리를 꼬부리고 새우잠이 든 어린 머슴군, 순간의 쪽잠이 그리워 지주놈의 눈을 피해가며 허기진 배를 그리안고 잠든 어린 머슴군의 가냘픈 모습, 이제 지주놈이 나타나면 또 어떤 경을 칠 것인가? 황소도 가련한 머슴군의 그 정상이 불쌍한듯 측은하게 내려다본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버리자 해도 자꾸만 갈마들어 눈앞에 삼삼히 안겨와 밝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애와 한동갑포래인 우리 집 애녀석은 폭신한 요람속에서 잠을 잘 잤다고 별을 주어 표창을 하며 칭찬을 받는다.

그림속의 그 머슴군애는 불행의 극단에 있다면 우리 집 애는 행복의 절정에서 살고있다.

행복과 불행의 두 극단에서 한 나이포래의 두 소년은 너무도 판이한 하늘과 땅같은 처지에 놓여있지 않는가.

가슴 찢릿한 생각은 언젠가 어느 한 탁아소를 찾았을 때 둘은 감격적인 회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내가 탁아소를 찾았을 때는 낮잠시간이었다.

발끝으로 복도를 조심히 걸어 소장실로 들어가 노라니 열려진 창문으로 잠자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보였다.

아름다운 꽃나무와 고운새, 흐르는 시내물이 새겨진 산뜻한 문양의 꽃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

들의 모습은 볼수록 귀염성스러웠다.

소장동무를 만난 나는 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 탁아소를 찾아주신 때는 바로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한낮때였다고 한다.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을 돌아보시기전에 먼저 탁아소부터 찾아주시었다는 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신 탁아소는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소용돌이쳤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런데 탁아소의 어느 한 젓먹이반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한 아이가 선잠을 깨여 아-앙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이수령님을 탁아소에 모신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슴 들먹이인 보육원들은 너무도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그우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동행한 수원들과 보육원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으신 우는 아이를 저마다 자신들이 안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만류하시며 아이들은 자꾸 들추어 놓으면 잠을 들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우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달래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울던 아이는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좀체로 아이를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안고계시였다.

수령님의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지체시킨다는 죄송한 마음으로 보육원들은 어서 아이를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기계소리가 들려오는 창가를 그윽히 내다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깊이 잠든 다음에 떠나자. 이제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또 깨워서야 되겠는가?...

지금 이 탁아소의 위치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기계소리가 들려서야 어떻게 아이들이 깊이 잠들 수 있겠는가? 탁아소는 조용한곳에 지어야 한다...

순간 아이를 안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수원들과 보육원들의 눈굽에는 뜨거운 이슬이 고이였다.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복받은 그 아이는 행복의 꿈을 꾸는지 보조개가 콧파지게 방그레 웃음을 짓는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린 아이가 깊이 잠든 다음에야 포근한 요람우에 조용히 눕히시고 자리를 뜨시였다.

아, 복받은 우리 아이를! 이 애들의 포근한 요람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마련된것이다.

혈전만리 항일의 불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비를 맞으시며 걸으신 그 사랑의 자욱마다에 바로 행복의 요람이 솟아났거늘, 이 요람을 마련하시기 위해 그이께서 겪으신 로고와 심려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노라니 어쩐지 탁아소의 꽃이불에 그려진 시내물과 귀여운 새와 꽃나무가지의 문양이 그저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조국땅우에 누워 꽃나무, 시내물, 고운새가 그려진 말하자면 《조국산천》을 그대로 덮고 자는것이 아닌가! 요람속에서 《조국산천》을 안고자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모르나 문양속에 새겨진 고운 《새》들도 아이들의 단꿈을 깨칠가봐 저어하며 그렇게도 즐거이 부르던 노래마저 그칠듯싶고, 졸졸 쉬임없이 흘러가던 《시내물》도 아이들이 낮잠시간이어서 소리없이 조심히 흐르는듯싶었다. 가지 많은 《꽃나무》도 바람에 꽃이파리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서있는듯싶었다.

그렇다! 이 애들의 꿈을 지켜, 요람을 지켜 온 조국이 서있다.

소장도, 보육원들도 소리가 날세라 발끝으로 조심히 걷고 취재나온 나도 발끝으로 걷는다.

탁아소앞에 있는 넓은 길을 뒤두고 짐실은 바쁜 자동차도 애들의 단잠을 깨울가봐 멀리 에돌아달려가고있다. 저 멀리서 벽체를 물어 울리는 건설장의 기중기도 웅-하고 은은한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또 하나의 요람이 솟아오르는것이다.

쇠물을 뽑는 용해공도, 천을 짜는 방직공도, 탄을 캐내는 탄부들도 우리 아이들의 포근한 요람을 위해 쇠물을 한차지 더 뽑으며 천을 한메터라도 더 짜려고 하며 탄을 한덩어리라도 더 캐내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 집 애너석이 낮잠을 잘자서 탄 그 별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면서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것이였다.

어찌 아이들뿐이랴! 그 이튿날 아침 나는 또 웃음속에서 가슴뜨거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임원실을 담당한 간호원처녀는 언제나 눈부터 웃는 상냥한 처녀였다.

나는 아침제온과 맥박을 재려 들어온 그 처녀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간호원처녀는 매일아침 호실로 들어올 때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하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모두 의례히 잘 잤다고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병력서에 잠잔 시간을 기록할 땐 밤새 잠이 오지 않아 애먹던 사실을 말하곤한다. 나도 그랬다. 그러던 내가 입원해서 처음으로 어제밤은 잠을 잘 잤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처녀는 두손을 마주쥐며 《아이! 그럼 인젠 됐어요!》 하면서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내가 잠을 잘못자는것을 얼마나 안타까와했으면 저리도 기뻐할까? 갑자기 나의 가슴은 전류가 흐르듯 찌르르했고 목구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내가 무엇이란말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저 간호원처녀는 저렇게 기뻐하는가? 자기 오빠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를 배워준 스승도 아니

다. 아니 설사 자기 혈육이고 살붙이면 이렇듯 살뜰하며 지극할것인가!

나는 잠을 잘 잤다고 별을 탄 우리 집 애녀석의 생각이 났다.

(나도 잠을 잘 잤다고 칭찬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굽이 뜨거워졌다.

고마운 우리 조국! 온 나라가 그대로 요람인 우리 조국! 그것은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수령님의 품이다. 이 품속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안겨사니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친아버지로 높이 모신 한 형제이며 한 가정이다.

하기에 이 요람을 지켜 이 가정을 지켜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가슴엔 언제나 승리의 신심이 비껴있고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것이다.

그로하여 우리의 요람-우리 조국은 더욱 무궁번영하는것이다.

그 마음이 아름다와

리동후

내리는 비소리
밤은 깊어 더 커지고
모질은 비바람
다락발에 붙어친다

안타까운 마음들
쓰러지는 강냉이숲을
한몸으로 막으려는듯
비바람속을 뚫고
바빠 뿔아오른 산언덕

둘러보니 놀라워라
검푸른 강냉이숲에
늘이고 늘어놓은 바람막이새끼줄
저 이랑 한끝에서
쿵쿵 말뚝을 박는 소리

누굴가?!
하늘에 달리는 번개속에
언뜻 어른대며
달려가는 그림자
뽕얀 비발속에 보일듯말듯

순간 후더워지는 마음
그 마음들이 다가는는데
머리위에 비옷을 제끼며
반겨웃는 그 얼굴

자랑스런 소조원의 모습이어

웃자락은 흙물에 얼룩지고
얼굴에 비물은 흘러내려도
온 밤 찬비속에
강냉이숲을 지켜낸 그 기쁨
가슴에 차올라선가

흙물은 손등으로 비물을 훔치며
조용히 웃어보이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고마와
손목을 부여잡은 농장원들 얼굴에
흐르는것은 비물인가 눈물인가

아,미더워라, 혁명의 전위
풍성한 가을날에
아버이수령님 모시리라는
그 소원 품고
언제나 이슬에 젖어 들에 사는
충성의 마음

그 마음 비껴
까치봉너머로 우뢰소리 사라지고
파아란 하늘이 열리는가
억만 푸른 잎을 흔들며
산기슭 다락발에
강냉이바다가 속삭이며 설레고있어라

이 땅우에 사는 오늘에도

한기운

내 어찌하여 이 아침도
레사로이 바라볼수 없는 하늘인가
내 어찌하여 날마다 가꾸고 만지여도
손을 못떼는 이 꽃밭인가

나의 집
행복의 창문 활짝 열린 마당가에
떨기떨기 피여 웃는 꽃을 보아도
유원지관리원-이 가슴에
몽클 젖어오는 생각이여!

아, 꽃은 피여도
마주 웃을 꽃이 없던 이역땅
북해도 부두가 음산한 하늘밑에서
내 인부로 살던 집 그 마당가에
방문단동포가 소중히 안고온 꽃씨를 물어
송이송이 피운 봉선화, 백일홍, 분꽃...

그리워 아침마다
한포기 그 꽃에서
고향산천을 그려보던 마음
한포기 그 꽃에서
조국을 안고 살 때
꽃잎에 흐르는 이슬은 이슬만이었던가

조국이여!
너를 빼앗겨 떠나던 날에
현해탄 물결우에 피눈물 뿌리며
죽어 한줌 흙이 되여도
보태여지고싶던 조국땅

아! 부르고 불러
가슴속에 안고 살던 땅에
오늘은 나도 새삶의 뿌리내려
사무쳤던 그날의 그리움을
천만송이 꽃나무에
웃음으로 다 피워가는 기쁨이여!

이 은혜, 이 행복 고마워
가꾸고 가꾸어가는
천만송이 꽃송이
한없는 사랑으로만 안겨지는
이것이 내 주인으로 사는
나의 조국이거니

내 잠시라도
온갖 새 우짖는
저 가로수
가꾸는 꽃밭에 한점 빛이 달라도
손이 가는 내 마음

그날
피같이 뜨거운 눈물에 젖어
동포들이 사는 집 마당가에
조국의 빛을 담아 옮겨지고 옮겨지던
그 조국에 대한 생각

아! 그래서 이 땅우에 사는 오늘에는
가꾸는 꽃나무 세일수 없건만
그날의 그 한포기꽃의 소중함으로
조국은 언제나 네 가슴속 깊이 안겨있어라

정 성

서상각

1

지역 상공회 부리사장인 리룡택은 자그마한 피복공장을 경영하고있었다. 가공료를 받고 기성복을 만드는것이 그의 일이다.

출금, 입금 전표들을 뒤적거리며 장부를 정리하던 룡택은 그것을 한켠에 체쳐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아까부터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가지 생각때문에 장부에 적힌 수자들이 잘 안겨오지 않았던것이다.

가공실적이 어느때보다 떨어진것도 아니였고 운영상태가 나빠진것도 아니었다.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있는것은 일전에 상공회 리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거리로 말뚱에 올랐던 김두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미조직동포 상공인들속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는데 일본의 어느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의 아들이 근간에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출장가게 되었다는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범상하게 한 이야기였으나 리룡택은 어쩐지 그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소한 생활상문제를 놓고도 일본의 동화정책에 말려들기 쉽기때문에 김두식이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 좋은 영향을 주어 조선사람의 넋을 지니고 몇몇이 살아가도록 해야 할것이였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방안을 서성거리던 리룡택은 문득 멈추어섰다. 자기와 같은 상공회 리사를 하고있는 정영만이와 김두식이 같은 고향사람으로서 아주 친한 사이라는것을 어디서 들은 생각이 피뚱 떠올랐기때문이었다.

그는 영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만은 집에 없었다. 잠깐 밖에 나갔는데 곧 돌아온다는것이다. 그는 영만의 안해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주인이 돌아오면 시내에 있는 공원에 나오도록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수화기를 놓았다. 다른 때도 무슨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종종 그 공원에서 만나곤했었다.

그는 책상우에 널려있는 장부와 전표들을 대강 치워놓고 공장으로 통하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전동제단기소리와 동력재봉틀소리, 다리미판

을 탕탕 치며 다리미질하는 소리가 하나로 합친 요란한 공장소음이 밀려들어왔다.

《여보! 내 좀 나갔다 오겠소.》

그의 안해 한씨는 곱게 다리미질을 하여 한켠에 걸어놓은 너자비옷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그것을 또 곱게 접어서 비닐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고있었다.

《상공회 사무실에 나가시우?》일손을 멈추고 한씨가 물었다.

《공원에 가서 정영만동무를 만나고 오겠소. 당신도 이제 좀 쉬었다가 하지.》

다리미에서 내뿜는 증기와 열기로 하여 몹시 무더운 작업장에서 실باط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안해를 두고 나가기가 좀 떠름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룡택은 상공회 일때문에 집에서 일을 못하고 밖에 나가는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집안일을 한씨가 도맡아하였다.

《오늘 너자비옷 삼백벌 만들 일감이 들어오겠는데 제품규격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시오.》

룡택은 무엇을 하든지 거칠게 되는데로 하는 일이 없었다. 한가지 일을 말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내고야마는 성미였다. 이런 성미는 그가 밖에 나갈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자기가 없어도 안해가 다 처리할수 있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일일이 대주고 나가곤하였다.

한씨는 그런 남편이 정겨웠다. 입밖에 내지는 않지만 자기를 믿어주고 집안 살림살이며 장사일까지 다 맡겨주는 남편이 고마웠다.

집을 나선 룡택은 (미조직 동포들속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는 김두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건늬길을 건느고있는데 바로 뒤에서 뻑! 하고 자동차의 급정거하는 소리가 났다. 룡택은 깜짝 놀래여 본능적으로 한발자국 비켜섰다. 자동차안에서 얼굴이 단정하고 서글서글해보이는 젊은 사람이 웃음을 짓고 왼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는 썩하니 달아나버렸다. 교통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도시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공원에 들어섰으나 영만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다.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원은 이름이 공원이지 손바닥만한 공간에 미루나무 몇그루가 서있고 등받이가 있는 긴의자가 몇개 놓여있는 초라한 빈터에 지나지 않았다.

높고 낮고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집들이 무질서하게 다닥다닥 들어붙어 숨이 막힐 지경인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빈터마저 아주 귀중한것으로 되었다.

이런 무질서하고 너저분한 환경속에 파묻혀 사람들은 헐떡거리며 살고있었다.

자동차가 철새없이 유해가스를 내뿜으며 질주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고 원색 외래어 선전간판이 어디에나 나붙은 이 거리의 무질서한 도시구조는 일본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도시의 전형적인 풍경이며 일본사회의 축소인것이였다.

바람마저 불지 않아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룡택은 나무그늘에 자리잡은 결상에 앉아서 정영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남방샤쓰의 옷단추를 열고 옷깃을 헤쳐놓으며 바람을 청하였다.

공원 한켠에서는 아이들이 몰려서 놀고있었다.

어깨에 책보를 메고 《우주인》의 탈을 쓴 아이가 《우루또라-세분!》하고 웨치면서 랑손을 사선으로 뻗치고 다른 아이들 돌레를 빙빙 돌았다. 우주를 비행하는 흉내를 내고있는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같이 랑손을 벌리고 뱅뱅 돌다가 《세분, 세분, 우루또라-우루또라- 우-루-또라-다-》하고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니라 목이 터지게 웨쳐대는것이였다.

텔레비죤에서 늘 하는 만화영화의 장면들을 흉내내면서 놀고있는것이다.

리룡택은 아이들이 노는것을 보면서 그속에 조선아이들도 끼여있는것 같아 마음이 울적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엾게 여겨졌다. 자연을 빼앗긴 아이들이 치열한 《교통전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아이어른 할것없이 자연이 파괴되어가는 현실을 똑바로 볼수 없게 눈가림을 당하고 초자연적인 《세계》, 인위적으로 꾸며낸 《우주인간》같은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 같은 환각을 신문, 라디오, 텔레비죤 등 매스코미(정보)라는 폭력을 통하여 시시각각으로 강요당하면서 살고있는것이다.

조선사람인 경우에는 그 매스코미를 통하여 민

족의식을 시시각각으로 거세당하고있는것이다.

아이들이 노는것을 보고도 룡택은 무심히 지낼수 없었다.

어지러운 매스코미의 자옥한 안개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의 요구대로 살며 일한다는것이 이 땅에선 쉬운 일이 아니였다.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으로서의 눈과 의식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게 되어가고있다.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어느 사이에 왔는지 정영만이 그 옆에 서있었다. 정영만은 널찍한 이마며 두툼한 뒤통미를 손수건으로 연신 문지르고있었다.

《정동무, 바쁜데 불러내서 안됐소.》

그는 힘깨나 쓸것 같아보이는 짝 벌어진 정영만의 어깨를 보며 말하였다.

《무슨 일로 절 불렀습니까?》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룡택은 영만을 자기옆에 앉으라고 하였다.

영만이 땀을 들이는것을 보고나서 룡택은 다시 입을 열었다.

《김두식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요?》

《예? 두식이요?》영만은 천만뜻밖이란듯이 반문하면서 룡택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두식인 벌써 일본사람이 된지 오랜데 왜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집 아들이 동남아시아에 출장간답니다. 그러니 국적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지 않소.》

룡택의 말을 듣고 그는 펄쩍 뛰는것이였다.

《하, 그 두식이 그 녀석이 끝내 말썽이군》

《정동무, 상공회에선 그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조선사람의 녀를 가지고 살도록 하자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안될것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그 집과 발을 끊었겠습니까.》

《왜요?》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요, 그와 나는 소꿉시절 친구였습니다.》

영만은 떠껍떠껍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영만이와 두식은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처럼 다정하게 붙어다니면서 자라났다는것이다.

10 리길이 실히 되는 학교에도 같이 갔고 돈이 없어 월사금을 못낼 때면 왜놈교원에게 구박받는것이 싫어서 책보를 부모들 모르게 숨겨두고 산에 올라가 둘이 실컷 놀다가 내려왔다.

영만은 두식이보다 몸도 크고 힘도 세었다. 그는 두식이가 주먹이 센 아이에게 구박을 당할 때면 언제나 비호해주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쌍둥이같다면서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도 떨어져서는 못살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들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았다. 나가노이수력발전소건설공사판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때에도 두식은 언제나 영만을 의지하여 살았고 정영만은 그런 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었다.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우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콩깨묵과 보리를 반씩 섞어서 삶은 《밥》조차 배불리 먹여주지 않았다. 콩깨묵을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심장놈에게 들켜서 인간으로서의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몽둥이로 죽도록 얻어맞는 사건들이 매끼니마다 일어나게 되었다.

한번은 영만이가 두식이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먼저 자리를 떴다.

정영만은 《밥》을 다 먹고 소금국을 마시고있었다.

그때였다. 심장놈이 돼지 먹따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두식이가 《밥》그릇을 들고 오다가 그놈에게 들킨것이었다.

심장놈은 《밥》그릇을 빼앗아 한켠에 놓더니 주먹을 움켜쥐고 그의 볼을 힘껏 쳤다. 두식은 외마디소리도 못지르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그의 입가에 선지피가 랑자하였다.

심장놈은 한켠에 놓았던 《밥》을 땅바닥에 동맹이치고는 발로 짓이겼다. 멀건 소금국을 두식의 머리에 퍼부으며 《돼지, 돼지처럼 먹어라!》하고 고아대고는 두식의 뒤덜미를 잡아 《밥》우에 여러번 쥐여박았다.

그것을 보는 영만의 가슴에 불이 일었다. 그는 주먹을 자기도모르게 움켜쥐고 심장놈앞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얼굴을 홍당무처럼 해가지고 씨근덕거리던 심장놈은 영만을 보고 흠칠 놀라며 물러섰다. 영만의 기세에 눌리어 그놈은 《어디 두고 보자!》하면서 뺨소니를 쳤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길이 일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음날도 영만이와 두식은 가지런히 앉았다. 두식이가 《밥》을 다 먹고난 뒤에 영만은 자기 《밥》을 두식이앞에 밀어놓았다.

《두식이, 자, 먹어라.》

그를 쳐다보는 두식의 두볼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만이!》 두식은 차마 그 《밥》에 손을 대지 못했다.

《두식이 울긴 왜 울어! 그걸 못참구 그 꼴을 당해!》

영만은 두식을 엄하게 꾸짖었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어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수 있었다.

해방된 조국,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항구도시로 모여들었다. 영만이와 두식이도 그 사람들 틈에 끼여있었다.

《수십만명의 동포들이 한꺼번에 모여든 해방직후의 그 대혼란속에서 우리들은 서로 헤어진채 몇해동안 만나지 못했지요.》

영만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말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고있다가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10 년후에 내가 두식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있었지요.》

그들은 벌써 총각이 아니었다. 각기 가정을 이루어 어린것들도 거느리고 근근히 살아가고있었다.

영만은 자주 두식을 찾아갔다. 쌓였던 회포도 풀고싶었고 서로 의종게 살아가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나 어떤지 서먹서먹하였다. 서로 통하는 것이 없었다.

소꿉시절 찰떡처럼 붙어다니면서 서로 의지하여 살던 시절은 이미 과거라는 시간속에 파묻히여 가버렸던것이다.

그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것은 두식이가 아들 경호를 일본학교에 보내던 때부터였다.

영만은 경호를 조선학교에 보내지 않고 왜 일본학교에 보냈느냐고 두식을 호되게 나무랐다.

두식은 내 자식 내가 교육시키는데 왜 남이 자꾸 간섭하는가, 그런 소릴 하려거든 썩 이 집을 나가라고 피대를 세우고 맞섰던것이다.

《난 그때로부터 두식이와 담을 쌓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달라질줄은 몰랐습니다.》

영만은 고뇌에 찬 눈으로 룡택을 쳐다보았다.

룡택은 영만이가 아직도 두식에 대해 미련이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영만은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였다. 보라빛 연

기가 바람 없는 대기속을 길게 뻗어나간다.

《두식이 아들녀석이 동남아시아에 간다는게 정말인가요?》영만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두식씨가 그렇게 된다는 정동무에게도 책임이 있소. 다정한 친구를 끝까지 돌봐주게 않고 내버려두었으니까말ियो.》 룡택은 영만을 나무람하였다.

《남의 말을 들어주어야지요. 소귀에 경읽기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집에 갑시다.》

《예, 그 집엘요?》 영만은 난처해하면서 어물어물하였다.

《우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조선사람의 넋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룡택은 영만을 보고 조용히 말하였다.

2

세멘트로 만든 벽돌담장안에 두식의 집이 있었다. 온통 뽕기로 치장한 조립식간이주택인 그 집은 겉보기에는 그럴사하지만 벽이며 지붕이 모두 함석으로 되어있었다.

《정동무, 어서 들어가봅시다.》

문앞에서 어물어물하는 그를 보고 룡택이 재촉하였다.

그래도 영만은 먼지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룡택이 《계십니까.》 하고 사람을 찾았다.

《누구요.》 하는 대답소리가 들리자 영만은 현관쪽을 외면하고 돌아섰다.

현관문을 열고 호리호리한 두식이 기름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낮선 룡택을 보고 《누구신지요?》 하다가 영만을 알아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룡택에게 《들어오십시오.》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룡택은 영만에게 《들어갑시다.》 하고 주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영만이라도 하는수없이 따라들어갔다.

방안의 분위기는 어색하였다. 세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것이다.

영만은 두식을 외면하고 두식은 정영만을 외면하였다. 서로 마주보려 하지 않았다.

《초면입니다. 상공회 부리사장을 하는 리룡택입니다. 앞으로 알고 지냅니다.》 룡택이 자기소개를 하였다.

《예, 김두식이올시다. 그런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두식은 영만의 눈치를 살피면서 물었다.

《예, 김두식씨는 정동무와 친한 사이라고 들었기에 인사도 할겸 겸사겸사 들렸습니다.》 룡택은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두식의 장사형편도 물어보고 생활형편도 물어보았다.

영만은 입을 다문채 말이 없다.

《자재분이 해외에 러행가신다지요?》

리룡택이 조심조심 물었다.

《예, 동남아시아방면에 좀...》

《어떤 일로 가는가요?》

《그 방면에 무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사대표들이 조사단을 무어가지고 간다나요, 그 조사단을 인솔해간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룡택은 영만을 보았다.

영만은 외면한채 말이 없었다.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가고 룡택은 두식의 이야기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두식의 안해 박씨가 절구통같은 몸집을 뒤통거리면서 쟁반에다 맥주와 당콩을 돌고 들어왔다.

《아주버니, 오래간만입니다. 맥주라도 한잔 드시우다.》 박씨가 영만에게 인사를 하였다.

영만은 박씨의 인사를 받았다. 그는 맥주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두식은 룡택에게 맥주를 권하고나서 자기도 안숨에 잔을 들이켰다. 영만이가 들으라고 두식은 우정 소리를 높여 아들자랑을 계속한다.

《상사 대표라는데 다 일본의 일류 회사 사장들이랍니다. 일본 신문기자들도 이런 경제대표의 인솔자로 뽑히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영만은 무릎을 움켜쥐었다. 두식의 말이 감정에 거슬렸던것이다. 그는 치밀어오르는 역정을 가까스로 눌렀다.

룡택은 가슴이 아리다. 두식을 더 빨리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동안 담을 쌓고 살았다는 영만에 대하여 은근히 화가 났다.

두식은 아들자랑을 계속하였다.

《경호가 이빈에 일을 잘해서 그 사장들에게 신용도 얻고 사랑도 받게 되면 나도 그 런줄을 타구 무역이라도 한번 해볼가 합니다.》

사뭇 흐뭇한 심정으로 얼굴에 웃음까지 띄우고 룡택을 바라보는 두식의 표정은 맥주 한잔에 취한듯하였다.

영만은 씹씹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터지려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말하였다.

《부리사장, 잡시다.》
《정동무 왜 이러시오.》
《내 더러워서 못있겠습니까.》
영만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아니, 더럽다니 뭐가 더럽단말이야?》
두식이라도 일어나 맞섰다.
《뭐, 일본사람에게 붙어서 빌어먹구 살겠다?
그 더러운 심보를 고쳐야 해.》
영만은 씨근덕거리며 뛰쳐나갔다.
룡택은 《정동무, 정동무.》 하고 영만의 뒤를
따랐다.
《내버려두십시오.》 두식은 룡택을 만류하였다.
룡택은 한 50미터쯤 가서야 영만을 따라잡았
다.
《정동무, 좀 서라구!》 룡택에게 팔소매를 잡히
우고서야 영만은 멎어섰다. 그는 아직 씩씩거렸
다.
《정동무, 동무가 참아야지, 이러면 되오.》
《부리사장, 내 애초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 사
람은 안된다구 하지 않았습니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여간 난
가겠습니다.》
영만은 말리는 그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그가 가버린뒤에도 룡택은 한참동안 그 자리
에 서있었다. 그대로 돌아갈것인가, 두식이를 다시
찾아갈것인가 하고 망설였다. 이대로 돌아가자니
무엇인가 허전하고 두식을 다시 찾자니 어딘가
어색하였다.
룡택은 두식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
면 좋을지 몰랐다.
이대로 돌아가면 다시는 올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룡택은 두식이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현관에 들어선 룡택을 보고 두식은 놀래는 기
색이었다. 영만이와 같이 돌아간줄 알았던것이다.
남의 집을 찾아왔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
사도 안하고 돌아가겠는가 하고 하며 룡택은 방에
들어가 앉았다.
두식은 한편 멋적어하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
였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내가 저
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나는 젊었을 때 그
사람 신세도 많이 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젠 너무
하지 않습니까.》
《소꿉심절 친구니까 그러지요. 아무에게나 그
러겠습니까.》
《저만 잘났다는거지요 탄게 있나요.》

《나이 드신분들이… 꼭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하고 룡택은 한바탕 웃었다.
두식이라도 멋적은지 씩하고 웃었다.
룡택은 정색하여 말하였다.
《영만동무가 걱정하는것도 두식씨가 일본사람
처럼 될가봐 그러는게 아닙니까.》
영만의 심정을 알려주려고 룡택이 덧붙였다.
《아니, 날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부리사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조선사람입니다. 조선민
족의 정신은 가지고있단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봐선 안됩니다.》
자기를 욕하는 무식의 마음이 그는 반가왔다.
조선사람의 정신을 가지고있다는 두식의 말이 무
엇보다도 반가왔다.

3

룡택은 꽃밭에 물을 주고있었다, 꽃밭이라고
해도 손바닥만한 마당의 한구석을 가꾼것에 지나
지않았다. 봉선화, 무궁화가 담장옆에 있고 그앞
에 백일홍이 곱게 피었다.
남이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룡
택에게는 이주 귀중한 휴식터였다. 거기에는 흙
냄새가 있고 체질의 변화가 있었다.
잡초들을 뽑아내고 룡택은 꽃나무가지들에 흙
물이 튀지 않게 조심조심 물을 주고나서 그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나비가 한마리 꽃사이를 나풀
나풀 날고있었다.
일이 복잡하게 엉키거나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룡택은 언제나 이렇게 꽃밭을 가꾸어준다. 그
러면 머리도 정리되고 걸린 문제의 실마리도 풀
리게 되는수가 더러 있었다.
《부리사장!》
룡택이 물그릇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영만이 바
쁜 걸음으로 들어왔다.
《정동무, 무슨 일이 생겼소?》
《부리사장 두식이가 망했답니다.》
《뭐요!》
《그 녀석이 일본사람 행세를 하다가 끝내 망했
단말입니다.》
《아니, 망하다니… 정동무, 너무 덤비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룡택은 울퉁불퉁하는 영만을 늑
잡히였다.
영만의 이야기에 의하면 두식의 처 박씨가 집
에 찾아와 집이 망했다고 하면서 울며불며 야단
이었다는것이다.
두식의 아들 경호가 동남아시아 출장문제때문

에 《귀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강력히 반대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일로 부자간에 싸움이 벌어져 죽느니 사느니 란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룡택은 가슴이 덜컥했다.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바가 아니었다.

《부리사장, 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안된다고 말입니다. 아들놈교육을 그 모양으로 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뻔한 일이 아닙니까. 제손가락으로 제눈 멀게 한게지 다르게 뵙니까.》

영만은 자기 속에 맺힌 말을 다 털어놓았다.

머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밟다는 격으로 늘어놓는 정영만의 억두리에 룡택은 입안이 씹스레 해지는 감을 느꼈다.

룡택은 가슴이 아팠다. 곤경에 빠진 두식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에 맺히었다.

룡택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은 영만의 문제였다. 오래동안 같이 일해온 영만의 생각 하나도 바로잡아주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도 허황하였다.

영만은 자기 할 말만 늘어놓고 나가버렸다.

룡택은 다시 꽃밭에 가 쪼그리고 앉았다.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내 힘이 모자라는가, 정성이 모자라는가 룡택은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책감으로 모태기였다.

룡택은 물고릇들을 다 치워놓고 목욕탕에 들어가 손발을 씻었다. 그는 자기 생각에 골몰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안해 한씨가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어 따라 들어왔다.

룡택은 안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내가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소.》

《네?》 그의 안해는 놀랐다.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임자는 정동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소.》

《네.》

그제서야 안해는 남편의 이야기 뜻을 알았다.

《부리사장으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단말인가. 멀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영만이조차 바로세워주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부리사장이란 말인가...》 그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랐다.

《어버이수령님, 저는 저는 수령님을 뵈을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일시나마 동요하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신을 뉘우쳤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찾아내어 민족의 넋을 심어주어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지니고 떳떳이 살아가게 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사랑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는 김두식의 아들 경호를 만날 결심을 하였다.

룡택은 책상앞에 앉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펼쳐들고 한자한자 새기며 읽었다. 그는 오래도록 책상앞을 뜰 줄 몰랐다.

룡택은 두식의 아들 김경호를 만나기 위해 무진애를 썼다. 김경호는 이미 신문사를 그만두고 말았었다.

룡택은 영만의 안해를 통해 경호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영만의 안해는 경호가 단골로 드나드는 마장집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영만의 안해의 말에 의하면 김경호는 《귀화》를 강경히 반대한 아버지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못가게 되었다고 원한을 품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경호를 만나자고 한 그날 같은 시간에 룡택은 자기 공장에 일감을 대주는 피복제조회사 간부와 만나게 되어있었다.

룡택은 그 회사에 전화로 만날 시간을 좀 늦추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런 일은 보통 장사군의 상식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공장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룡택은 경호와 약속한 그 강변으로 나갔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경호는 나오지 않았다.

강건너 제방너머에는 공장굴뚝들이 여러개 서있었다. 여러날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말랐었다.

룡택은 5분, 10분, 시간을 미루며 기다렸다. 피복회사 간부와 약속한 시간도 촉박하여졌다.

그 청년은 약속한 시간보다 한시간이 넘어서야 나타났다. 그는 풀이 죽어 힘이 없어보였다.

리룡택은 그 청년을 어디서 본일이 있은듯하였다.

키가 후리후리한 그 청년은 룡택이 서있는데까지 와서 어물어물하였다.

《동무가 김경호요?》 하고 리룡택이 물었다.

《네... 부리사장입니다.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김경호는 일본말로 인사를 하였다.

《난 동무의 아버지를 좀 아는 사람인데 이야기 할것이 있어서 오라고 했소.》

《네, 들었습니다.》

룡택은 경호에게 앉으라고 하고 자기도 풀우에 앉았다.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갔다는데 어떻게 됐소?》 룡택은 직선적으로 물었다.

처음에는 우물쭈물하고있다가 경호는 아버지때 문에 자기까지 망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동무는 지금도 귀화할 생각이 있소?》 리룡택은 엄하게 물었다. 경호는 말없이 강을 보고있었다. 리룡택은 계속하였다.

《난 동무의 아버지가 옳다고 보오.》

그는 해방전에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끌려왔는가. 어떤 천대와 수모를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경호에게 들려주었다.

경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다.

《동무는 조선청년이요, 조선청년이 왜 일본사회에 빌붙어서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겠소. 하루를 살아도 주체시대의 청년으로 의의있게 살아야 할게 아니요.》

리룡택의 말이 경호에게 뜨거웁게 안겨졌다. 경호에게 있어서 조선청년의 립장에 선다는것은 새로운 체험이었다. 리룡택의 말은 솔직하고 간명했지만 그속엔 진실이 있었다.

리룡택은 주체시대에 대하여서도 많은것을 말하여주었다.

김경호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경호와 헤어진 리룡택은 그 길로 두식이네 집을 찾아갔다.

두식은 수건을 싸매고 방에 누워있었다.

두식의 안해 박씨는 리룡택을 보자

《에그 이제 다 망하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고 팔자타령을 터뜨려놓았다.

경호가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자 용자를 해주겠다던 신용조합에서는 용자를 취소한다는 통고가 오고, 아직 지불날자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바람이 남편이 병들어 누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경호는 어데 갔는지 안돌아오고 남편은 저 모양이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에그... 무서워라 세상도 무심하지...》 하고 박씨는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주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

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룡택은 위로하였다.

4

저녁부터 시작된 상공회 리사회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였다. 방안에 담배연기가 뽕얇게 끼였었다.

그날 회의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세금대책을 더 잘 세울데 대한 문제와 한사람의 동포라도 더 많이 찾아내여 대렬을 확대해나갈데 대한 두가지 문제가 토론되였다.

선풍기가 세대씩이나 돌아가고있었으나 사무실안은 조금도 선선해지지 않았다.

예정하였던 문제가 다 토의되고 기타 문제로 넘어가자 룡택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룡택은 두식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 하는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공회에서 방조해줄 수 없겠는가고 제의회였다.

두식이와 그의 아들 경호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졌다.

의견이 두가지로 갈라졌다. 무조건 도와주자는 의견과 좀더 교양을 주어서 똑똑한 립장에 섰을 때 도와주자는 의견이였다.

영만이 토론에 참가했다.

《나는 김두식이와는 한고향에서 같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나는 두식이가 아들 경호를 초급학교에 보낼 때부터 조선학교에 넣으라고 하였습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끝내 말을 듣지 않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시다. 이 결과의 뿌리는 20년전에 있었다는것, 또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장사해보겠다는 허황한 꿈을 꾸어왔습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도움을 요구한다는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깊이 돌이켜보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계속 교양을 주고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도와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단의 토론은 설득력이 있었다. 일시적인 동정으로 돈을 다루는것은 상공인으로서의 있을수 없는 일이다. 깊은 반성이 없는 사람은 또 같은 결함을 되풀이 할수 있다는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좀더 두고보자는 방향으로 쏠리게 되였다.

사실 룡택이도 자신이 없었다. 자기가 두식이라는 사람을 깊이 아는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가 더 두고보자고 하

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두고보잔말인가.

끝끝내 고집을 쓰는 명만을 두고 리룡택은 가슴이 아팠다.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홀시하는 편향을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리룡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동포들을 더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애의 정이 없는 설복과 교양은 힘을 내지 못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포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을 살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하나가 열을, 열이 백, 백이 천 하는식으로 우리 동포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이 모두 조선사람의 넋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어버이사랑입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모자라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두식씨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포애의 정입니다.》

룡택은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제각기 생각에 잠겼다. 결국 두식씨에게 방조를 주자고 합의가 되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룡택이가 계속 연구를 하도록 분공을 맡았다.

룡택은 조은(조선은행)을 여러번 찾아가 두식씨에게 운영자금을 대부해주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신용조합이었지만 필요한 서류는 다 만들어야 하였다.

룡택은 그 서류를 가지고 영만을 찾아갔다.

영만이와 마주앉자 룡택은 두툼한 서류를 내놓았다.

《이걸 동무한테 인계하겠소.》

《무엇입니까.》 영만은 서류를 보았다.

두식씨에게 운영자금을 대주기 위한 서류라는것을 룡택은 알려주었다.

《내가 이제까지 동무의 승인도 없이 이 일을 말아해왔는데 이건 응당 동무가 할 일이요. 그러니 동무에게 돌리겠소. 보증인란에 도장만 찍으면 다 되요.》

두명의 보증인란이 있는데 우의 란은 공백으로 남아있었고 밑에 란은 리룡택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었다.

영만은 서류에서 눈을 땔수가 없었다. 그는 서류를 도로 내밀었다.

《내가 왜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난 못

찍겠습니다.》

룡택은 그 이상 더 권하지 않았다.

《동무가 정 못찍겠다면 좋소. 내 도로 가져가겠소.》 하고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고 그 집을 나왔다.

다음날 룡택이 장부정리를 하고있는데 영만이 찾아왔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하는 룡택의 물음에 정영만은 그저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하며 우물쭈물하였다.

룡택은 정리하던 장부를 밀어놓고 책상 한가운데에 두식의 서류를 내놓았다. 영만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는 못본체하고 외면하였다.

정리하던 장부를 들고 룡택은 공장쪽으로 나갔다. 일시에 공장의 소음이 밀려들어왔다.

이윽하여 룡택이 방에 들어왔을 때였다. 영만은 봉투에 서류를 다시 넣고 제자리에 놓고있었다. 영만의 도장집이 책상우에 있었다.

《정동무, 그 서류는 왜 만지오.》

영만은 도장집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태연하게 말하였다.

《부리사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내가 안찍고 되겠소.》

《정동무!》

그는 영만의 심정을 잘 알수 있었다.

영만은 가슴이 몽클해졌다. 두식씨와 자기 사이의 불화를 화해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영만은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그는 룡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부리사장, 고맙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룡택이 찾아갔을 때 두식은 손을 잡아끌듯이 반가이 맞이하였다.

《영만이는 안웁니까?》

《이제 올웁니다.》

이때 밖에서 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만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영만이와 두식은 서로 급히 다가갔다.

《영만이!》

《두식씨!》

두사람은 와락 얼싸안았다. 두사람의 눈에 눈물이 피었다.

룡택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그날밤 그 방에는 언제까지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동포애의 정이 꽃피나고있었던것이다.

웃는 얼굴

윤승홍

우리는 가끔 무심히 지나칠수 있는 평범하고 레사로운 사실앞에서 뜻밖에 커다란 충격을 받는 때가 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실이라도 이런 충격은 가슴에 새겨져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도 그런 경우에 부딪치곤하는 때가 있다.

얼마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 나가있었다.

내가 그 공장 승강기직장에 들어섰을 때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알고보니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하고있는중이었다.

나는 마침 구면인 연출가를 만나 무슨 장면을 찍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찍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영화문학의 줄거리를 들으면서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성너머로 촬영광경을 바라보았다.

여러갈래의 조명등이 교차되고있는 그 초점에 선반공처너로 분장한 나어린 한 여배우가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나는 촬영장면을 더 보고싶었으나 공훈기계제작공아바이를 만나볼 일이 있어 아쉬운대로 그 자리를 뜨고말았다.

며칠후 내가 그 공장에 다시 나갔을 때였다.

그런데 이날도 바로 전번날의 그 광경이 또 벌어지고있는것이 아닌가!

(이번엔 또 다른 영화를 찍는 모양인데-)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촬영장쪽으로 다가갔다. 촬영장은 예상외로 조용하였고 로동자들마저 말소디콜 죽여가며 다녔다.

기대공들과 도장공아주머니들까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빙 둘러서있는것을 보니 무슨 극적인 장면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나도 슬그머니 그들틈에 끼웠다.

촬영기앞에는 며칠전 그날처럼 그 《선반공》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은채 그 모습, 그 자세대로 서있었다.

연출가가 다가와 웃으며 하는 말이 선반공이 울고있는 장면을 진실하게 찍어야 하겠는데 잘 안된다는것이였다.

희망에 넘쳐 기대를 돌리는 모습, 소재운반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모습, 기쁨에 넘쳐 웃는

모습은 잘되어 그날로 다 찍었는데 우는 장면이 진실하게 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내용인즉 오늘의 끝없는 행복에 겨운 나머지 기계부속품가공에서 오작을 내여 동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주인공-선반공처너가 직장장인 오빠가 들려주는 부모들이 걸어온 지난날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였다.

아마 이 장면이 진실하게 잘되지 않는것은 나어린 여배우가 주인공의 감정세계에 완전히 융합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착취사회에서나 있을수 있는 그런 원한과 설움을 한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오직 행복만을 누리며 자란데도 원인이 있으리라.

사실 쉬운 역형상이 아니였다.

사색에 잠긴 《선반공》을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교시가 뜨겁게 떠올랐다.

《청년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의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가슴가득 북받쳐오름을 느끼며 새로운 눈으로 내앞에 서있는 《선반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였다.

물론 나어린 신인배우라 하여 이런 연기를 훌륭히 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 배우의 기량부족으로만 보고싶지 않은 나의 심정이 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가, 얼마나 행복한 새세대인가!

한줄기의 그늘도 모르고 자란 그 마음속에 아마도 난생 처음 슬픔을 안아보는것이리라.

왜 그런지 나의 가슴속에서는 야릇한 흥분과 걱정이 끓어올랐다.

문득 지난날이 돌이켜진다. 사람들의 운명이 길가의 돌맹이처럼 짓밟히우고 버림받던 지난날, 한숨 많고 눈물이 마를날 없었던 지난날이...

영화촬영의 레사로운 한장면이겠지만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언젠가 이 공장 로동자문화회관에서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던 그날이 생각키웠다.

일제통치시기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가를 내용으로 한 시와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는데 제사공장으로 팔려가는 언니를 붙잡고

나 어린 동생이 몸부림치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 나 어린 동생역을 맡은 처녀 썬빠공-예술 소조원은 끌려가는 언니를 소리쳐부르며 분노와 원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있었으나 형상과제와는 달리 돌아서서 두손으로 얼굴을 싸권채 어깨를 들먹이는것으로 처리하였었다.

공연끝에 있는 총화에서 그 소조원은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가 비판을 받은것은 돌아선데 있는것이 아니었다.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웃었다는것이였다...

역시 촬영중에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도 자기 아버지인 오늘날의 오랜 기계조립공아바이가 걸어진 험악한 가시덤불길을 어찌 다 알수 있랴.

주인공 아버지의 머리에는 아직도 원한의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어렸을 때 일찍 부모를 잃은 아바이는 일곱살 때부터 강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다.

악착하기로 소문난 강지주놈은 어린애의 키보다 더 큰 지계를 만들어주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게 하였다.

그놈은 어린 머슴이 나무를 해지고 내려오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져 덩굴면 제 아이들과 함께 마당가에 나와서 재미있게 구경하면서 좋아라고 웃어댔다.

어느해 설날이였다.

그날도 굶주리채 고역에 내몰린 아바이는 커다란 나무단과 함께 그만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다.

피투성이가 되어 눈길을 헤치고 간신히 돌아온 그는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타산에 눈이 밝은 강지주놈은 어린 머슴이 축내는 한덩어리의 언 보리밥마저 아까와 무서운 궁궁이짓을 벌렸다.

눈보라 사납게 휘몰아치던 깊은 밤, 어린 머슴이 앓고있는 소외양간속으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없이 기여들었다.

그놈은 손에 든 흉기로 어린 머슴의 머리를 찌르고 꼬리를 사렸다.

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살인마의 만행인가. 그러나 어린 머슴은 죽지 않고 살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더듬고있는데 갑자기 《촬영 준비!》 하는 연출가의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바라보니 《선반공》이 다시 역형상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가슴을 죄였던 나는 이제야 되였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촬영이 잘되기를 바라고있었다.

다.

《선반공》이 맡은 연기를 시작하자 촬영기가 《따르륵!》 하고 돌았다.

이번에는 연기가 훌륭히 된것 같았다. 연출가의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피여오르는것이였다. 나 어린 녀배우는 연출가를 향하여 돌아서더니 《전 왜그런지... 호...》 하고 한숨쉬인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잘했소, 이번엔 참 훌륭하게 연기했소!》

연출가의 말에 긴장했던 촬영장에는 이윽고 가벼운 웃음이 터져올랐다. 로동자들도 웃고 다른 배우들도 웃었다.

녀배우의 얼굴에도 전에없이 밝은 웃음이 비끼었다.

웃는 얼굴, 밝은 미소...

웃음밖에 모르는 세대대들은 오늘의 행복에 겨워 속삭이었고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살점을 물어뜯는 지주, 자본가놈들의 채찍아래 흘러간 수난의 그 세월이 떠올라 말없이 서있었다.

웃는 얼굴!

나는 《선반공》의 웃는 얼굴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었으며 이 행복, 이 기쁨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마음속깊이 돌이켜보게 되었다.

《선반공》은 조용히 기대를 쏠아보고있었다.

결에서 일하던 로동자들도 흐뭇한 시선으로 혹은 사랑스러운 눈매로 한 신인배우를 지켜보고있었다.

《참 좋은 세상이요!》

결에서 누군가 이렇게 조용히 말하였다.

돌아다보니 작품에 선반공처녀의 아버지 원형으로 택했다는 공훈기계제작공아바이였다.

우리의 창조적인 보람찬 로동생활속에 기쁨도 많지만 이 순간의 저 밝은 미소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그러한 웃음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것인가!

《선반공》처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공장을 떠나가는 나의 눈굽에는 저도모르게 행복의 눈물, 감사의 이슬이 피여올랐다.

나는 따사로운 해빛이 아롱져내리는 가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쏟아놓지 않고서는 못건딜 걱정을 안고 이렇게 속으로 몇번이고 뜨겁게 속삭이였다.

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의 조국은 또 얼마나 좋은가!

어려운 때일수록

김복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 근로 단체 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조직생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활규범으로 되어있으며 조직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대오에서 조직생활을 하고있는것은 우리들의 더없는 자랑이며 행복이다.

당이 혁명의 무기, 조직된 대오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성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며 누구나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숨쉬며 조직관념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 옳바른 조직관념을 지닌다는것은 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직하게 싸워나간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당단체들이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와 운명을 같이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일수록 옳은 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은 당과 혁명에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들의 중요한 품성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에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 작가, 기자들이 락동강전선에서 후퇴명령을 받고 여러날째 걸어오던 때의 일이다.

우리 작가, 기자의 자그마한 대오는 적들의 경계망을 뚫고오는 어려운 환경에서 산을 타고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우리는 하루 한끼나 먹으나마나해도 기세당당히 행군하고있었다.

모두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직을 찾아가 종군생활을 보고하고 새 임무를 받을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조치원을 지나 적과 조우한뒤 대렬을 군대식으로

로 편성하고 중대장을 내왔다.

우리의 대렬이 원주, 횡성 계선의 산을 타고오던 때에 뜻밖에도 적기계화부대와 부닥치게 되었다. 놈들은 우리가 가는 산턱앞 신작로에 땅크를 늘어세우고 말을 탄놈이 오가며 감시하고있었다.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잔솔밭에 둘러앉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곧 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 얻어진 결론은 이 솔밭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 오면 야음을 타서 신작로를 횡단하여 건너편 산밭에 붙자는것이였다.

우리는 하루해를 솔밭에서 보내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솔밭에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무료하기 짝없었다. 크게 말도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노라니 시장기가 닥쳐왔다. 이날 아침도 설친 우리들이였다. 마을에 내려가 조반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락마다 적들이 강점한 조건에서 밥을 해달랄수 없어 그냥 산을 타고 왔던것이였다.

점심때도 지나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고있었다. 소나무가지새로 흘러드는 저녁노을이 지칠대로 지친 까맣게 탄 동무들의 얼굴을 비쳐준다.

형편은 난감한데가 없지 않지만 종군길에서, 최전선에서 단련된 동무들이라 누구도 당황해하지는 않았다.

적들의 무리속에서 무어라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어를 아는 동무가 엿듣고 하는 말에 의하면 놈들은 밤에도 이동하지 않을 눈치라 했다.

일부 동무들의 얼굴엔 초조감이 비졌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이때 소나무밑에 누웠던 기자동무가 상반신을 일으키며 한 작가를 불렀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말입니까?》

작가의 물음에 기자는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그의 얼굴은 비장하였다.

《결사전을 할수도 있겠는데 당원증들을 따로 모으는것이…》

순간 로당원작가의 얼굴에는 노기가 어리었다.

《안되오. 그것을 어떻게 순간이나마 우리의 몸에서 뗄수 있단말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할것이 아니요.》

로당원의 말은 계속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락동강전선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었소. 지금 우리는 당중앙을 향하여 떠나지 않았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기다리고계신단말이요.》

순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지난날 조직생활에 대한 갖가지 추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제가끔 제 나름의 각이한 표상을 눈앞에 보는것이다. ...당원이 어찌 자기의 심장에 품은 조직생활의 증표를 자기의 몸에서 뗄수 있단말인가.

로당원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울리었다.

《동무들! 항일의 투사들은 끼니는 건늘지언정 조직생활은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소. 그들은 정세가 긴박할수록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고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억세게 살며 싸웠소...

동무들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데 왜 그것을 뚫고나가겠다는 생각을 할대신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가말이요. 우리는 가야 하오. 당을 따라 천리라도 가야 하고 만리라도 가야 하오...》

《웁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의견을 제기하던 동무의 말이였다.

로당원의 말을 듣는 우리의 머리는 맑아지고 오직 한마음 당을 따라 우리의 행군을 다그치리라는 일념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다.

파연 그러하였다. 우리는 아직 원썩와의 싸움에서 첫 걸음을 떼지 않았는가, 우리는 가야 한다. 당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하여도 우리는 가야 한다. 당앞에 돌아가 보고올리고 당의 새 전투임무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충천하는 기세로 그날밤 야음을 리용하여 룡선끝에 나아갔다.

우리는 은밀히 신작로에 기여내려 도로를 횡단하여 감쪽같이 계곡에 들어섰다. 아차아차한 순

간이 흘렀다.

계곡은 깊고 험하였다. 바위를 타고넘으면 덩굴이 우거져 길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도 걸음을 늦추지 않고 억세게 걸어나갔다.

그 기세, 그 충격을 안고 당을 따라 삼천리를 걸었고 재진격부대를 따라 나아갔다.

우리는 기어코 전쟁승리의 영광스러운 보도를 하고서야 군복을 벗었던것이다.

이것은 어느덧 30 년전의 일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의 일이 눈앞에 생동하게 떠오른다. 나는 그날을 돌이켜보며 심각한 교훈을 찾군한다.

그날 파연 그 어떤 힘이 우리로 하여금 적포위망을 그렇게도 과감하게 뚫고나오게 하였는가, 그것은 조직이 준 힘이요, 조직생활, 확고한 조직관념이 준 힘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에서 우러나온 힘이였으며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에서 온 신념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단원으로부터 사람들은 다 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강철같이 단련되어가고있다.

나는 칠십이 되어 백발을 날리면서도 조직생활을 하고있다. 남들과 같이 당조직에서 분공을 받고 분공을 집행하고 당조직에 보고하고 또 새로운 분공을 받으며 철두철미 당에 의거하여 생활함으로써 로쇠를 모르고 청춘의 기백으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있다.

우리는 지금 제2차7개년계획의 보람찬 투쟁을 하고있다.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이미 그 돌파구를 열어가고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서 오는 움직임수 없는 힘의 표현인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당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조직관념을 높임으로써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할것이다.

순천의 세멘트생산자들을 찾아

장호건

푸른 하늘가에 아슬히 치솟은 예열탑이며 기운 차게 돌아가는 소성로들의 우람한 동체며 공중을 가로질러 건너간 벨트콘베아수송복도들...

공장의 외경만을 보고도 누구나 그 장엄함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 나라 대건재공업기지의 하나인 순천세멘트공장!

얼마전에 이 공장을 찾아간 우리는 정문앞에서 반가이 맞아주는 이 공장 생산부기사장 리학철 동무와 먼저 인사를 나누고 구내길에 들어섰다.

《부기사장동무 얼굴에 웃음이 담백 어린걸 보니 생산이 쑥쑥 올라가는 모양이군요!》

구내길을 걸으며 우리가 이렇게 웃음섞인 말로 먼저 한마디 하자 그도 서슴없이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딱 들어맞추었습니다. 제 얼굴은 한난계처럼 생산성과에 따라 변하곤하지요!》

소탈한 그의 대답에 우리는 서로 마주 바라보며 한바탕 통쾌히 웃었다.

한참 웃고나자 그는 지금 공장의 생산정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온 공장 로동계급이 세멘트생산에서 지난해실적보다 1.9 배나 높이 세운 올해의 전투목표를 달마다 분기마다 빛나게 넘쳐수행하면서 계속 혁신의 한길로 내닫고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0 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공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주신 현지교시에 무한히 고무된 로동자들의 충성의 불길은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아만 가고있다고 한다.

《몇해전만 하여도 이곳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산기슭 밭이랑에서 날아오른 종다리 노래소리밖에 들리는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고장에 몸소 첫자욱을 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번영하는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하시여 오늘과 같은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큰 세멘트공장을 일떠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뵈던 지난 나날들이 뜨거이 안겨오는듯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젖어든 눈길로 천천히 공장구내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이 공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

리는 공원처럼 가로수 푸른 구내길을 숭엄히 걸어갔다.

바라보이는 모든 설비들과 건물마다에서 뜨거이 안겨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어버이 그 사랑에 목매여 한걸음, 한자욱을 내짚어도 빛나는 충성으로 수놓기 위하여 가슴 불태우고있는 이 공장 로동계급이기에 지난해 생산실적보다 1.9 배로 높이 세운 올해계획도 앞당겨 점령해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동원되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겨안고 충성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전투원들을 찾아 우리는 먼저 종합직장의 중앙조종실에 들어섰다.

붉고 푸른 신호등들이 무수히 반짝이는 조종판으로 3 면벽을 가득 채운 중앙조종실에서는 생산과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계기들과 조종판우에 놓인 산업텔레비존의 화면들을 통하여 이글거리는 소성로안의 불길이며 원료직장의 배합상태며 중요설비들의 동작이 손금보듯 안겨왔다.

흰 와이샤쓰에 산뜻한 넥타이를 맨 젊은 조종사들은 전자계산기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수자들을 기록부에 옮기며 수화기를 들고 기쁨에 넘쳐 연방 지령을 주고있었다.

《로상태는 좋다! 로상태는 좋다!》

《앞뒤공정 모두 만부하다, 세밀점검하라!》

젊은 조종사들의 활기띤 모습에 취하여 한참동안이나 서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한쪽 조종판의 붉은 신호등이 깜빡이며 봉봉- 소리를 낸다.

무슨 일인가 하여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부기사장동무는 현장기대들에서 자동적으로 보내오는 경보신호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조종기대를 맡아보던 한 조종사가 재빨리 전화기를 든다.

《운전공, 부유예열탑의 원료공급계통 압력을 살피라!》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는것이 아닌가싶어 전자리에 긴장해진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듯 부기사

장동무는 빙그레 웃어보이며 지금 경보에 접한 소성작업반 운전공들이 경보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공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이곳 중앙 조종실은 현장과 떨어져있지만 언제나 한덩어리로 움직이고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벌써 경보를 처리한 현장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실로 온 공장이 하나같이 움직이고있는것이다.

《방금 경보처리를 한 저 동무가 박명호조종사이고 그옆에 앉아있는 동무들이 설비를 세우지 않고도 원료분쇄기의공기분리기를 보수하게 함으로써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한 김응룡, 리성모 조종사입니다.》

젊은 조종사들의 모범적인 사실과 이름을 수첩에 적어넣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중앙조종실 문을 나선 우리는 지축을 구르며 쉽없이 기운차게 돌아가는 소성회전로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되고 현대화된 우리 공장에서 생산의 비약을 이룩하자면 먼저 이곳 소성공정이 앞서야 하나의 유기체처럼 련관된 앞뒤공정들에서도 혁신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소성로보수문제이지요.》

로보수시간을 단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인 공장생산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그는 계속하여 얼마전에 있는 로보수전투때의 이야기를 흥분된 어조로 들려주는것이였다.

…로보수전투를 앞두고 소성작업반원들은 회전로밑에 모여앉아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제일 먼저 두주먹을 부르짖고 일어난 작업반장 오병록동무는 《우리가 어떻게 기존공칭능력대로 소성로중보수에 12일간씩이나 잡아먹겠는가, 우리는 3일동안에 해제끼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라고 힘있게 호소하자 이에 전체 작업반원들이 하나같이 호응해나섰다.

세포비서 차학무동무와 작업반장 오병록동무들이 앞장서서 로안으로 뛰어들었고 박주동, 리후남, 오춘식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전투원들은 벗어선 로안에 찬바람을 불어넣어 식히면서 로벽을 헐고 새로 쌓는 전투를 벌리었다.

드디어 그들은 54 시간만에 보수를 끝낸 로안에 불을 지펴올렸다고 한다.

소성공들의 위훈에 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크링카수송직장의 장쾌한 모습이며 현장 여기

저기에 나붙은 기적과 혁신을 알리는 대문짝같은 속목들이며 붉은 선이 쪽쪽 뻗어오른 도표들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며 세멘트생산의 마감공정을 말아나선 포장직장으로 향하였다.

부기사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세멘트생산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의 마지막 공정에 속하는 포장직장의 노동자들속에서도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포장의 질을 훨씬 높이면서도 최근에 2.5배로 늘어난 직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포장공 박광선, 김홍천동무들과 적차공 김덕해, 조승철동무들은 포장기대의 가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짐차들에 세멘트를 싣는 시간을 극력 줄여 매일 70 여차량이나 더 실어내는 기적적인 성과를 쌓아올리고있다는것이다.

조국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는것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숭고한 혁명임무라는것을 가슴깊이 깨닫고 있는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가는 이곳 세멘트생산자들,

자동화, 현대화된 공장에서 마음껏 일해가는 크나큰 행복과 긍지를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이곳 세멘트생산자들의 충성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실로 이 공장 로동계급의 충성의 열도는 이글거리는 소성로의 불길보다도 더 뜨거운것이다. 이런 충성의 열도로 하여 세멘트는 날이 갈수록 더 높은 강도로 구워지고 언제나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땅속의 주추들이 하늘가에 솟아오른 저 웅장한 건물들을 억척같이 떠받들고있듯이 여기 소성공들의 말없는 충성심이 그 어떤 비바람 폭풍에도 끄떡없이 만년대계로 솟아있을 조국의 모든 창조물들을 받들고 있는것이다.

높아만가는 충성의 열도!

높아만가는 세멘트의 강도!

소성공들의 그 뜨거운 마음인양 서있는 우리앞으로 세멘트포대들의 장엄한 흐름이 포장기며 벨트콘베아를 타고 순간도 멈춤없이 흘러내린다.

연방 꿈무늬를 들이대는 짐차들이 허리가 늘씬하게 그 세멘트포대들을 받아실고는 벽찬 숨을 내뿜으며 서둘러 떠난다.

기적소리도 높이 공장구내를 벗어나는 짐차들의 긴 행렬을 이윽도록 바라보며 서있는 우리의 눈앞엔 주체의 강국으로 더 높이 솟아 온 누리를 밝히는 원대한 조국의 모습이 가슴가득 안겨왔다.

청천강이여 길이 전하라

리치운

여기는 청년화학기지건설장이다.

우리는 지금 이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에 넘쳐 바라보며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몇년전만 하여도 모래만 날리던 고요한 강반에 땅을 차고 전설같이 솟아난 화학공업의 새 도시.

은빛옷을 떨쳐입고 하늘을 치받아 아아히 솟은 첩탑의 숲은 해빛에 유난히도 번쩍이고 산악같은 건물들이며 거인같이 앉아있는 장치물들의 사이사이를 혈맥인듯 줄줄이 뻗어간 배관들의 끝은 눈이 모자란다.

불길을 훨훨 날리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해불굴뚝(폐가스를 태워서 무해물질로 하늘높이 날려보내기 위하여 세운 굴뚝)은 또 얼마나 장관인가.

청천강물결은 새로이 태어난 이 대화학기지의 거창한 웅자를 비껴담고 마치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송가라도 읊조리듯 끝없이 출렁이며 흘러간다.

(대화학기지, 여기서 폭포처럼 쏟아지게 될 폴리에틸렌과 아닐론천은 우리 인민의 유족한 생활을 또 얼마나 풍만하게 만들어줄것인가!)

총조업의 환희로운 시각을 눈앞에 바라보며 종합적시운전에 들어선 기대마다에서 노래처럼 울려퍼지는 고르로운 동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흐릿한 생각을 띄워보는데 이 공장의 한 부분이면서도 어지간히 떨어져 자리잡고있는 폐수생화학처리장건설장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1979년 2월 20일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찰하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새 공격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자!》라는 붉은 바탕의 대형규호들이 흑더미우에 높이 서있고 공사장의 여기저기에 붉은색 기발들이 바람에 나뭇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2월 20일 몸소 건설장에 오시여 주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찰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이곳 영웅건설자들의 지칠줄모르는 열정과 투지런듯 하늘공중에선 연공들의 호각소리가 그칠새 없고 땅우에선 사람들이 뛰고 기계의 동음이 대지를 진감한다.

건설장은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구며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련속 들이닥치는 자동차대오, 쏟아지는 혼합물을 쇠바가지에 떠싹고 허공중에서 빙빙 돌아가는 기중기의 육중한 팔들… 진동기를 겹싸게 휘둘러대며 그물처럼 엮어진 철근의 사이사이를 다지며 콘크리트벽체를 쌓아올리는 타입공들의 일숨씨는 말그대로 번개같았다.

얼핏 보아도 포기조(압축공기를 불어넣어 폐수를 정화시키는 거대한 철근콘크리트 탱크)공사를 건설의 돌파구로 정하고 줄기찬 돌격전을 벌리고있음을 대뜸 알수 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을 긍정하듯 전투현장방송원의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영예로운 화학기지건설자녀여, 여기가 청년화학기지의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돌파구 대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현지에 오시여 공사형편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폐수생화학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폴리에틸렌공장과 아닐론공장을 조업할수 없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을 영원히 공해를 모르는 락원에서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여 폐수생화학처리장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완공하자!》

방송원의 흥분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구절구절이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흥지구 화학기지건설에서는 청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시다.》

조국땅우에 일떠선 모든 공장들이 다 그러하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청년화학기지를 억년세월이 흘러도 유해를 모르는 깨끗하고 신선한 공장으로 되도록 하여주시기 위하여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 인민들을 늘 물맑고 공기좋은 락원에서 남보다 더 잘살게 하기 위해 그처럼 심려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화학기지를 청천강기슭에 앉히도록 하시고 몸소 현지에 오시여 터전을 정하여주시였다.

이른봄 땀잔 강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청천강반의 모래불우에 사색깊은 자욱을 찍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 건설되는 남흥화학공업지구에 한방울의 폐수도 한오리의 가스도 새어나가지 않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전문 일군에게 알아보시고 무엇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로동당시대에 건설되는 공장인데 유해를 모르는 만년대계의 기념물이 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아직은 기둥 하나 서있지 않은 허허벌판을 보시면서 바람방향을 물어보시고 공장 굴뚝을 앞힐 맞춘한 자리를 정하여주시였으며 건설자들의 살림집구역은 양지바른 산기슭에 잡아주시는등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어느해 여름, 청천강쪽우에 오르시여 몰라보게 달라진 건설장의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발밑에 흐르는 푸른 물위에 잠시 그윽한 눈길을 보내시더니 조용히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었다.

청천강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명강이다. 물이 맑아서 청천강이라 이름지은 이 보배강에 공장의 오수가 흘러들어 고기들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논판에서 들리는 개구리울음도 농촌풍경이니 청천강에 폐수가 흘러들면 열두삼천리벌이 조용해진다고 거듭 심려의 말씀을 하시었다.

언제인가 한 잡지를 보시다가 남조선에서 공해 산업을 마구 끌어들이고있는것을 보시고 지금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공해병이 발생되여 기형아들이 출생되고 가스로 오염된 공기와 폐수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인민들이 생명까지 잃고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할수 없으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시듯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신가.

이처럼 크나큰 사랑과 배려 속에서 일하며 사는 행복한 인민이 또 어디 있으며 이렇듯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사랑보다 더 뜨겁고 큰것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착취받고 억압받고 예속당하는 인간을 사회 적예속에서뿐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할데 대한 인간해방의 위대한 사상을 안으시고 인민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5 월 4 일 청년화학 기지가 완공되여도 폐수생화학처리장을 다 건설하지 않고서는 조업을 할수 없다고 다시금 간곡

한 교시를 주시었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신가.

어제의 기적이 오늘에 남아지고 하루밤을 새면 더 높이 솟구치는 놀라운 기적과 혁신의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은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야말 불같은 열정을 안고 떨쳐나선 전투장이기에 여기선 창조의 낮과 밤이 이어지고 기적이 기적을 덮고 더 높이 솟구치는것이다.

말그대로 대고조의 숨결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속에 일자리는 눈에 띄이게 나타난다.

방금전까지 바닥콩크리트치기를 다그치던 타입공들이 2차포기조 벽체타입에 돌입하였고 교예극장건물을 방불케 하는 원형탱크들이 다투어 키를 솟군다.

모두가 혁신자들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화학공장건설련합기업소 시공부기사장 한경률동무는 이런 말을 들려준다.

《<싸움 잘하는 부대>, <숨쉴수 있는 부대>의 명예를 걸고 폐수생화학처리장의 심장을 담당해나선 제31 화학공장건설사업소 3직장의 전투원들은 콩크리트혼합물만 하여도 수천여립방메터나 들어가는 방대한 1 차포기조공사를 처음 세운 결의목표보다 5 일간이나 앞당겨 끝냈습니다. 그들은 건설속도를 조금도 늦춤없이 2 차포기조바닥콩크리트타입공사를 종전에 비해 또다시 2배의 속도로 내밀었습니다.》

로력영웅 최용득동무를 비롯한 류국진작업반원들이 철근조립과 휘틀조립을 확고히 앞세워나갈때 어렵고 긴요한 모퉁이마다 어깨를 들이미는 충성의 2월 20일 청년돌격대원들은 혼합물이 들이당기 바쁘게 진동기를 쥘싸게 휘둘러대면서 타입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습니다.

대장 김호선, 소대장들인 김의용, 김춘진, 김영국동무들을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집체적 지혜와 힘을 모아 대형공중발판을 작업에 받아들여 련속타입방법으로 공사속도를 단번에 3.5 배이상 높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인듯 그는 신이 나서 계속했다.

《혁신의 불길은 건설공사의 척후병들이라 불리우는 견재직장 전투원들속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는데 작업반장 김익철동무날 비롯한 혼합물작업반원들은 <전선에 포탄을 섬기는 심정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교대가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5월에 제일 높이 올린 교대당 혼합물 생산실적 215 립방의 수준을 훨씬 뛰어올라 교대당 290 립방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새 기록을 창조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혁신과 기적은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달려온 제 32 화학공장건설사업소와 제 13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지원기업소들에서도 다투어 솟구쳤다.

폐수생화학처리장건설이 우리 인민들을 영원히 공해를 모르는 행복의 락원에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건설장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첫전투부터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온 제 32 화학공장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침강조와 메탄탱크 공사를 계획보다 4 일간이나 앞당겨 끝냈다.

혁신의 불길은 도처에서 타번졌는데 끊임없는 혁신만을 아는 제 13 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이 균질화조(유독물질을 잡아먹는 균을 배양하는 탱크)공사를 350%의 속도로 내밀고 흐뭇이 웃고있을 때

제 1 수력발전소종합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하루밤에 10 여톤의 철근을 와닥닥 조립해치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여 경쟁자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장훈》을 부르면 《통장훈》을 들이대며 더 높이 치달아오르는 공사속도로 하여 여기선 한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열흘맞잡이로 된다.

작업장을 뜨지 않겠다고 늘 《싸움》을 한다는 사로청원처녀들... 어데 가나 보이는것, 들리는 소리는 모두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요, 비약하며 전진하는 대고조의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이곳 건설자들은 충성의 구슬땀을 흘리고 또 흘린다.

피어오르는 한가닥의 가스도 한방울의 폐수도 가져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겁고도 뜨거운 사랑을 깊이 간직한 충성의 심장파 심장들에 받들려 대청년화학기지는 총조업의 환희로운 시각을 다그쳐간다.

사람들이여! 폭포처럼 쏟아지는 폴리에틸렌과 아닐론의 필필을 바라볼 때 잊지 마시라. 그속에 깃들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화학공업도시-청춘도시를 그저 웅장한 건물로만 보지 마시라. 여기에 펼쳐진 사랑의 대서사시를 먼저 읽으시라.

청천강이여, 이 사랑 길이길이 전하며 흐르라!